

메가시티 삶의 질과 서울형 행복지표

변미리

The Quality of Life in Megacity and Seoul-Specific Happiness Indicator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메가시티 삶의 질과
서울형 행복지표

연구책임

변미리 미래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연구진

최정원 미래연구센터 초빙부연구위원
박민진 미래연구센터 연구원
이혁준 미래연구센터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서울시민 행복지수에 물질적 요소가 큰 영향 계층이동 가능성 등 주관·인지적 요소도 중요

공공부문 정책 패러다임은 시민행복감 증대로 전환하는 추세

공공정책이 시민들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정책지향이 하나의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다. 2012년 UN의 『세계행복보고서 The World Happiness Report』 발간은 공공부문에서 시민들의 삶의 행복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여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사회 발전수준 = 국민총생산(GDP)으로 측정하던 일반적 기준에 대한 본질적 문제 제기로, 이 보고서의 출현으로 전 세계, 한 국가, 한 도시의 성장은 무엇을 의미해야 하며, 사람을 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공공부문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전 세계 메가시티 발전방향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 세계 대도시들은 오늘날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도시의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 할 것인가, 즉 사회의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도시의 경쟁력이 단순하게 경제성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이미 절대적 빈곤을 벗어나 발전국가의 도시가 갖는 위상에 부응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사회의 ‘질적 성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개입 없이는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형 행복지표는 서울시민 삶의 질 개선에 정책적 무게중심 강조

서울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기반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 가운데 하나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의 현재를 모니터링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여 정책적 개선책을 찾고자 서울형 행복지표 구축 연구를 수행하였다. 서울형 행복지표 구축은 메가시티와 비교 가능한 공통된 행복지표의 틀을 구축하면서도 서울시민이 각 지표별로 부여하는 가중치를 계산하여 서울의 상

황에 부합하는 행복지수를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최근 전 세계 도시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행복지표들을 리뷰하여 공통된 요소를 찾아내고, 서울시민과 세계 도시민의 행복 현황을 비교하는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서울시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복 요소들을 파악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우리가 구축한 서울형 행복지표 체계는 OECD의 'Better Life Initiative'를 근간으로 하였다. 서울형 행복지표는 세계 도시/국가의 삶의 질과 서울의 삶의 질, 행복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서울형 행복지표체계는 경제, 커뮤니티 등 11개 영역 24개 지표로 구성

우리는 전 세계 행복지표 체계 분석에 근거하여 서울형 행복지표 체계를 구축하였다. 서울형 행복지표 체계는 메가시티/국가와의 비교를 위해 OECD 삶의 질 지표 체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서울시민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체계로 구성되었는데, 경제, 주거, 일자리, 인적자원, 환경, 커뮤니티, 시민참여, 건강, 안전, 문화여가, 생활만족도 등 총 11개 영역의 24개 지표로 이루어졌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삶의 질 전반을 개선하는 정책 입안의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서울시민들은 11개 영역 중 자신들의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건강, 소득, 안전, 일과 삶의 균형, 주관적 만족감 순이었다.

메가시티 행복 영향요인은 인적자원 역량, 건강, 주관적 만족감 순

서울보다 삶의 질이 높은 도시나 국가의 사람들이 행복 영향 요인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들은 인적자원 역량으로서의 학력이나 기술 요소와 건강, 주관적 만족감과 일과 삶의 균형 요소 등이었다. 특히 소득 요소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서울시민들이 생각하는 요소별 가중치 요인과 유사 패턴을 보이는 국가는 러시아, 폴란드, 룩셈부르크로 나타났다. 반면, 가중치 서열 유형에서 서울과 유사도가 가장 먼 나라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였다.

서울시민 행복 영향요인은 삶의 성취도, 미래안정성, 생활수준 순

서울시민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삶의 성취도, 미래안정성, 생활수준, 직업만족도 순으로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 삶의 성취도는 삶의 질

에 관한 변수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사회에서의 계층 지위와 사회적 성공 여부가 판단 기준이라는 점에서 물질적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미래안정성과 생활수준 역시 물질적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서울시민들의 행복지수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주관적 행복감의 증가분을 설명하는 변수 중 소득 증가에 따른 행복감 증가분보다는 다른 주관적이고 인지적인 요소들(주관적 계층소속감, 계층 이동 가능성, 생활영역별 주관적 만족도)과 신뢰 요소가 더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서울시, ‘시민 행복제고’ 다차원적 접근으로 정책 신뢰 높일 필요

우리는 서울시민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질적 요소뿐 아니라 주관적이고 인지적 요소가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형 행복지표 구축은 시민 행복이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혹은 사회 공동체의 태도와 인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시민 행복 제고를 위한 여러 측면을 분석하기 위한 출발이다. 이 과정은 시민과의 소통을 제고하고 정책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접근법이다.

한편, 서울시민의 행복 영향 요인은 서울시민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할 때와 25개 자치구 단위로 분석 단위를 세분화할 경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 가구 소득수준이 높은 자치구와 가구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 간에는 지역민에 미치는 행복영향 요인이 다르다는 의미이다. 정책의 공공성과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서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면 ‘과학적 시정’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01 왜 행복연구인가?	2
1_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정책적 관심 증가	2
2_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
02 이론적 검토	8
1_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기존 논의	8
2_행복지수의 주요 방법론	20
03 행복지수 측정 체계 비교 분석	30
1_국제기구의 행복지수 측정 체계	30
2_국외(해외국가)의 행복지수 측정 체계	35
3_국내의 행복지수 측정 체계	50
4_국제기구 및 해외사례의 시사점	58
04 서울형 행복지수 지표 체계	62
1_서울형 행복지표 구성	62
2_서울형 행복지수 측정 과정	69
05 서울형 행복지수 분석 결과	92
1_서울시민의 행복 현황	92
2_서울시민의 행복과 메가시티의 행복 비교	102
참고문헌	107
부록	113
Abstract	125

표

[표 2-1] OECD의 Regional Wellbeing 프로젝트의 국가 내 지역차원들	24
[표 2-2] RWB 지표	25
[표 3-1] 개인 행복의 요인	31
[표 3-2] OECD, Better Life Index 지표별 정의	33
[표 3-3] 2014년 Better Life Index의 지표별 한국 순위	34
[표 3-4] 영국 National Wellbeing 지표(2014년 기준)	36
[표 3-5] 캐나다 행복지수의 지표와 산출방식	40
[표 3-6] 뉴질랜드 삶의 질 조사 지표	43
[표 3-7] 도시별 표본오차	44
[표 3-8] 네덜란드의 삶의 질 지표	47
[표 3-9] 부탄의 33개 GNH 지표	48
[표 3-10] 영역별 지표 수	51
[표 3-11] ‘국민 삶의 질’ 측정지표	51
[표 3-12] 영역별 최근 변화추세	53
[표 3-13] ‘국민 삶의 질 지표’ 측정결과 종합표	54
[표 3-14] 지역행복지수 지표 체계	56
[표 4-1] 서울형 행복지표 체계	66
[표 4-2] 서울형 행복지표와 OECD 지표 체계 비교	67
[표 4-3] 서울형 행복지수 관련 시민의식 조사 설문내용	70
[표 4-4] 조사 응답자의 특성	71

[표 4-5] 행복의 항목별 세부지표 중요도 평가	74
[표 4-6] 소득 중요도	75
[표 4-7] 고용 중요도	76
[표 4-8] 주거의 질 중요도	77
[표 4-9] 건강상태 중요도	78
[표 4-10] 학력과 기술 중요도	79
[표 4-11] 자연환경의 질 중요도	80
[표 4-12] 개인의 안전 중요도	81
[표 4-13] 시민 참여 중요도	82
[표 4-14] 일과 삶의 균형 중요도	83
[표 4-15] 사회적 유대 중요도	84
[표 4-16]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 중요도	85
[표 4-17] 사람에 대한 신뢰 중요도	86
[표 4-18] 사회제도/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중요도	87
[표 4-19] 문화생활 중요도	88
[표 4-20] 행복의 항목별 세부지표 중요도 평균	90
[표 5-1] 회귀분석 1	94
[표 5-2]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	97
[표 5-3] 회귀분석 2	98
[표 5-4] BNI 11개 지표에 대한 36개 국가들의 평균 가중치	103
[표 5-5] 서울과의 유사도 측정	105
[표 5-6] 서울과의 서열 구조 비교	106

그림

[그림 3-1] 2014 Life in the UK	38
[그림 3-2] The Mandala of Wellbeing	39
[그림 3-3] GDP 대비 캐나다의 행복지수 트렌드(1994~2010)	42
[그림 3-4] 영국 대화형 휠	59
[그림 3-5] 캐나다 신호등(Canadian Index of Wellbeing Infographics)	59
[그림 4-1] 행복지표 체계 텍스트 분석	64
[그림 4-2]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 vs 나의 행복을 위한 중요도 일반지표 결과	72
[그림 4-3]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 vs 나의 행복을 위한 중요도 추가지표 결과	73
[그림 4-4] 나의 행복을 위한 중요도(5점 만점)	74
[그림 5-1] 10년 전, 현재, 10년 후 삶의 질 인식평가	92
[그림 5-2]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평가	93
[그림 5-3] BLI 11개 지표에 대한 국가/도시들의 지표별 가중치	104

01

왜 행복연구인가?

- 1_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정책적 관심 증가
- 2_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01 | 왜 행복연구인가?

1_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정책적 관심 증가

1) 왜 행복인가?

한 사회의 발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가나 도시의 발전정도를 경제적 수준에서 측정하던 기존의 패러다임이 도전을 받고 있다. 즉, GDP나 GNP 등 경제지수로 한 사회의 발전정도를 측정하던 프레임에서 삶의 질이나 행복, 정신적인 만족 정도로 한 사회의 발전정도를 측정하는 프레임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UN의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나 OECD의 '보다 나은 삶 인덱스'(Better Life Index)에서는 도시 사회발전의 주요 지표인 경제적 잣대로서의 GDP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람들의 행복정도를 사회 발전정도의 주요 잣대로 부각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011년 UN 총회에서는 경제적 성과가 아닌 개인들이 체감하는 행복을 조사해 각국의 정책에 반영하자는 제안을 통과시켰고, 2012년 행복과 웰빙에 관한 UN 고위급 회담을 바탕으로 OECD의 지침에 따라 삶의 선택과 사회적 지지를 위한 자유, 소득, 기대수명 등을 조사한 내용과 유엔 인권지수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별 행복지수(Life evaluation score)를 나타내는 '제1차 세계행복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 국가나 도시의 발전이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성찰적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즉, 미국의 예를 들면서 미국 사회는 전후 수십 년 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동안 사회의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사람들은 더 불안해졌으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악화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 역시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한 사회의 발전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진지하게 묻고 있다(UN, 2012).

경제성장이 담보했던 것을 넘어서서

한국 사회 역시 해방 이후 70년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한 세기도 안 되는 기간 동안 750배의 경제성장이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전 세계에 알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이 전후 빈곤국에서 탈피하여 OECD 국가의 일원으로 세계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의 수도 서울은 이러한 성장의 과실이 집적된 곳이다. 한국경제의 견인차로서 서울의 성장은 인구, 소득, 주택이라는 도시발전의 기본 지표에서 잘 나타나 있다. '60년대 이백여만 명에 지나지 않았던 서울의 인구는 '90년대 천만 인구를 기록하고 메트로폴리스의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수백 달러에 불과했던 서울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아파트’와 ‘마이카 시대’는 서울의 성장의 징표들이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다양한 도시 사회 문제들이 따리를 튼 채 자라고 있었다. 불평등, 양극화, 다양한 갈등의 증폭과 신뢰의 부재, 서울의 정체성 부재 등의 문제들이 새로운 천 년의 시기,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높은 자살률,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은 경제성장이 담보했던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층위에서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2) 저성장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에서의 삶의 질과 행복

삶의 질과 행복이 공공의 정책 목표로 자리매김되기 시작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의 노력의 한 축에 행복지표 연구가 자리 잡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영국, 캐나다, 부탄 등은 사회발전 과정에서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공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부탄의 행복지수가 주목을 받았다. 부탄은 이미 1970년대 국가를 GDP가 아닌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GNH)을 기준으로 통치하겠다고 행복정치를 내세운 것이다. 영국 캐머런 정부는 2010년 경제지표로서의 GDP가 국가성장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기에는 불완전한 방법이므로 이를 대체할 웰빙지표(General Wellbeing, GWB)를 중요한 사회의 발전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서 행복연구와 행복지표

한 사회의 성장과 발전 과정에서 절대적 빈곤을 극복한 발전 국가 혹은 발전 사회에서 '질적 성장'이 부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1인당 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선 시점에 경제적 잣대를 넘어서는 다른 기준들이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고려되고 있다. 이 흐름이 서울시의 행복지표 구성과 행복 측정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서울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정체 혹은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저성장 사회로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는 여러 곳에서 분출하는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압축적 성장을 가능케 했던 효율성과 경쟁의 사회에서 어떤 사회로 전환해야 도시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저성장 시기의 생존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공공영역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의식이 확산되고, 이것이 서울형 행복지표 구축 연구가 필요한 맥락이다.

2_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삶의 질과 행복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측정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리뷰, 분석하는 이론적 논의 파트이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이뤄진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기존 논의들을 경제학적 시각, 사회학적 시각, 심리학적 시각 등을 망라하여 포괄적으로 분석한 다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주제별로 정리한다. 이후 행복지수의 구성과 관련한 주요한 방법론을 검토한다.

두 번째 파트는 국내외에서 진행된 삶의 질 지표 혹은 행복지표 구축에 관한 내용을 분석한다. UN의 행복보고서부터 OECD의 삶의 질 지표, 지역사회의 삶의 질 지표 등을 리뷰하고, 다른 국가 혹은 도시 단위에서 삶의 질 지표를 구축하여 분석

한 내용들을 정리한다.

세 번째 파트는 서울형 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지표체계 및 구성과 그 함의에 관해 논의한다. 앞에서의 연구를 근거로 서울형 행복지표를 구성하고, 각 지표들에 대한 서울시민의 가중치 산출을 통해 서울형 행복지표를 제안하고, 서울형 행복지표가 갖는 특징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서울형 행복지표가 메가시티의 행복지표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를 제안할 것이다.

2) 연구방법론

행복지표 체계 구축과 행복지수 영향 요인 분석을 위해 우리는 다음의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였다. 먼저 기존 논의에 대한 검토를 위해 문헌연구를 하였다. 다양한 검색엔진을 통해 각 학문영역에서 논의되는 삶의 질과 행복에 관한 논문을 찾아내고 그 내용들을 분석, 정리하였다. 둘째, 서울형 행복지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민들이 판단하는 각 지표의 가중치를 산출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동원된 연구방법론은 양적 서베이(Quantitative Survey)다. 우리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조사(face to face survey)를 통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시민 전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샘플링의 과학성을 적용하였다. 실제 면접조사는 전문조사기관에서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출된 가중치를 바탕으로 서울형 행복지표 체계의 특징을 분석하는 작업과정에서는 다양한 통계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데이터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02

이론적 검토

- 1_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기존 논의
- 2_행복지수의 주요 방법론

02 | 이론적 검토

1_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기존 논의

행복은 측정될 수 있는가?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으로서 행복은 측정 가능한 것인가? 행복이나 삶의 질을 측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다. 더욱이 이것이 ‘행복’이라는 이름을 앞에 내세우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이어진다. ‘행복은 주관적인 것인데 이것이 측정 가능한가?’,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행복은 다양한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일견 타당하다. 심리학에서 출발한 행복연구는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 행운 등을 행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전반적인 생활의 ‘좋은 상태’(Wellbeing)가 지속되는 것을 행복하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정책의 대상으로서 행복연구나 삶의 질 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측정하는 기준이 개인의 순간적인 심리에 한정해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개인과 집단의 행복정도를 다루는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도 행복은 ‘웰빙’,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등과 같이 다양한 용어와 동일시되어 왔다(Graham, 2011). 각각의 개념들은 그 정의와 측정방식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행복 측정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다. 많은 국가들이 국민들의 행복증진 방법과 국가발전의 연계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더욱 협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지난 수십 년간 엄청난 경제성장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확산되고 사람들의 불안은 심화되면서 사회적 신뢰는 높아지지 않는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왜 그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주관적 웰빙이나 행복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리뷰해 보면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전통에서 출발한 행복에 관한 담론이 오늘날 사회과학적 방식으로 측정되고 분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복상태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Dolan, Peasgood, and White(2008)는 1990년에서 2006년 1월 사이 행복을 주제로 출간된 주류 경제학술지의 논문들을 분석, 그 연구 결과를 요약하였다¹⁾. Dolan 등은 기존 논의를 분석하여 개인의 Wellbeing에 영향을 주는 다음 7가지의 공통 변수들을 제시했다. 소득(income), 개인적 속성(personal characteristics), 사회적 속성(socially developed characteristics), 여가 활동(leisure activities), 자아/타인/삶에 대한 태도와 믿음(attitudes and beliefs towards self/others/life), 관계(relationships), 그리고 더 큰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the wider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environment) 등이다.

경제적 요인

우선 소득과 관련해, Dolan 등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Wellbeing에 긍정적 기여를 하지만 그 정도는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긍정적 기여도 실제로는 소득과 Wellbeing의 역 인과관계(reverse causation)–즉, 과거의 높은 Wellbeing이 미래의 높은 소득을 가져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된다. 한 예로 Russia Longitudinal Monitoring Survey 자료를 바탕으로 1995년과 2000년 패널자료를 만든 Graham, Eggers, and Sukhtankar(2004)는 두 자료의 비교 분석을 통해 1995년 잔여 Wellbeing(Residual Wellbeing)–즉, Wellbeing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반적인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남는 행복감–이 높은 응답자

1) 이들이 사용한 검색 전략은 다음과 같다. 우선 Econlit이라는 미국 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의 문헌 검색 엔진을 이용, 'Subjective Wellbeing',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이라는 주제가 포함된 논문들을 검색하였다. 그중 반드시 통계 가능한 다양한 변수들이 포함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쓰인 논문들만을 선택했으며 Subjective Wellbeing의 부분적 측정(예를 들어 건강, 직업 혹은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 등)을 목표로 한 논문들은 제외했다. 다음으로는 미국 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문헌 검색 엔진인 Psychinfo를 이용, 앞서 기술한 방식으로 행복을 연구한 심리학 논문들을 취사선택하였다. 셋째, 2000년 이후 발간된 Wellbeing의 조건 및 상관관계를 다룬 심리학 논문들에 대한 리뷰 역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Subjective Wellbeing을 연구하는 주요 경제학자들이 원자료를 바탕으로 쓴, 그러나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회색문헌(grey literature)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총 153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들일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5년 뒤 건강과 소득 모두 높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Graham 등은 이 결과가 행복의 주도적 기능—즉, 행복 그 자체가 사람들의 소득, 건강, 및 기타 요소를 결정짓는—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Australian Youth in Transition이라는 시계열 자료를 통해 4개의 나이 집단을 비교 분석한 Marks and Flemming(1999)의 연구에서도 소득은 행복의 조건으로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소득의 절대적 증감에 비례하여 Subjective Wellbeing이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Stutzer(2004)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 (aspirations and expectations)가 현실 만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현실 속의 절대적 변화만을 보며 행복을 찾지 않는다. 오히려 그 절대적 변화가 얼마나 자신의 기대치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즉 현실과 기대의 괴리 정도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절대적 소득이 과거에 비해 아무리 높아졌다 하더라도 기대치 역시 상승했다면 사람들이 소득의 절대적 증가로부터 얻는 행복감은 이전과 비교하여 불변, 심지어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선진 산업 사회의 많은 시민들이 과거에 비해 절대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더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Easterlin, 2009; Easterlin, Angelescu and Zweig, 2011; MacDonald and Douthitt, 1992)나 중남미와 같은 개발 도상 국가들의 시민들 역시 자신이 가진 절대적 부와 소득 수준이 아닌 사회 내의 상대적 수준으로 자신의 행복 여부를 평가한다는 연구 결과(Graham and Felton, 2006)는 행복과 소득의 절대적 비례관계를 부정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인구 요인

행복 조건으로서의 개인적 속성은 크게 나이, 성, 인종, 성격으로 세분화된다. 우선 나이와 관련해, 1973년에서 1994년 사이 수집된 미국의 General Social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응답자들의 행복 정도를 분석한 Easterlin(2006)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은 나이와 역 U자형 관계를 맺는 것으로 밝혀졌다. 평균적으로 18세부터 51세까지 행복지수는 높아지고 그 이후부터는 감소하는데, 전반기의 상승은 주로

가족과 일에 대한 만족으로부터, 반대로 후반기의 하락은 건강에 대한 염려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이다. 세계 2차 대전과 한국 전쟁에 투입된 미국인 참전 용사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Mroczek and Spiro(2005)의 연구 역시 이와 비슷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행복지수는 일반적으로 65세를 정점으로 하락하는데, 이는 건강에 대한 염려 외에도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은 개인 간 편차이다. 즉, 사람들마다 노화에 따른 행복 변화의 정도와 유형이 다르며 특히 외향적 성향을 지닌 사람일수록 노화와 상관없이 오랜 기간 삶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성별과 인종에 따른 행복지수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연구 대상의 성격과 통제 변수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노부모, 배우자, 자식들에 대한 보살핌(caregiving)의 책임이 남녀에게 주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연구한 많은 문헌들을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증에 쉽게 걸리고 심리적으로 매우 낮은 Wellbeing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Barusch and Spaid, 1989; Pearlin and Aneshensel, 1994; Yee and Schulz, 2000; Young and Kahana, 1989). 그러나 이러한 성별 차는 보살핌의 상대와 사회에 따라 그 유형이 달라지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 역시 존재한다. 예를 들어 Hirakawa 등(2006)은 일본 나고야 소재의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살핌의 책임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하였고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 자료를 분석한 Marks, Lambert, and Choi(2002) 역시 보살핌의 책임이 일반적으로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반드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큰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님을 역설했다. 오히려 보살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오히려 보살핌의 책임을 수행하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더 높은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되는 긍정적 결과도 발견되었다. 결국 성별 자체가 Wellbeing을 결정짓는 직접 요인이기보다 다른 인구·사회학적, 환경적 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력이 형성되는 것이다.

인종에 따른 행복지수의 차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General Social Survey를 이용해 1972년에서 2006년 사이 미국 사회의 행복 불평등 추이를 연구한 Stevenson and Wolfers(2008)는 분석을 통해 미국 내 행복 불평등이 전체적으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인종 간, 성별 간 행복 불평등 역시 상당 부분 개선 혹은 사라졌음을 밝혔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행복 불평등 개선 원인을 따져 볼 때 인종 간, 성별 간(즉, 집단 간) 행복 불평등의 개선이 기여한 정도는 미흡하고 반대로 인종 내, 성별 내(즉, 집단 내) 행복 불평등의 개선이 실질적 기여를 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 말은 결국 인종이라는 변수 자체가 행복을 결정짓는 직접 요인이라기보다는 인종을 둘러싼 여타 인구·사회학적, 환경적 변인들의 상호작용이 사회 전체의 행복 변화에 더 큰 기여를 했다는 말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2008년 National Income Dynamics Study 자료를 이용해 남아프리카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Ebrahim, Botha, and Snowball(2013)은 비교분석을 통해 흑인 집단이 여타 인종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며 여성(특히 흑인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성별 간, 인종 간 차이는 여타 인구·사회학적, 환경적 변인들의 상호작용(예를 들어 구직 상태, 거주지, 교육 수준, 절대적/상대적 임금, 복지 혜택)을 통해 구현된 복합적 결과이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사회적 요인

행복 조건으로서의 사회적 속성은 크게 교육, 건강, 실업 여부로 구분된다. 우선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이 행복에 미치는 순기능은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General Social Survey와 유럽연합의 Eurobarometer Survey를 이용해 미국과 영국의 행복 추이를 분석한 Blanchflower and Oswald(2004)는 자료 분석을 통해 두 국가 모두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더 큰 행복 혹은 삶의 만족을 느끼고 있음을 발견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제적 지위(즉, 직업과 소득 정도)가 교육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행복을 느끼는 것은 교육 그 자체의 영향력이라기보다 교육이 가져온 안정된 경제적 지위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Blanchflower and Oswald의

분석은 사람들의 임금 수준이 통제된 이후에도 여전히 교육이 행복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교육 자체가 갖는 순기능을 입증하였다. 반대로 높은 교육 수준이 더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예외적 경우도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실업이라는 특수 조건이 동반된 경우인데 British Household Panel Study를 이용하여 실업과 불행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Clark and Oswald(1994)는 고학력 실업자일수록 저학력 실업자에 비해 실업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더 취약함을 입증하였다.

건강과 행복의 밀접한 관계는 기존의 많은 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발견된다. 예를 들어 Health Survey for England 자료를 이용하여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 Wellbeing과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한 Shields and Price(2005)는 육체적 질환을 앓고 있는 혹은 앓았던 응답자일수록 낮은 심리적 Wellbeing을 경험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관절염, 류머티즘, 두통, 간질, 복부 및 호흡 기관의 장애와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응답자들보다 근래에 급성 질환을 앓았던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심리적 Wellbeing 상태를 경험한다는 점이며, 이러한 신체적 질환 유무가 응답자들의 다른 인구·사회학적 조건들—나이, 교육 수준, 혼인 여부 및 자녀 유무, 실업 여부, 소득 수준, 주거지 등—에 비해 심리적 Wellbeing 상태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건강은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주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 스웨덴의 Level of Living Survey를 이용하여 행복, 건강, 기타 인구·사회학적 조건들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Gerdtham and Magnus(2001)는 응답자들의 소득 수준, 혼인 여부, 교육, 실업 상태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조건들이 행복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이 관계의 적지 않은 부분이 바로 건강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구현됨을 발견했다. 즉, 소득, 교육, 혼인 여부와 같은 변인들이 행복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건강이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 전달되는 간접적인 영향력 또한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 West Virginia주 소재 21개 카운티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 만족도와 건강의 상관성을 조사한 Bukenya, Gebremedhin, and Schaeffer(2003) 역시 응답자

들의 인구·사회학적 그리고 환경적 변인들—교육, 소득, 나이, 실업 여부, 지방정부의 행정 수행 능력 등—이 삶의 질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 그리고 건강 변수를 매개로 구현되는 간접적 영향력을 증명하였다. 특히 소득과 관련하여 Bukenya 등은 소득이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보다 건강 변수를 매개로 구현되는 간접적 영향력이 더 큼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건강은 사람들의 행복(혹은 삶의 질)을 직·간접적으로 결정짓는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실업 또한 행복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일관되게 논의되었듯이 실업은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Euro-Barometer Survey Series와 미국의 General Social Surveys를 이용하여 유럽 12개 국가와 미국의 행복 정도를 조사한 Di Tella, Macculloch, and Oswald(2001)는 인플레이션이나 실업과 같은 부정적 경제 상황들이 사회 전체의 행복(혹은 삶의 만족도)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실업으로 인한 행복지수의 하락이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한 하락보다 더 심각함을 발견하였다. 마찬가지로 6,000명 이상의 스위스 거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복 설문 결과를 분석한 Frey and Stutzer(2000) 역시 실업 문제와 같은 부정적 경제 상황이 응답자들의 Wellbeing을 심각하게 저해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행복에 대한 실업의 역기능이 중화(neutralized)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자료를 이용해 실업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Clark(2003)는 실업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Wellbeing을 저해하는 것은 맞지만 그 정도는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누구와 비교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실업을 당했더라도 만약 주변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즉 자신의 준거 집단 중 많은 사람들이 실업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실업 문제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즉, 준거 집단)이 실업을 당하게 되면 실업은 자신의 행복지수를 떨어뜨리는 역기능을 수행하지만, 반대로 본인 역시 실업한 상태에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당할 경우 실업은 오히려 행복지수를 상승시키는 순기능을 하게 된다.

직업상의 업무 및 활동 외에도 여가 활동은 사람들의 행복을 제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의 Leisure Time and Sports 모듈을 이용해 미국인들의 여가 활동과 행복을 조사한 Wang and Wong(2011)은 쇼핑, 독서, 음악 감상, 친척들과의 모임 등과 같은 여가 활동이 사람들의 행복을 제고하는 데 일조하며 특히 여가 활동을 통해 지인들과의 사회 교류를 도모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많은 행복을 느끼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들의 분석에서 여가 시간의 절대적 증감과 행복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캐나다의 National Population Health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응답자들이 참여한 육체적 여가 활동의 물리적 강도와 빈도의 변화에 따른 행복의 추이를 장기적으로(1994/5년부터 2008/9년까지) 살펴본 Wang, Orpana, Morrison, Groh, Dai, and Luo(2012)는 육체적으로 활동적인 여가 활동이 2년 내지 4년 지속된 경우 응답자들이 불행을 느낄 확률(odds)이 줄어들었고, 2년 이상 비활동적인 여가 활동을 한 응답자들의 경우 2년 연속 활동적인 여가 활동을 한 응답자들에 비해 불행을 느낄 가능성이 두 배로 커졌음을 확인했다. 결국 활동적인 여가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사람일수록 행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종교 활동 역시 사람들의 행복을 제고시키는 데 일조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예를 들어 World Values Survey 자료를 이용해 개인 및 국가 차원의 변수들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본 Helliwell(2003)은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종교적 믿음과 예배 활동은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마찬가지로 European Social Survey와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종교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Clark and Lelkes(2006)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일수록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실업, 이혼과 같은 역경에 직면했을 때 이를 상대적으로 쉽게 극복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종교는 행복과 역경 사이에서 완충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신앙심을 통해 사람들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다시 이전의 행복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행태적 요인: 신뢰와 네트워크

자아/타인/삶에 대한 태도와 믿음 역시 행복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이다. 특히

많은 연구에서 타인과 사회에 대한 일반적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European Values Survey, World Values Survey, 미국의 Social Capital Benchmark Survey, 캐나다의 Equality, Security and Community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 자본과 행복의 관계를 분석한 Helliwell and Putnam(2004)은 다양한 사회자본의 형성—가족, 이웃, 종교 및 공동체 간의 연대 등—이 응답자들의 행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가족-이웃 간 연대가 강할수록, 교회 및 지역 공동체와의 연대가 강할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응답자들의 행복지수가 상승하였고 이러한 다양한 사회 자본들은 독립적으로 동시에 복합적으로 행복과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World Values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Putnam(1993)의 사회 자본 개념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Bjørnskov(2006)는 Putnam의 사회 자본은 일원적 개념이 아니라 신뢰(trust), 규범(norms), 네트워크(networks)라는 세 개의 독립 영역이 별도로 존재하는 복합적 개념이며, 세 영역 중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은 신뢰임을 밝혔다. 따라서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신뢰를 증진시키는 정책이 집중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처럼 사회와 타인에 대한 일반적 신뢰가 행복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가족 및 친구와 같은 일차 집단과의 관계 역시 개인의 행복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이다. European Social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사람들의 체감 행복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규명한 Lelkes(2006)는 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인 외에도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교류)가 개인의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친구 및 가족과 같은 일차 집단과의 관계가 소원한 사람들은 삶에 대한 만족이 덜하며 특히 친구가 없는 사람은 친구가 적어도 한 명 있는 사람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를 얻을 확률이 13% 낮아졌다. 마찬가지로 European Social Survey를 이용하여 유럽 청년(15세~29세)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Pichler(2006)는 노동 시장의 위축과 같은 객관적인 삶의 지표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유럽 청년들이 다른 나이 집단에 비해 높은 삶의 만족도를 느끼는 이유는 바로 사회 연결망 내의 배태성(embeddedness in networks in society)때문임을 역설했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타 연령 집단

에 비해 유럽 청년들은 부모 및 친구와 친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사회 접촉의 이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거시 요인: 불평등

행복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 수준의 변인에서 결정되는 점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사회적 수준의 변인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먼저,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 전반의 소득 불평등이 사람들의 Wellbeing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Zagorski, Evans, Kelley, and Piotrowska(2014)는 불평등이 유럽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저해한다는 기존의 통념을 깨고 경제적 불평등과 Wellbeing의 통계적 무관성을 증명하였다. Zagorski 등에 따르면 불평등과 Wellbeing의 단순 상관관계만 따질 경우 불평등은 Wellbeing에 역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라의 경제 발전 지표인 인구당 GDP를 통제하고 나면 더 이상 불평등과 Wellbeing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World Values Survey 자료를 이용해 소득 불평등과 행복 불평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Delhey and Kohler(2011)는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일수록 행복 불평등 역시 심각하며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이 사람들의 Wellbeing에 역기능을 수행함을 역설하였다.

소득 불평등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연구마다 일관되지 못한 반면, 실업 및 물가 상승과 같은 부정적 경제 지표가 사람들의 Wellbeing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일관적이다. Eurobarometer Survey, 미국의 General Social Survey,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등 다양한 설문 자료에 기초해 행복과 거시 경제의 흐름 사이 상관관계를 분석한 Wolfers(2003)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발생은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행복, 기타 심리적 Wellbeing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및 기업에 대한 신뢰 역시 저해함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Eurobarometer Survey와 미국의 General Social Survey를 이용하여 거시 경제의 변화에 따른 행복의 변화를 분석한 Di Tella, Macculloch, and Oswald(2003) 역시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거시 경제 지표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밝혔다. 자료 분석을 통해 그들은 GDP와 같은 지표가 상승할수록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상승하고 반대로 경

기 침체가 발생하면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하락함을 밝혔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들의 하락한 행복지수를 경기 침체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경기 침체가 가져 온 물질적 피해보다 더 많은 물질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기가 회복되어도 사람들의 체감 행복이 침체 전 수준으로 쉽게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Di Tella 등의 연구 결과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거시 요인: 정치 요인

거시 경제의 변화 외에도 사람들의 Wellbeing(혹은 삶에 대한 만족도)은 민주 정치 체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을 이용하여 민주주의와 주관적 Wellbeing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Dorn, Fischer, Kirchgassner, and Sousa-Poza(2007)는 국가 간의 경제적, 문화적 차이를 통제 한 후에도 민주주의는 사람들의 행복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으로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영국, 미국과 같이 민주주의 전통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동유럽같이 민주주의 전통이 짧은 나라보다 행복에 대한 민주주의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Swiss Volunteering Survey를 이용하여 직접 민주 정치와 스위스인들의 행복 정도를 측정한 Stadelmann-Steffen and Vatter(2012)는 정반대의 결론을 제시한다. 그들은 분석을 통해 기존 가설과 달리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자체가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과 삶에 대한 만족은 별개의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리적 요인

마지막으로 개인의 성격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특히 심리학에서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DeNeve and Cooper, 1998; Gomez, Krings, Bangerter, and Grob, 2009; He, Guan, Kong, Cao, and Peng, 2014; Lischetzke and Eid, 2006; Oerlemans and Bakker, 2014). 특히 DeNeve and Copper(1998)는 1970년에서 1995년 사이 성격과 주관적 Wellbeing을 주제로 북미와 기타 유럽 국가들에서 진행된(미국이 대다수) 148개의 방대한 연구 결과를 취합, 이로부터 주관적 Wellbeing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137개

의 성격을 규명하였고 이들을 다시 5개의 성격군—외향성(extraversion), 친화성(agreeableness), 양심(conscientiousness), 신경질(neuroticism),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으로 구분, 각각의 성격군이 주관적 Wellbeing을 대표하는 4개의 영역—행복(happiness),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정적 정서(positive affect), 부적 정서(negative affect)—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밝혔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신경질 성격군은 기타 성격군과 비교해 주관적 Wellbeing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성격군으로 부적 정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영역과 모두 부정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개별 성격으로는 강제적 자기 방어(repressive defensiveness), 신뢰(trust), 감정적 안정(emotional stability), 통제 강박증(lucus of control or desire for control), 대담성(hardiness), 정적 정서(positive affectivity), 개인-집단 자존감(private-collective self esteem), 긴장(tension) 등이 다른 성격에 비해 주관적 Wellbeing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선행 연구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행복의 조건을 둘러싼 학계의 의견은 다양하다. 지금까지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 행복을 결정짓는 다양한 변인들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행복의 메커니즘은 논란의 대상이자 탐구의 대상이다. 이는 인간의 행복이 단순히 개인 수준의 변인들로만 혹은 사회 수준의 변인만으로 이해될 수 있는 단순 심리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복은 다양한 수준의 변인들이 상호 작용을 통해 만들어 내는 복합적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향후 행복 연구는 행복의 변인들을 단순 나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러한 변인들이 만들어 내는 상호 작용과 그 결과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_행복지수의 주요 방법론

1) Better Life Initiative의 행복지수 방법론

행복을 제고(提高)할 수 있는 사회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체감하는 행복에 대한 경험적 이해와 자료가 구비되어야 한다. 실제로 행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행복을 이해하고 측정하려는 학문적 노력이 '90년대 이후로 꾸준히 증가해 왔고 오늘날 행복 측정은 각 국가의 주요 정책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복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는 2000년대부터 꾸준히 OECD 회원국 시민들의 행복 혹은 안녕(Wellbeing)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측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2011년 5월 Better Life Initiative(이하 BLI)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일명 스티글리츠위원회 활동

BLI는 OECD가 처음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OECD 회원국 간의 안녕(Wellbeing) 수준을 비교 분석하는 시도로서, 기본 철학은 2009년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이하 CMEPSP)에 의해 발간된 최종 보고서의 권고안에 나타나 있다. CMEPSP는 2008년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니콜라 사르코지의 요청으로 결성된 국제적 조사위원회로, 2008년 4월 제1차 총회를 시작으로 2009년 9월까지 활동하였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Columbia Univ.)의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교수, 하버드대학의 센(Amartya Sen) 교수, 파리정치연구소(Institut d'Etudes Politiques de Paris)의 피투시(Jean-Paul Fitoussi) 교수를 중심으로 미국, 프랑스, 영국, 인도 소재 대학 및 정부 기관에서 파견된 다수의 전문가들과 OECD 및 프랑스 통계국에서 파견된 조사위원들이 참여한 본 위원회는 2009년 9월에 발간된 최종 보고서를 통해 GDP와 같은 거시경제지표를 이용하여 사회의 경제 역량과 발전 정도를 측정해 온 지금까지의 관행을 비판하고 사회적 안녕을 포함해 경제, 환경, 사회의 지속 가능성 모두를 측정할 수 있는 포괄적 척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삶의 질 지표 구축의 확산

보고서 발간 이후, 서구 사회의 정부들은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마련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영국은 2010년 11월 National Wellbeing Programme을 시작해 주관적, 객관적 지표가 모두 포함된 새로운 행복지수 개발에 착수하였고 유럽연합은 전 유럽연합 회원국과 일부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온 기존의 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이하 EU-SILC) 설문에 안녕을 측정하는 새로운 모듈(module)을 개발, 2013년부터 포함하였다. 프랑스는 이보다 앞선 2009~2010년 사이 EU-SILC의 국내용 설문에 안녕을 측정하는 모듈을 포함, 프랑스 국민들의 심리적 감성(affect)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바 있다. 미국 역시 최근 실시된 American Time Use Survey에 미국인들의 안녕을 측정하는 모듈을 포함하였다.

많은 국가들이 2009년 위원회의 보고서 발간 이후 자국민들의 주관적 안녕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이와 상관없이 오래전부터 자국민들의 주관적 안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료를 수집한 국가도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정부는 1985년부터 Canada General Social Survey를 통해 자국민들의 주관적 안녕에 대한 자료를 꾸준히 수집해 왔고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뉴질랜드 역시 New Zealand General Social Survey를 이용해 삶에 대한 자국민들의 만족도를 측정해 왔으며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도 2001년 National Health Survey, Australia General Social Survey 등을 통해 자국민들의 주관적 안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왔다.

삶의 질 지표 표준화 과정

이처럼 많은 정부들이 사회 발전의 새로운 척도로서 GDP가 아닌 국민들의 행복과 주관적 안녕에 무게를 두기 시작한 것은 분명 경제 중심의 발전 패러다임이 가진 한계와 사고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혹은 동의)가 확산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공감대의 확산이 측정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방법론에 대한 논의의 부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많은 정부들이 현실적 필요에 따라 자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측정하는 모듈을 자체적으로 고

안, 사용하는 데 초점을 둘 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모듈을 고안하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통계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진행/공표되는 행복 조사 결과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만을 반영할 뿐 실제 국가 간 비교 목적으로 사용되기에는 문제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2013년 OECD가 발간한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²⁾에 잘 지적되어 있다.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기준이 현재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측정 기준들이 주관적 웰빙에 관한 데이터를 모아 전 세계적으로 수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 간 주관적 웰빙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은 현재 비공식적인 것만 가능할 뿐이며, 이는 표본크기가 작고 낮은 응답률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³⁾

OECD의 BLI는 이러한 행복 및 안녕 측정의 방법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국제적 노력의 결과이다. BLI는 34개 OECD 회원국 및 러시아 연방과 브라질을 대상으로 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 참여, 건강, 삶의 만족, 일과 삶의 균형 등 총 11개 영역에 걸쳐 각 나라의 종합적 안녕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2년마다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이라는 보고서를 출간한다. 2011년 10월의 첫 번째 edition, 2013년 11월의 두 번째 edition을 포함, 현재까지 총 두 권의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²⁾ Stiglitz, J. E. et al., 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³⁾ 원문은 다음과 같다. Although measures of subjective well-being are now available from both official and non-official sources for an increasing range of countries, these measures currently lack commonly accepted international guidelines for their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The only measures of subjective well-being on which cross-country comparisons can currently be made on a consistent basis are derived from non-official sources, and these face limitations associated with relatively small sample sizes, limitations of sample design and low survey response rates(p.22)

BLI를 구성하는 11개 영역과 관련해 OECD는 별도의 가중치(weighting)를 부여하지 않는다. 대신 OECD는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사이트를 운영하여, 일반 참여자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대해 1부터 5까지의 가중치를 차등적으로 부여하도록 해 그에 따라 OECD 회원국 사이의 안녕/행복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고 있다. OECD의 분석에 따르면⁴⁾, ‘삶의 만족’, ‘건강 상태’, ‘교육과 기술’의 세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가중치를 받았다고 한다. 즉,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녕 혹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소득 및 재산과 같은 가시적, 금전적 자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 건강, 교육과 같은 무형의, 비금전적 자원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GDP와 같은 거시경제지표로 한 사회의 안녕 및 행복 수준을 측정해 온 기존의 관행, 즉 경제 중심의 발전 사고관과 분명 대치되는 부분이다.

2) 지역의 삶의 질(Regional Wellbeing)의 행복지수 방법론

OECD의 Regional Wellbeing 프로젝트(이하 RWB)는 회원국 내의 행정구 혹은 지역의 안녕/행복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OECD는 인구, 경제 조건, 노동 시장 등 약 40개의 지표를 기준으로 회원국의 지역을 두 단계, 상위(Territorial Level 2)와 하위(Territorial Level 3)로 구분하는데, 본 프로젝트는 회원국의 상위 행정구, 즉 Territorial Level 2로 분류된 362개 지역의 안녕 수준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⁵⁾

4) OECD, 2013, Measuring Wellbeing and progress.
<http://www.oecd.org/std/Measuring%20Well-Being%20and%20Progress%20Brochure.pdf>
 OECD, Paris, OECDStatisticsDirectorate.

5) OECD 지역 분류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http://www.oecd.org/gov/regional-policy/43428422.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1] OECD의 Regional Wellbeing 프로젝트의 국가 내 지역차원들

국가	지역 차원(number of regions)
오스트레일리아	States/territories(8)
오스트리아	Bundeslander(9)
벨기에	Regions(3)
캐나다	Provinces and territories(13)
칠레	Regions(15)
체코	Oblasti(8)
덴마크	Regioner(5)
에스토니아	Region(1)
핀란드	Suuralueet(5)
프랑스	Regions(22)
독일	Lander(16)
그리스	Groups of development regions(4)
헝가리	Planning statistical regions(7)
아이슬란드	Regions(2)
아일랜드	Groups regional authority regions(2)
이스라엘	Districts(6)
이탈리아	Regioni(21)
일본	Groups of prefectures(10)
대한민국	Regions(7)
룩셈부르크	State(1)
멕시코	Estados(32)
네덜란드	Landsdelen(4)
뉴질랜드	Groups of regional councils(2)
노르웨이	Landsdeler(7)
폴란드	Vojewodztwa(16)
포르투갈	Comissaoes de coordenacao e des. regional + regioes autonomas(7)
슬로바키아	Zoskupeniakrajov(4)
슬로베니아	Kohezijskeregije(2)
스페인	Comunidades autonomas(19)
스웨덴	Riksomraden(8)
스위스	Grandes regions(7)
터키	Regions(26)
영국	Regions and countries(12)
미국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51)

출처: OECD, 2014, OECD Regional Wellbeing: A user's guide

지역의 삶의 질 지표 체계

RWB는 총 9개의 지표를 사용하여 362개 지역의 안녕 정도를 비교한다. 본래 BLI로부터 영감을 얻어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인 만큼 RWB가 사용하는 9개의 지표는 BLI의 11개 지표와 이용 방법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RWB의 경우, 해당 지역의 물질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소득, 일자리, 주거 영역을, 그리고 삶의 질과 관련해 건강, 교육, 환경, 안전, 시민참여, 인터넷 서비스 접근성 등의 영역을 정량 평가한다. 각 영역은 다음의 지표로 정량 평가된다.

[표 2-2] RWB 지표

	영역	지표
물질적 조건	소득	1인당 가처분 가구 소득
	일자리	취업률(%), 실업률(%)
	주거	1인당 방 수(ratio)
삶의 질	건강	출생 시 기대 수명(years) 인구 천 명당 사망률
	교육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노동력 비율(%)
	환경	2012년 위성 이미지 기준, 1큐빅(Cubic)미터당 PM2.5 미세먼지 평균 노출 정도
	안전	인구 10,000명당 살인율
	시민참여	투표 참여율(%)
	인터넷 서비스 접근성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가구의 비율(%)

앞 테이블에서 알 수 있듯이, RWB를 구성하는 9개 영역은 해당 지표에 따라 상이한 단위로 측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예를 들어 소득은 USD 단위로, 교육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노동력의 비율로 측정), 영역 간 비교를 위해서는 원측값에 대한 정규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OECD는 min-max 방법을 사용, 9개 영역의 원측값을 0~10 사이에 분포할 수 있도록 정규화하였다. 정규화 과정에서 극값(extreme values)에 의한 왜곡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4번째 백분위 수(4th percentile)에 해당하는 지표 값, 즉 선택 영역의 지표 값을 크기순

으로 나열 시, 상위 96%와 나머지 4%를 구분하는 수치보다 낮은 지표 값은 모두 0으로, 반대로 96번째 백분위 수(96th percentile), 즉 선택 영역의 지표 값을 크기순으로 나열 시, 상위 4%와 나머지 96%를 구분하는 수치보다 높은 지표 값은 10으로 일괄 환산했다. 안전 영역을 측정하는 살인율 지표의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극값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는 전체 362개 지역 중 소수의 지역만이 매우 높은 극값을 보이고 나머지 지역은 유사한 지표값을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의 경우, 극값의 기준을 10번째 백분위 수(10th percentile)와 90번째 백분위 수(90th percentile)로 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안녕을 저해하는 지표들, 즉 실업률, 사망률, 공기 오염, 살인율의 경우, 역(逆) min-max의 방법으로 정규화했다. 앞에서 설명한 min-max와 역(逆) min-max 공식은 다음과 같다.

1) min-max

$$\hat{x}_i = \left(\frac{x_i - \min(x)}{\max(x) - \min(x)} \right) \times 10$$

2) 역(逆) min-max

$$\check{x}_i = \left(\frac{\max(x) - x_i}{\max(x) - \min(x)} \right) \times 10$$

x=해당 영역의 지표 값, i=개별 지역

\hat{x}_i =min-max 방법으로 정규화된 개별 지역의 해당 영역 지표 값

\check{x}_i =역(逆) min-max 방법으로 정규화된 개별 지역의 지표 값(실업률, 사망률, 공기 오염, 살인율에만 적용)

위의 방법으로 정규화된 9개 영역의 점수들은 362개 지역의 안녕 및 행복 수준을 비교하는 데 사용되었고 그 결과는 <http://www.oecdregionalwellbeing.org/index.html>에 제시되어 있다. RWB의 9개 영역 역시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았다. RWB와 BLI의 가중치 부여에서의 차이는 BLI는 사이트 방문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영역에 차별적인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되어 OECD 회원국의 안녕 수준을

비교할 수 있게 만든 반면, RWB의 시민 참여를 통한 가중치 부여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RWB는 9개 영역 점수의 산술평균을 이용해 362개 지역의 안녕을 비교한다.

03

행복지수 측정 체계 비교 분석

- 1_국제기구의 행복지수 측정 체계
- 2_국외(해외국가)의 행복지수 측정 체계
- 3_국내의 행복지수 측정 체계
- 4_국제기구 및 해외사례의 시사점

03 | 행복지수 측정 체계 비교 분석

1_국제기구의 행복지수 측정 체계

국제기구의 행복지수 측정 연구로는 UN의 World Happiness Report, OECD의 Better life index(BLI)가 있다.

1) UN의 World Happiness Report

2011년 UN 총회에서는 경제적 성과가 아닌 심리적 행복을 조사하여 각국의 정책에 반영하자는 제안을 통과시켰고, 2012년 행복과 웰빙에 관한 UN 고위급 회담을 바탕으로 OECD의 지침에 따라 삶의 선택과 사회적 지지를 위한 자유, 소득, 기대수명 등을 조사한 내용과 유엔 인권지수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별 행복지수(Life evaluation score)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제1차 세계행복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는 국제적 차원에서 행복과 웰빙을 측정하고자 한 시도였다. World Happiness Report는 UN 지속가능개발대책네트워크가 주축이 되어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지구연구소,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 캐나다선행연구소, 런던 정치경제대학 등 연구원들이 전 세계 156개국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하였다. 2012년부터 세계 15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Gallup World Poll 삶의 평가(life evaluations), the World Value Survey, the European Social Survey 자료를 기반으로 국가 수준의 행복수준을 평가하였으며 [표 3-1]과 같이 1인당 GDP, 사회적 지지, 기대수명,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 부패로부터의 자유, 관용이라는 6가지 변수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Helliwell et al., 2012; 2013).

[표 3-1] 개인 행복의 요인

구분	요인
외부적 요인 (external)	소득
	직업
	커뮤니티 및 거버넌스
	가치 및 종교
개인적 요인 (personal)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가족 관계
	교육
	성과 연령

출처: Helliwell et al.(2012)

전 세계의 행복도 현황

2012년 조사결과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난 30년에 비해 행복도가 평균적으로 0.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들은 북유럽국가 4개국(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으로, 이들 4개국 평균은 10점 만점에 7.6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도가 낮은 나라들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제국들(토고, 베냉,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시에라리온)로서, 이들 4개국은 평균 3.4점으로 나타났다.

선진 국가에서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행복한 반면,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성별에 따른 일관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 빈곤한 나라에서는 절대적 소득이 행복점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부유한 나라에서는 상대적 소득이 중요하였다. 물론 가난한 국가와 부유한 국가를 비교하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행복한 경향이 있었으나, 소득이 행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소득 이외의 다른 많은 사회적 변수들이 행복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변수들은 사회적 신뢰, 선택의 자유, 정치적 자유, 강한 사회적 유대감(공동체), 부패의 부재 등의 요소들이었다.

개인수준의 분석단위에서 행복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신적·육체적 건강”, “타인에 대한 신뢰”, “직업 안정성”, “안정된 가정”이 핵심 요인이었다. “실

업”은 “사별/이혼”과 마찬가지로 행복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직업 안정성과 동료들과의 좋은 유대감은 높은 연봉과 편리한 근무시간보다 훨씬 더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행복도는 감소하다가, 중년(40~50세) 세대가 지나면 행복도가 다시 상승하는 U자형 함수 형태를 보였다. 다시 말해 중년세대의 행복도가 가장 낮았다. 과거의 경험(낙관적/비관적)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며, 비관적 경험보다는 낙관적 경험이 2~3배 더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Helliwell et al., 2012).

2013년 조사결과를 보면 가장 행복한 상위 5개국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순이며 하위 5개국은 토고, 베냉,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부룬디, 르완다로 나타났다. 한국은 6.267점으로 2012년 56위에서 2013년 41위로 상승하였으며 2005~2007년도와 2010~2012년도의 행복수준을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이 가장 큰 상승을 보였고, 중동과 북아메리카가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Helliwell et al., 2013).

2) OECD의 행복지수(BLI: Better Life Initiative)

OECD는 GDP가 아닌 사회의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지난 십여년간 연구를 해왔으며, 그 결과 OECD Better Life Initiative를 2011년에 발표하였다. OECD Better Life Initiative는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에 중점을 두었고, ‘How’s Life?’ 보고서와 the Better Life Index(BLI)라는 2가지 주요 결과물을 발행하고 있다. BLI는 웰빙에 대한 논의에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이 과정을 통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BLI는 쌍방향 도구로 사용자들 스스로 11개의 웰빙 영역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할 수 있으며, 11개 영역에는 주거, 소득, 일자리,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생활만족도, 안전, 일과 생활의 조화 영역이 포함된다. 이 도구를 통해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근거해서 국가들의 평균 수행도를 비교해볼 수 있고, 자신들의 지수와 가중치 선택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사용자들로부터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대체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삶에 대한 만족, 건강, 교육이다(OECD, 2013).

[표 3-2] OECD, Better Life Index 지표별 정의

영역	지표명	정의
주거(Housing)	주거 관련 지출	주거 관련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및 수선유지비용의 합이 가계의 순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기본시설이 있는 가구	단독으로 사용하는 실내 수세식화장실 보유 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
	개인당 방 수	주택의 방 수를 거주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
소득(Income)	가구당 금융순자산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계기준 가계 보유 금융자산(현금, 채권 및 주식 등)
	가구당 순가처분소득	직접세 및 사회보장분담금,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가계의 임금, 재산 및 임료 소득 등 순가처분소득
일자리(Jobs)	직업안정	전년도에 고용된 사람 중에서 다음 연도에 실업자가 된 사람의 전년도 고용자 수 대비 비율
	개인소득	정규노동자의 연평균 소득
	고용률	근로가능연령인구(15~64세)에서 임금을 지급 받는 일자리에 고용(1시간 이상)된 인구의 비율
	장기 실업률	노동인력에서 1년 이상 실업상태(취업의사가 있고 구직활동을 함)에 있는 사람의 비율
공동체 (Community)	지원관계망의 질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 친구 또는 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교육(Education)	기대교육기간	5살 어린이가 평생 공식교육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기간
	학생들의 역량	독해, 수학 및 과학에 관한 PISA 평가 점수
	교육 성취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을 보유한 성인(15~64세)의 비율
환경 (Environment)	수질	살고 있는 지역의 수질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 비율
	대기의 질	큐빅미터당 미세먼지(마이크로그램) 농도
시민참여 (Civic Engagement)	규칙 제정에서의 협의	규제를 도입할 때 합의 과정에 대한 공개성 및 투명성에 관한 정보를 종합(composite)한 지표
	투표 참여율	선거등록 인구에 대한 실제 선거인구의 비율
건강(Health)	자기보고 건강상태	"전반적으로 당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견은?"이란 질문에 건강하다고 답변한 응답자 비율
	기대수명	현재의 사망률에 근거한 평균적인 기대수명
삶의 만족 (Life Satisfaction)	삶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10: 매우 만족~0: 매우 불만족) 평가에 대한 개인별 점수의 평균
안전(Security)	살인율	인구 10만 명당 경찰에 신고된 의도적인 피살자 수
	범죄피해율	과거 12개월 내 범죄피해를 신고한 사람의 비율
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	전국 서베이를 통해 조사한 통상적인 날에 여가 및 개인적인 돌봄에 사용한 시간
	장시간 근로자	주 50시간 이상 근무한 임금근로자의 비율(자영업자 제외)

출처: OECD 대한민국 대표부(<http://oecd.mofa.go.kr>)의 Better Life Index 2014

OECD 삶의 질 지표에 근거한 세계의 삶의 질 현황

2014년에 발표된 Better Life Index에서는 34개 OECD 회원국과 러시아와 브라질을 포함한 36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각 항목의 평균 점수에서 호주가 2013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캐나다, 스위스, 미국, 네덜란드, 핀란드, 뉴질랜드 순으로 10위권을 차지하였다. 한국은 36개 국가 가운데 25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은 11개 평가 영역에서 시민참여(3위), 교육(4위), 안전(6위)은 상위권을 차지하였고, 환경(30위), 건강(30위), 공동체(34위), 일과 삶의 균형(34위)은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2014년 Better Life Index의 지표별 한국 순위

영역 [점수/순위]	지표명	평가 결과	지표별 순위
주거 [5.9/20위]	주거 관련 지출	16%	2/36
	기본시설이 있는 가구	95.84%	28/36
	개인당 방 수	1.4개	24/36
소득 [2.3/23위]	가구당 금융순자산	28,290USD	19/36
	가구당 순가처분소득	18,035USD	26/36
직업 [7.6/14위]	직업안정성	0.03%	4/36
	개인소득	34,056USD	20/36
	고용률	64%	22/36
	장기 실업률	0.01%	1/36
공동체 [3.1/34위]	지원관계망의 질	77%	34/36
교육 [8.0/4위]	기대교육기간	17.54년	18/36
	학생들의 역량	537점	2/36
	교육 성취	81.4%	18/36
환경 [5.3/30위]	수질	78%	27/36
	대기의 질	30.3micro-g	33/36
시민참여 [7.5/3위]	규칙 제정에서의 협의	10.4index	6/36
	투표 참여율	75.84%	12/36
건강 [5.0/30위]	자기보고 건강상태	36.8%	35/36
	기대수명	81.1년	15/36
삶의 만족 [4.2/25위]	삶에 대한 만족도	6.0점	25/36
안전 [9.5/6위]	살인율	1.1명	18/36
	피해율	2.09%	7/36
일과 삶의 균형 [4.2/34위]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	14.6시간	25/36
	장시간 근로자	27.1%	34/36

출처: OECD 대한민국 대표부(<http://oecd.mofa.go.kr>)의 Better Life Index 2014

2_국외(해외국가)의 행복지수 측정 체계

대표적인 해외지역의 행복지수 측정 체계로는 영국통계청의 National Wellbeing, 캐나다의 Canadian Index of Wellbeing(CIW), 뉴질랜드의 quality of life survey 2012 six councils report, 네덜란드의 life situation index, 부탄의 Gross national happiness and the GNH index 등이 있다.

1) 영국 통계청의 National Wellbeing

영국이 국가차원에서 행복지수 측정 체계를 만든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5년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노동당 당수직에 도전하면서 행복지수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블레어 전 정부도 행복지수 조사를 추진했지만 계량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한 바 있다. 2010년 11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GDP는 국가성장을 측정하는 불완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GWB(General WellBeing)가 중요하며 행복지수를 통해 영국인의 삶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재평가해 장기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영국 통계청(ON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은 국가 복지와 관련한 새로운 측정방법 개발에 착수하였고, 이를 위해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Programme”을 수립하였다.

영국의 삶의 질 지표 구축 과정

영국의 이 같은 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40년 전에 이미 ‘사회 복지의 관점에서 경제적 성과는 반드시 평가되어야 하며, 경제적 통계 자료보다는 사회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좋은 통계 자료가 중요하다’는 사회적 경향(social trend)이 기저에 깔려 있다. 영국 통계청은 국가적으로 삶의 질을 제고함에 있어서, GDP 외에 사람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민들과 wellbeing 측정 관련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영국 통계청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실시한 대중 협의회(Public consultation)를 통해 National Wellbeing의 측정과 관련한 측정 범위 및 주요 지표들을 공유하였고 이 대중협의회는 대국민 토론을 통해 제안된 wellbeing의 측정 범위와 방법이 wellbeing의 광

범위한 영역을 반영하는지, 이해하기 쉬운지, 그리고 새로 추가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것들이 있는지 등에 관해 대중들의 피드백을 수집하였다. 이 결과가 2012년 7월에 보고서⁶⁾로 발행되었고, 2012년부터 매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National Wellbeing 지표는 다음 표와 같이 개인 행복, 관계, 건강 등의 10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에는 웰빙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이 포함된다 (ONS, 2014).

【표 3-4】 영국 National Wellbeing 지표(2014년 기준)

영역	지표	측정방법
개인 행복 (Personal wellbeing)	만족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0~10) 9 이상 비율
	가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한 평가(0~10) 9 이상 비율
	행복	어제 자신의 행복수준(0~10) 9 이상 비율
	불안	어제 자신의 불안정도(0~10) 1 이하 비율
관계 (Our relationships)	정신건강	긍정적 정신건강 관련 5점 척도 7개 질문 응답결과 7~35점 비율
	가정생활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1~10) 평균값
	사회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만족도(1~10) 평균값
건강 (Health)	의지할 사람	심각한 문제발생 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많다, 다소, 조금, 모름)
	기대수명	기대수명(남성, 여성)
	질병과 장애	장기질병과 장애 비율
	건강 만족도	건강에 대한 만족도(7개 척도) 중 상위 3개 항목 비율
우리가 하는 일 (What we do)	정신 건강	정신건강 체크리스트 4개 이상 해당 비율
	실업률	실업률
	직업만족도	직업 만족비율
	여가만족도	레저시간에 대한 만족도
	자원봉사	1년에 한 번 이상 자원봉사 경험 비율
	문화활동	미술 또는 문화 활동 1년에 3번 이상 참여하는 비율
우리가 사는 곳 (Where we live)	스포츠	일주일에 1번 30분 이상 운동하는 비율
	범죄율	16세 이상 1,000명당 범죄율
	야간 안전	지난 12개월 동안 남녀의 야간보행 경험 비율
	자연환경	지난 1년간 적어도 1주에 한 번 이상 야외활동 경험 비율
	소속감	이웃에 대한 높은 소속감 비율
	교통 접근성	주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평균 대중교통 이용 시간
	주거만족	주거에 대한 만족 비율

⁶⁾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Report on consultation responses on proposed domains and measures(2012.07)

영역	지표	측정방법
개인재정 (Personal finance)	소득	주거소득을 제외하고 중위소득 60% 이하에 살고 있는 가구 비중
	가계소득	연금자산을 포함한 가구당 평균 재산
	중산층 실소득	중산층의 실소득
	소득 만족도	가구소득 만족 비율
	저소득층	재정적으로 어려운 비율
교육과 기술 (Education and skills)	인적자본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기술, 지식, 역량의 가치
	영어와 수학	영어와 수학이 5레벨 또는 GCSE's A*-C 이상 비율
	자격증	16~64세 중 자격증이 없는 사람 비율
경제 (Economy)	1인당 순국민소득	1인당 순국민소득
	공공 부채	GDP 비율에서 영국 공공부문의 순차입금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율(소비자물가지수로 측정된 것)
거버넌스 (Governance)	투표율	등록된 투표인 수 중 투표자 비율
	정부 신뢰	정부 신뢰 비율
자연환경 (Natural environment)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총 배출량
	보호지역	영국에서 보호가능한 지역의 넓이
	재생가능에너지	최종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가능에너지 비율
	재활용	가정폐기물 재활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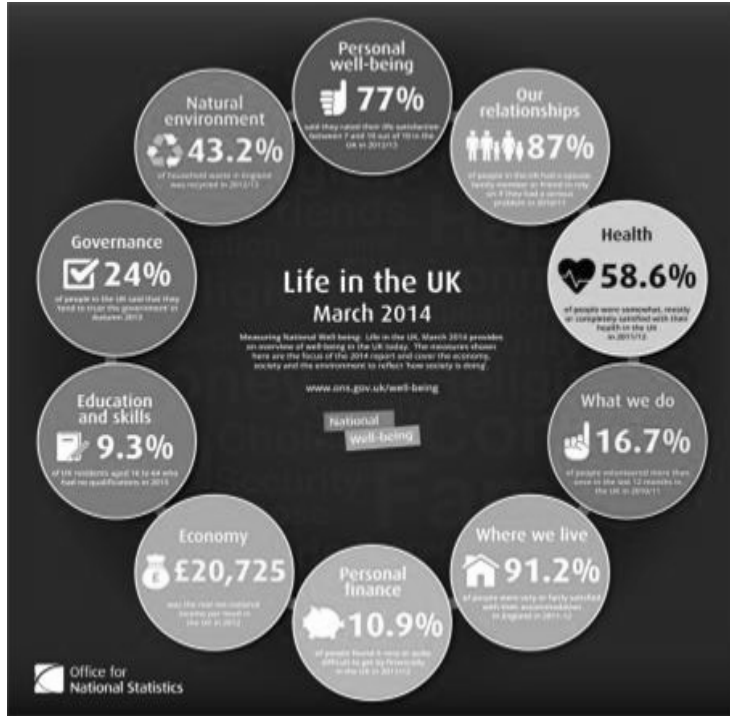
출처: 영국 통계청(www.ons.gov.uk)의 National Wellbeing Measures(Semtember 2014 release)

영국의 삶의 질 지표에서의 행복 관련 문항

2011년 4~8월에 ONS가 실시한 가구조사에서 행복 관련 질문(4개)이 최초로 수록되었으며, 동 가구조사는 영국의 '경제성과 및 사회혁신 평가 위원회(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에서 제안했던 사항들을 참고하여,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삶에 대한 가치 정도, 행복 또는 불안감 정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모든 질문은 0~10점 기준이며, 0점은 "not at all", 10점은 "completely"로 측정되며 주된 질문들로는 '전반적으로, 당신은 요즘 일상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당신은 인생이 어느 정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당신은 어제 얼마나 행복을 느꼈나요?', '전반적으로, 당신은 어제 얼마나 불안함을 느꼈나요?' 등이며 ONS 가구 조사는 16세 이상, 200,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및 기타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2014년에 실시한 행복조사 결과는 [그림 3-1]과 같으며 사는 곳(where we live)과 관계(our relationships) 부문에

서는 각각 91.2%, 87%의 높은 행복도를 나타낸 반면, 교육과 기술, 개인재정 부문에서는 각각 9.3%, 10.9%의 낮은 행복도를 나타냈다(ONS,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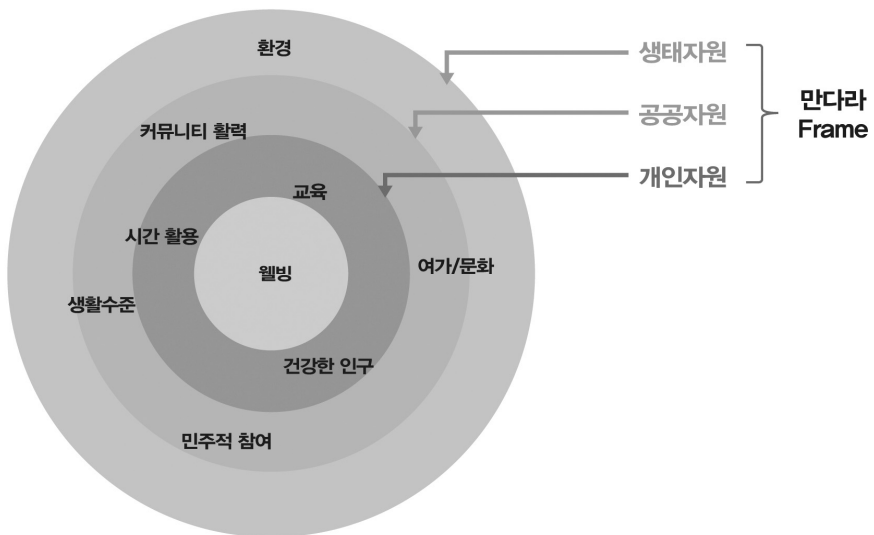
출처: 영국 통계청(www.ons.gov.uk)

[그림 3-1] 2014 Life in the UK

2) 캐나다 행복지수(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

캐나다 행복지수는 온타리오주 워털루 대학(University of Waterloo) 건강과학 응용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단위의 연구로, 행복(wellbeing)의 구성요소를 [그림 3-2]와 같이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표 산출의 기반으로 삼았다. 캐나다 행복지수에서 정의하는 행복이란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서 만다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행복은 개인자원, 공공자원, 생태자원이라는 3가지 영역의 원형으로 표현하며, 각 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건강한 인구, 교육, 시간 활용으로 구성되는 개인적 자원은 우리가

개인적 행복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생활수준, 커뮤니티 활력, 레저/문화, 민주적 참여 항목은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개인을 넘어서는 사회 영역에서 작동한다. 셋째,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생태자원은 가장 포괄적인 것이다. 이들 3가지 영역(자원)들은 개별적이라기보다 전체 체계 안에서 상호작용하고 있다 (Michalos et al., 2011).



출처: Michalos et al., 2011, Canadian Index of Wellbeing, p.7

[그림 3-2] The Mandala of Wellbeing

캐나다 행복지표

캐나다 행복지수는 위에서 제시한 행복의 3가지 영역에 기반하여, [표 3-5]와 같이 크게 8가지(건강한 인구, 생활수준, 커뮤니티 활력, 교육, 환경, 시간 활용, 민주적 참여, 레저와 문화) 영역, 64개의 지표로 구성하였다(Canadian Index of Wellbeing, 2014, p.9).

[표 3-5] 캐나다 행복지수의 지표와 산출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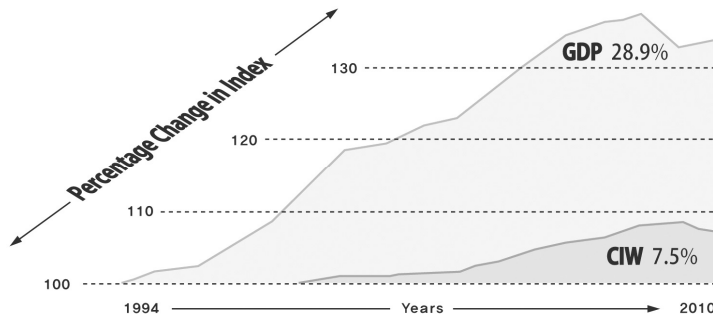
지표	산출방식
커뮤니티 활력	조직 활동의 참여 비율
	가까운 친구가 6명 이상 있는 비율
	인구 100,000명당 재산범죄율
	인구 100,000명당 폭력범죄율
	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여부(밤거리 안전도)
	다른 사람의 요구에 덜 신경 쓰는 것에 대한 불일치 비율
	다른 사람을 위해 자원봉사(무보수)하는 비율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지 여부(커뮤니티 소속감)
민주적 참여	연방선거 투표율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비율
	연방선거 투표라는 시민의 의무에 강력하게 동의하는지 여부
	민주적 업무 방식에 대한 만족 비율
	연방정부의 정책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비율
	해당 유권자의 등록 비율
	의회 내 여성 비율
	국민총소득 비율에 따른 순 공적개발원조
교육	0~5세 어린이 보육 공간 비율
	성장 도메인 5가지를 잘 성취하는 어린이의 비율
	공립학교에서 교사 대비 학생 수
	12~13세의 사회적, 정서적 능력 점수 평균
	13~15세의 기본지식과 능력지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PISA 점수 비율
	20~24세의 고졸자 비율
	25~64세의 대졸자 비율
환경	지표 오존 수치
	GHGs 배출량(연간 CO ₂ 의 메가톤)
	국내 에너지 총생산
	남부 캐나다의 물 생성량(km ³)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 매장량 지수
	금속 매장량 지수
	캐나다 지구생존지수 ⁷⁾
	해양영양지수

7) 2,500종 이상의 동물을 모니터링해 생태계 건강성을 분석한 지수이다.

지표	산출방식
건강한 인구	주관적 건강 인식 비율(우수 또는 매우 좋음)
	자기기입에 따른 당뇨병 비율
	출생 시 기대수명
	12~19세 청소년 중 매일 또는 가끔 담배를 피우는(흡연자) 비율
	우울증 비율
	우수하거나 좋은 환자 서비스 방식의 등급 비율
	(65세 이상) 독감예방 접종 비율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균 기대수명
레저와 문화	사회적 여가활동의 평균 시간
	예술과 문화활동의 평균 시간
	문화와 레크리에이션 조직을 위해 자원봉사하는 평균 시간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신체적 활동에 참여하는 평균 빈도
	지난 한 해 문화예술공연을 관람한 횟수
	지난 한 해 국립공원과 유적지를 방문한 횟수
	지난 한 해 휴가로 집에서 80km 떨어진 곳에 방문했을 경우 평균 숙박일수
	지난 한 해 전체가구지출에서 문화와 레크리에이션을 위해 사용한 비용
생활수준	경제활동 중인 가구의 최고부터 최저까지 5분위 수 비율
	가구의 과세 중위소득
	저소득 비율
	CSLS 경제보장 값의 비율
	장기 실업 비율
	고용 비율
	고용품질 CIBC 지수(1994 QI=100)
	RBC 주택구입능력지수
시간활용	20~64세 중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
	20~64세 중 시간압박수준이 높은 비율
	20~64세 중 노인에게 무급돌봄을 제공하는 비율
	(65세 이상) 매일 활동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비율
	(65세 이상) 매년 공식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비율
	하루 2시간 이상 TV 시청을 하거나 비디오게임을 하는 12~17세 어린이 비율
	매주 또는 더 체계적인 활동을 하는 6~9세 어린이 비율
	부모에 의해 매일 책을 읽는 3~5세 아동 비율

출처: Michalos et al.(2011)

캐나다 행복지수 데이터는 주로 캐나다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DP와 행복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3-3]과 같이 1994년부터 2010년 사이에 GDP가 28.9% 증가한 반면 행복지수는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GDP는 CIW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Canadian Index of Wellbeing, 2014, p.10

[그림 3-3] GDP 대비 캐나다의 행복지수 트렌드(1994~2010)

3) 뉴질랜드 삶의 질 조사(Quality of Life Survey 2012)

뉴질랜드는 6개 지역위원회(오클랜드, 포리루아, 허트,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더니든)가 파트너십을 통해 2003년부터 삶의 질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다. 2012년 이전까지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CATI)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순차적 통합방식(sequential-mixed methodology)을 사용하여 조사하고 있다. 2014년 조사기관은 닐슨으로 [표 3-6]과 같이 8가지 영역(삶의 질, 건강과 웰빙, 범죄와 안전, 커뮤니티, 문화와 사회네트워크, 지역의회 의사결정, 환경, 공공교통, 경제적 웰빙)을 조사하였다(Nielsen, 2014: <http://www.qualityoflifeproject.govt.nz>).

[표 3-6] 뉴질랜드 삶의 질 조사 지표

영역	지표
삶의 질	1년 전의 삶의 질과 비교
건강과 웰빙	(일반적인) 건강상태
	신체적 활동 빈도
	정서적 웰빙
	일반적인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정도
범죄와 안전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의) 지원가능 여부
	범죄 및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인식
커뮤니티, 문화사회 네트워크	안전정도
	공동체의식
	사회적 네트워크
	이웃과의 관계
	고립감
	신뢰
	문화 다양성
문화적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예술현장	
지역의회 의사결정	의사결정과정 이해도
환경	살기 좋은 도시/지역으로서의 인식
	도시/지역에 대한 자부심
	공원 및 녹지 접근성
	쓰레기와 오염에 대한 인식
공공교통	주요 교통수단
	개인교통수단 이용 빈도
	대중교통 이용 빈도
	대중교통에 대한 인식
	교통수단에 대한 인식
경제적 웰빙	고용상태
	일과 다른 삶의 영역과의 균형정도
	주거비용
	일상생활에 필요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

주: 닐슨 보고서의 질문지를 기반으로 지표 구성

출처: Nielsen(2014)

응답자는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6개 지역의 거주자를 임의 선택하였으며,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21,136명 중 총 5,295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2014년 조사는 95% 신뢰수준 ± 1.3 의 표본오차를 가지며, 도시별 표본오차는 [표 3-7]과 같다.

[표 3-7] 도시별 표본오차

위치	모집표본	유효부수	최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오클랜드	2,000	2,441	±2.0%
허트	500	569	±4.1%
포리루아	500	611	±4.0%
웰링턴	500	647	±3.9%
크라이스트처치	500	488	±4.5%
더니든	500	539	±4.2%
합계	4,500	5,295	±1.3%

출처: Nielsen(2014: 13)

2014년 뉴질랜드 삶의 질 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질** 부문은 6개 지역 주민의 82%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6개 지역 주민의 약 1/4(27%)이 지난 1년 전과 비교하여 삶의 질이 상승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건강과 웰빙** 부문에서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6개 지역 주민의 82%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주민의 46%가 일주일에 5회 또는 그 이상 신체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체 주민의 73%가 정서적 웰빙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주민의 71%가 그들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주민의 17%가 정기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주민의 92%는 자신이 질병, 부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범죄와 안전** 부문에서는 지난 1년간 지역 내에서의 공공기물 파손행위, 자동차 도난, 난폭운전 등이 지역의 문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민의 49%가 공공기물 파손행위가 지역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동차 도난이나 차량손상 문제에 대해서 55%, 난폭운전에 대해서 64%, 알코올이나 마약 등의 문제에 대해서 55%가 지역의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주민의 96%가 낮 동안 집에 있을 때 안전감을 느끼며 밤에는 89%가 집에 있을 때 안전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밤에 동네를 혼자 걸을 때 안전감을 느끼는 주민은 59%였으며, 낮 동안 도심이 안전하다는 주민은 91%, 밤에 도심이 안전하다는 주민은 43%로 나타났다. **커뮤니티, 문화사회 네트워크** 부문에서는 주민의 74%가 지역에서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53%만이 지역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공동체 의식이 부족한 이유로는 생활이 바빠서가 47%로 가장 많았고, 이웃과 의사소통

하지 않기 때문이 43%, 이웃 대신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사회생활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0%로 그 뒤를 이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는 직장과 학교에서 형성된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높았고 페이스북, 트위터,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나 포럼 등과 같은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서 형성된다는 응답이 49%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주민의 94%가 지역주민들과 간단한 인사 등을 통해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2/3인 69%가 이웃주민 방문 등의 보다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15%는 이웃주민과 관계를 맺지 않았으며, 10%는 의견불일치나 긴장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68%는 지난 1년간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65%가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67%는 뉴질랜드가 다른 생활양식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4%가 지역이나 도시가 문화적으로 풍요롭고 다양한 문화현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단위의 의회 의사결정** 부문에 있어서는 주민의 30%만이 지역의회가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54%의 주민은 의회의 의사결정에 동의하며 40%는 의회가 자기 지역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주민의 40%는 일반 시민이 의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환경** 부문에 있어서는 주민의 79%가 자신의 도시/지역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60%가 도시/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자부심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체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공원, 오픈스페이스, 정원 등이 각각 52%로 나타났다. 자연환경이 아름답다는 응답이 48%로 그 뒤를 이었다. 도시/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로는 교통시스템 문제(42%)와 범죄 및 안전 문제(40%)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90%가 도시 또는 지역에서 공원이거나 그린스페이스로의 접근성이 좋다고 응답하였고, 지역문제로는 주민의 58%가 낙서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다음으로 대기오염이 25%로 나타났다. 2014년 지역문제 항목으로 처음 들어간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30%가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공공교통** 부문에서는 주민의 84%가 자동차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21%만이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42%가 대중교통 비용이 저렴하다고 응답하였으며, 72%가 안전하

다고 응답하였다. 71%가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2%가 대중교통이 자주 운행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47%가 대중교통은 믿을 만하다고 응답하였다. 경제적 웰빙 부문에 있어서는 주민의 53%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17%는 파트타임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주민의 60%는 일과 다른 삶의 영역과의 균형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42%가 주거비용이 저렴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0%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충분한 돈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Nielsen, 2014: 5~8).

4) 네덜란드의 삶의 질 지수(Life Situation Index)

1974년 네덜란드 사회연구소(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는 네덜란드의 전반적인 삶의 질 설명, 긍정적·부정적 측면에서의 삶의 질 평가, 시계열 변화 관찰, 시간의 변화에 따른 세부 하위 지표들의 발전과정 추적, 보다 넓은 개념틀 안에서 삶의 질에 대한 설명 시도라는 5가지 목적으로 삶의 질 지수를 개발하였다. 삶의 질 지수는 1974년 네덜란드 사회연구소와 네덜란드 통계청이 처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74년부터 1989년까지는 네덜란드 국민을 대표하는 표본을 선정하여 2년마다 실시하였다. 이후 1990년부터 1993년까지는 매년 실시되다가, 1997년에는 CBS에서 생활여건에 대한 상시조사를 만들었고 2년마다 실시되었으나, 2002년 중단되었다. 이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조사는 네덜란드 사회연구소에서 실시하였으며, 네덜란드 사회연구소에서는 2001년 이후 2년에 한번씩 삶의 질 지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Boelhouwer, 2010; 한준 외, 2011). 네덜란드의 삶의 질 지수는 [표 3-8]과 같이 총 8개 영역, 1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1974년부터 2006년까지의 삶의 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30년간 네덜란드 국민의 삶의 질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삶의 질(전체), 연령별, 가구유형별, 고용형태별, 교육수준별, 소득집단별 삶의 질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Boelhouwer, 2010).

[표 3-8] 네덜란드의 삶의 질 지표

영역	지표
건강(health)	집에서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여행, 스포츠와 같은 여가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주거(housing)	주택유형 소유 여부 방의 수 거실 크기
이동성(mobility)	자동차 소유 대중교통 이용권 소유
휴가(holidays)	지난 12개월 동안 휴가일수 해외여행 일수
내구재(ownership of durable consumer goods)	가정용품의 수 취미 장비의 양
사회·문화적 레저 활동	사회문화 활동 수 취미활동의 수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
사회참여	자원봉사활동 사회격리(정도)
스포츠	스포츠 활동 횟수(1주) 스포츠 활동의 수

출처: Boelhouwer(2010: 185)

5) 부탄의 Gross National Happiness and the GNH index

부탄은 2007~2008년의 지그메 싱기에 왕추크 국왕(Jigme Singye Wangchuck)이 취임 2년 만인 1974년 GDP가 아닌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을 기준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가 말하는 국민총행복의 개념은 크게 좋은 정부,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개발, 문화 보존, 환경보전이라는 4가지 틀로 설명 가능하며 최근에는 이 4가지 틀을 다시 9가지 범주(심리적 행복, 건강, 교육, 시간활용, 문화적 다양성과 회복력, 굿거버넌스, 지역사회 활성화, 생태적 다양성과 회복력, 생활수준)로 구분하였다. 제66차 UN총회(2012년 4월 2일)에서 지그메 툰리 부탄총리는 복지와 행복에 대한 고위급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발전 정도를 GDP나 GNI가 아닌 GNH로 측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2006년 파일럿 조사를 시작으로, 2007년에 1차 조사, 2010년 2차 조사, 2014년 3차 조사를 하였다

(Ura et al., 2012). 2010년 조사는 총 7,1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영역은 건강, 시간 활용 방법, 생활수준, 공동체, 심리적 행복, 문화, 교육, 환경, 올바른 정치 등 9개 분야이다. 2010년 조사에서는 2006년도 행복지수(GNH) 결과를 개선하여 [표 3-9]와 같이 9가지 영역 안에 3~4가지의 세부영역과 총 33개의 지표로 구성하였다(GNH Index, 2012).

[표 3-9] 부탄의 33개 GNH 지표

영역	변수	가중치
심리적 행복 (4)	삶의 만족도	33%
	긍정적 감정	17%
	부정적 감정	17%
	영적 추구(Spirituality)	33%
건강 (4)	주관적 건강상태	10%
	건강일수	30%
	장애	30%
	정신건강	30%
시간활용 (2)	근로시간	50%
	수면시간	50%
교육 (4)	이해능력	30%
	교육수준	30%
	지식	20%
	가치	20%
문화다양성과 회복력 (4)	모국어 구사수준	20%
	예술적 기술	30%
	사회-문화적 참여	30%
	규범	20%
굿거버넌스 (4)	정치참여	40%
	기본권(정치적 자유)	10%
	서비스 전달	40%
	정부 성과	10%
지역사회 활성화 (4)	기부(시간과 비용)	30%
	지역사회 관계	20%
	가족	20%
	안전성	30%

영역	변수	가중치
생태다양성 및 회복력 (4)	생태문제(오염)	10%
	환경에 대한 책임	10%
	자연환경 파괴(농촌)	40%
	도시화문제	40%
생활수준 (3)	가구소득	33%
	자산	33%
	주거의 질	33%

출처: Ura et al., 2012, A Extensive analysis of GNH Index, p.26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부탄의 GNH value는 0.743이며, 40.9%의 인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탄 시민들은 안전, 모국어, 가족, 정신건강, 도시화 논의 주제, 환경 책임, 생활만족도, 정부의 공정성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절반 정도의 시민들은 생태계 논쟁, 부정적 감정 형성, 지역사회 관계 등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절반 이하의 부탄 시민들이 읽기·쓰기, 주택공급, 기부, 서비스, 직장, 교육, 문화 참여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이들 중 제일 행복하지 않은 시민들은 소득이 비교적 낮은 이주자들로 나타났다. 인구학적으로는 남성(0.783)이 여성(0.701)보다 행복지수가 높았으며(전체평균: 0.743), 남성이 교육, 지역사회 활성화, 심리적 행복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다. 연령별로는 0~10점 기준(0: not a very happy person, 10: very happy person)으로 보았을 때, 부탄에서 청년 인구가 가장 행복한 그룹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기준, 교육의 행복지수는 증가하지만 통치와 문화에 대한 기대는 감소하였다. 또한 도시와 지방을 비교하였을 때, 지방 거주자가 대체적으로 도시 거주자보다 덜 행복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지역에 따라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지방에서는 지역사회, 문화적 다양성, 정부의 공정성이 중요시된 반면, 도시에서는 생활기준, 교육, 건강이 더 중요한 행복요소로 파악되기 때문이다(An Extensive analysis of GNH Index, 2012).

3_국내의 행복지수 측정 체계

국내에서도 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주민 행복도 조사가 있다.

1)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 저출산, 자살 증가, 사회갈등 심화 등 새로운 사회문제의 등장으로 GDP 중심 경제지표가 한계를 나타내고, 정책적 관심이 경제발전 중심에서 ‘국민 삶의 질’의 중요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측정방안 연구가 추진되었다. 통계청에서는 2009년부터 OECD 세계포럼 개최 시 ‘삶의 질 측정’ 관련 내부연구를 수행하고 시민참여, 전문가 의견수렴, 다수의 포럼 개최 등을 통해 2014년 ‘국민 삶의 지표’에 관한 홈페이지 구축 및 서비스를 개시하였다(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2014). ‘국민 삶의 질’ 측정 체계는 OECD의 Better Life index와 유사하게 12개 영역 81종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질부문(4개 영역)과 비물질부문(8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객관지표 57종, 주관지표 24종이 선정되었다. 지표 선정에 있어 전문가들이 적절한 지표를 선정하는 하향식 방식(Top-down)과 더불어 국민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통해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각 지표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분되고 객관적 지표는 삶의 질과의 관련성, 지표의 신뢰성, 포괄성,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영역별로 대표적인 지표들이 선정되었다. 각 단계를 통해 선정된 지표들은 최종적으로 각 영역 내에서 서로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높은 내용을 측정하는 경우 가능하면 중복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최종 지표가 선정되었는데, 전체 81종 지표 중 70종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2014).

[표 3-10] 영역별 지표 수

부문/영역	지표 수	객관		주관	공개		지표 수	객관		주관	공개
		객관	주관					객관	주관		
소득·소비·자산	8	6	2	8		건강	9	7	2	8	
고용·임금	6	5	1	6		교육	9	7	2	9	
사회복지	3	3	-	3		문화·여가	6	4	2	6	
주거	5	4	1	4		가족·공동체	8	6	2	7	
• 물 질 부문	22	18	4	21		시민참여	8	2	6	3	
• 비물질 부문	59	39	20	49		안전	9	7	2	8	
삶의 질 지표	81	57	24	70		환경	8	6	2	8	
						주관적 웰빙	2	-	2	0	

출처: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보도자료, 2014

[표 3-11] '국민 삶의 질' 측정지표

영역		하위영역	객관지표 (57종)	지표 수	주관지표 (24종)	지표 수
물질 부문	소득·소비·자산	-	1인당 GNI(+), 균등화 중위소득(+), 균등화 중위소비(+), 가구평균 순자산(+),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6	소득 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2
	고용·임금	-	고용률(+), 실업률(-),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근로시간(-), 저임금 근로자 비율(-)	5	일자리 만족도(+)	1
	사회복지	-	공적연금 가입률(+),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3	-	-
	주거	-	1인당 주거면적(+),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통근/통학 소요시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	4	주거환경 만족도(+)	1
비물질 부문	건강	건강상태	기대수명(+), 고혈압 유병률(-), 당뇨 유병률(-),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7	주관적 건강평가(+), 스트레스 인식정도(-)	2
		건강행위 및 환경	비만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교육	교육기회	유치원 취원율(+), 고등교육 이수율(+), 평생교육 참여율(+), 학업 중단율(-)	7	-	2
교육자원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			
교육성과		PISA 백분위 순위(-), 대졸생 취업률(+)	학교교육의 효과(+), 학교생활 만족도(+)			

영역	하위영역	객관지표 (57종)	지표 수	주관지표 (24종)	지표 수	
비물질 부분 (계속)	문화·여가	여가시간 및 활용	평균 여가시간(+)	4	여가활용 만족도(+),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	2
		문화활동	1인당 평균 국내 여행일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문화여가 지출 비율(+)		-	
	가족· 공동체	가족관계	가족접촉 빈도(+)	6	가족관계 만족도(+)	2
		가족형태	한부모 가구 비율(-), 독거노인 비율(-)		-	
		사회적관계	자살률(-), 사회적 관계망(+)		-	
		공동체참여	사회단체 참여율(+)		지역사회 소속감(+)	
	시민참여	정치참여	투표율(+)	2	정치 관심(+), 정치 효능감(+)	6
		시민 의무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시민적 덕목(+)	
		시민 권리	-		부패인식지수(+)	
		신뢰	-		대인신뢰(+), 기관신뢰(+)	
	안전	범죄	강력범죄 발생률(-), 자기보고 범죄피해율(-)	7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2
		사고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산업재해율(-), 화재 발생 건수(-), 도로 사망률(-)		-	
	환경	에너지	에너지 빈곤층 비율(-)	6	-	2
		대기	미세먼지 농도(-)		-	
		물	하수도 보급률(+)		-	
		폐기물	폐기물 재활용 비율(+)		-	
		기후변화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 불안도(-)	
		환경의 질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체감 환경 만족도(+)	
	주관적 웰빙	-	-	-	삶에 대한 만족도(+), 긍정적/부정적 정서경험의 균형(+)	2

주: 1) 밑줄 친(이탤릭체) 11개 지표는 현재 1회 자료값만 있어 변화추세 판정이 불가능하고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여 공개에서 제외

2) (+) 또는 (-)는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을 나타냄

출처: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보도자료, 2014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개대상 70종의 최근 연도별 자료 구축 현황은 '13년 26종, '12년 37종, '11년 이전 7종으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전체 공개지표(70종) 중 비교대상 전년도 대비 개선 34종(48.6%), 보합 14종(20.0%), 악화 22종(31.4%)으로 전반적으로 개선된 지표가 많이 나타났다. 물질 부문에서는 개선된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 비물질 부문은 개선이 악화보다 조금 많게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소득·소비·자산, 고용·임금, 문화·여가, 교육 및 환경 영역에서는 최근 개선추세를 보이는 반면, 건강 영역에서는 악화추세를 보였다(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보도자료, 2014).

[표 3-12] 영역별 최근 변화추세

부문/영역	지표 수		최근 변화추세			부문/영역	지표 수		최근 변화추세		
	전체	공개	개선	보합	악화		전체	공개	개선	보합	악화
소득·소비·자산	8	8	5	1	2	건강	9	8	1	2	5
고용·임금	6	6	5	-	1	교육	9	9	5	2	2
사회복지	3	3	2	-	1	문화·여가	6	6	4	-	2
주거	5	4	2	-	2	가족·공동체	8	7	3	1	3
• 물질 부문	22	21	14	1	6	시민참여	8	3	1	1	1
• 비물질 부문	59	49	20	13	16	안전	9	8	2	4	2
삶의 질 지표	81	70	34	14	22	환경	8	8	4	3	1
						주관적 웰빙	2	-	-	-	-

출처: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보도자료, 2014

[표 3-13] '국민 삶의 질 지표' 측정결과 종합표

	영역	구성지표	최근 추세	영역	구성지표	최근 추세
물질 부문	소득 · 소비 · 자산	1인당 GNI	▲	고용 · 임금	고용률	▲
		균등화 중위소득	▲		실업률	▲
		균등화 중위소비	▼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
		가구평균 순자산	▼		근로시간	▲
		지니계수	▲		저임금 근로자 비율	▼
		상대적 빈곤율	≈		일자리 만족도*	▲
		소득만족도*	▲		1인당 주거면적	▲
	사회 복지	소비생활 만족도*	▲	주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공적연금 가입률	▲		통근/통학 소요시간	▼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	▼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	▲(개선) 14종, ≈(보합) 1종, ▼(악화) 6종		
비 물질 부문	건강	기대수명	≈	교육	유치원 취원율	▲
		고혈압 유병률	▼		고등교육 이수율	≈
		당뇨 유병률	▲		평생교육 참여율	▼
		주관적 건강평가*	▼		학업 중단율	▲
		스트레스 인식정도*	≈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
		비만율	▼		PISA 백분위 순위	▲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		대졸생 취업률	≈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		학교교육의 효과*	▲
	문화 · 여가	평균 여가시간	▼	가족 · 공동 체	학교생활 만족도*	▼
		여가활용 만족도*	▲		가족접촉 빈도	▲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	▼		가족관계 만족도*	≈
		1인당 평균 국내 여행일수	▲		한부모 가구 비율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		독거 노인 비율	▼
		문화여가 지출 비율	▲		자살률	▲
	시민 참여	투표율	▲	안전	사회적 관계망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사회단체 참여율	▲
		부패인식지수*	▼		강력범죄 발생률	≈
	환경	에너지 빈곤층 비율	≈	안전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
		미세먼지 농도	▲		야간보행의 안전도*	▼
		하수도 보급률	≈		도로 사망률	≈
폐기물 재활용 비율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	
기후변화 불안도*		▲	산업재해율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화재 발생 건수		▲	
체감 환경 만족도*		▲	▲(개선) 20종, ≈(보합) 13종, ▼(악화) 16종			
삶의 질 지표(70종): ▲(개선) 34종, ≈(보합) 14종, ▼(악화) 22종						

주: *는 주관지표를 의미

출처: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보도자료, 2014

2)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주민 행복도 조사

지역발전위원회는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 지역행복도를 측정하기 위한 1차년도 선행연구로 ‘지역행복도 지표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를 수행하였고 지역주민 행복도 조사는 실질적인 지역행복도의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체감형 지역생활권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와 지역생활권 주민에 대한 생활서비스의 제공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종합적인 지역행복도 지표체계 구축 및 측정을 통하여 지역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과학적, 분석적 기초를 제공하고, 지역 간 행복도의 객관적인 비교 분석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및 지역발전사업의 선정 등에 활용하며 생활서비스 제공 범주에서의 양적 또는 외형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생활권정책을 지향하고자 하였다. 지역주민 행복도 조사는 2013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 정부 공식 통계자료 활용 및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한 주민이 느끼고 있는 체감적 행복도(삶의 질 만족도)를 측정하였고, 객관적 지표의 통계단위와 주관적 지표의 표본단위가 지자체로 되어 있고 연차별 행복도 조사의 시계열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229개 기초자치단체로 한정하여 행복도를 측정하였다. 특히 지역행복도 지표의 고도화를 위하여 행복도 구성 부문별 객관적 지표의 지역 간 차이에 대한 사전 기초 분석을 통해 지표의 타당성 여부를 고려하였고, 수치례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지표의 대표성, 신뢰성, 보편성, 독립성을 검토하여 지역실정을 고려한 지표체계를 [표 3-14]와 같이 구성하였다(지역주민 행복도 조사, 2015).

지역주민 행복도 산출을 위한 행복도 지수는 객관적인 정량지표와 주관적인 정성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객관적인 정량지표는 12개 부문 30개의 승인통계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주관적인 정성지표는 12개 부문 16개의 만족도 지표로 구성되어 총 46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역주민 행복도 지수 도출을 위한 총 46개의 지표 중 38개의 지표는 양(+)적인 지표로 구성되었고, 나머지 8개의 지표는 지역주민 행복도를 감소시키는 부(-)적인 지표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 16개 광역자치체의 229개 기초지자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일반주민(제주도 행정시 2곳 포함, 세종시 제외)을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표준화된 조사표

를 이용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6,695개의 표본을 추출하였다(지역주민 행복도 조사, 2015).

[표 3-14] 지역행복지수 지표 체계

부문	세부지표	단위	비고	성격	정량	정성	총수
생활인프라	1인당 전기공급설비	개소	정량	+	2	1	3
	도로포장률	%	정량	+			
	생활인프라 만족도		정성	+			
주거	1인당 주거면적	m ²	정량	+	3	1	4
	노후주택비율	%	정량	-			
	주택보급률	%	정량	+			
	거주지 만족도		정성	+			
교육	천 명당 사설학원 수	개소	정량	+	4	1	5
	교원 1인당 학생 수	명	정량	-			
	1인당 학교 수(초중고)	개소	정량	+			
	1인당 전문대학 및 대학 교수	개소	정량	+			
	교육만족도		정성	+			
문화여가	천 명당 도서관	개소	정량	+	2	1	3
	천 명당 문화시설	개소	정량	+			
	문화여가 만족도		정성	+			
경제	1인당 사업체 수	개소	정량	+	3	1	4
	재정자립도		정량	+			
	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명	정량	+			
	소득만족도		정성	+			
사회	고용률	%	정량	+	3	1	4
	천 명당 자살률	%	정량	-			
	천 명당 이혼율	%	정량	-			
	고용만족도		정성	+			
의료	천 명당 병상 수	개소	정량	+	3	1	4
	천 명당 의료시설 수	개소	정량	+			
	천 명당 의료인 수	명	정량	+			
	의료만족도		정성	+			
복지	1인당 복지시설 수	개소	정량	+	3	1	4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	%	정량	+			
	사회복지비 비중	%	정량	+			
	복지만족도		정성	+			

부문	세부지표	단위	비고	성격	정량	정성	총수
환경	공원면적/전체면적	%	정량	+	2	2	4
	CO, NO _x	톤/년	정량	-			
	환경만족도		정성	+			
	생태만족도		정성	+			
안전	화재발생 수	건수	정량	-	3	1	4
	교통사고 수	건수	정량	-			
	이혼율	%	정량	-			
	안전만족도		정성	+			
시민의식	시민참여율	%	정량	+	2	2	4
	정보공개율	%	정량	+			
	가족유대관계 만족도		정성	+			
	시민의식 및 공동체 만족도		정성	+			
삶의 만족	현재 만족도		정성	+	-	3	3
	과거 만족도		정성	+			
	미래 만족도		정성	+			

출처: 지역주민 행복도 조사, 2015

지역주민 행복도 조사는 시군구별 지역주민의 행복도뿐만 아니라 16개 시도 지역 주민 행복도, 인구규모별 행복도(5만 명 이하 지역주민 행복도, 10만 명 이하 지역 주민 행복도, 50만 명 이하 지역주민 행복도, 100만 명 이하 지역주민 행복도), 도시·농촌 지역주민 행복도, 성장축진지역 지역주민 행복도 현황 등 지표체계와 지역 구분에 따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부문별, 지역별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지역주민 행복도 조사,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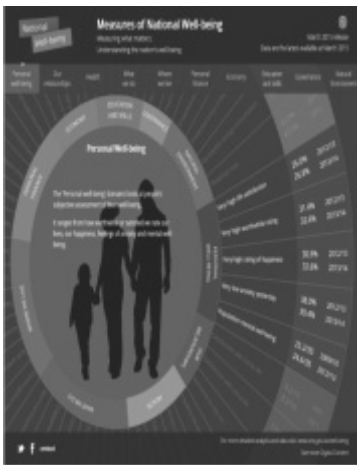
4_국제기구 및 해외사례의 시사점

3장에서는 삶의 질 및 행복을 측정하는 국제기구 및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삶의 질 지표 구축 배경, 삶의 질 지표 구축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점 및 데이터 축적과 해석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쟁점들을 검토했다. 국제기구 및 해외 국가나 도시에서의 삶의 질과 행복지표 사례 분석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삶의 질 지표 현황, 지표 작성의 주체, 지표 구축 과정의 특징, 지표의 데이터 분석과 현재 세계의 삶의 질 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경제지표로서의 GDP는 사람들의 삶의 요소 중 물질적 조건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 일, 교육, 사회연결망이나 지속가능성 지향 등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한계가 있고, GDP 기준의 경제 지표만이 아니라 ‘사회발전’ 및 ‘삶의 질’이라는 삶의 포괄적인 영역을 측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 및 해외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삶의 질 개선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OECD는 2011년부터 Better Life Index를 발표하였고, OECD 가입국의 삶의 질 현황을 비교하고 있으며, UN의 행복보고서는 2012년부터 세계 150개국을 대상으로 갤럽의 전 세계 주관적 행복감 측정 조사, European Social Survey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국가 단위의 행복을 측정, 발표하고 있다. UN과 OECD 등의 국제기구 뿐 아니라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삶의 질 측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삶의 질 프로젝트는 주체별로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우 통계청이 단일기관으로 삶의 질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영국, 호주이며, 부탄은 정부기관인 부탄연구센터에서, 뉴질랜드는 시와 시의회의 통합 연구팀이 삶의 질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민간기관에서 수행되는 삶의 질 연구는 연구소, 대학, NGO 또는 각 주체들 간 협력으로 진행된다. 캐나다의 CIW는 워털루 대학의 응용보건학부를 중심으로 한 CIW 네트워크 그룹이, 호주의 삶의 질 지표는 Deakin 대학 내 호주 삶의 질 센터와 Australian Unity로 불리는 보험서비스단체의 협력 과제이다. 영국의 National Accounts of Wellbeing은 NPO 단체인 신경경제학재단(NEF: The New Economics Foundation)에서 추진한다.

이러한 지역단위, 국가단위의 삶의 질 지표 구축과 측정의 확산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행복이나 삶의 질 측정과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이 정치(精緻)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정책 활용성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삶의 질 지표에 대한 분석은 현재 상태를 과거와 대비해서 삶의 질 증감 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분석하여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영국이나 캐나다의 인포그래픽을 통한 자료제공이나 상호 호응 방식의 요약 등은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다음 그림 참조).



출처: ons.gov.uk

[그림 3-4] 영국 대화형 휠 (interactive wheel of measure)



출처: <http://u.waterloo.ca/canadian-index-wellbeing>

[그림 3-5] 캐나다 신호등(Canadian Index of Wellbeing Infographics)

04

서울형 행복지수 지표 체계

- 1_서울형 행복지표 구성
- 2_서울형 행복지수 측정 과정

04 | 서울형 행복지수 지표 체계

1_서울형 행복지표 구성

서울형 행복지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을 측정하는 다양한 논의들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서 시도되는 행복 측정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제 우리는 기존의 논의들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요소들을 모아 서울형 행복지표 체계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 과정은 먼저 ‘행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가와 연관된 문제인데 이미 언급한 것처럼 ‘행복’, ‘웰빙(Wellbeing)’,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등이 사람들의 행복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통용되는 것들이다. 이 중 가장 범용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이 ‘행복’과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이다. 더욱이 지역 정책이나 공공정책에서 ‘행복’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행복의 개념은 거주민의 삶의 만족도와 가장 깊이 관련된 개념이다⁸⁾.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질문방법으로 일반적인 것은 다음 3가지이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How happy are you now?)”, “당신은 어제 행복하셨나요?(How happy were you yesterday?)”, “요즘 들어 당신의 삶은 전반적으로 행복하십니까?(How happy are you with your life as a whole these days?)” 이러한 질문에 따른 측정 척도는 4점 척도(아주 행복, 행복, 약간 불행, 불행)에서부터 11점 척도(0점에서 10점까지)까지 다양하게 사용된다.

한편 이러한 직접적인 단일 질문으로 개인의 행복감을 측정하는 방식과 달리 OECD나 월드뱅크, 부탄의 행복지수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합(습)을 통해 그 지역의 행복지수를 산출한다. 상술하면 개인이나 공동체의 질 높은 삶에 영향을

⁸⁾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민의 삶의 만족도는 지역주민의 주거(housing) 그 자체와 관련된 부분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네이버후드의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특성이 지역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에 관심이 확장되면서 네이버후드 만족도와 거주이동률의 관련성을 예측하는 연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Gruber & Shelton, 1986; Grinstein-Weiss et al., 2011 등 참고).

미치는 변수들(건강,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네이버후드 특성 등)을 측정하여 그 총합으로서 그 지역민의 행복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오늘날 도시민의 삶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으며, 지역사회의 삶의 질과 행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를 모니터링해서 어떤 요인들을 개선할 것인지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다(Sirgy et al., 2006). 따라서 도시민의 행복한 삶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 관심은 주거, 네이버후드, 가족, 건강, 안정, 위생, 교육 등 지역공동체의 여러 측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요소들에 집중되고, 이러한 정책 판단을 위한 근거로서 행복지표 구축이 자리 잡고 있다. 포괄적 행복지표 혹은 삶의 질 지표 연구는 현재 북미,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도시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는 행복지표 연구의 이러한 공통 목표에 근거하여 서울형 행복지표를 구축하기 위해 전 세계 행복지표 체계들을 구성하고 있는 지표와 세부 지표 항목에 대해 텍스트 분석(Network Text Analysis, 이하 NTA)을 실시하였다. NTA의 기본개념은 내용 분석과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연계하여 텍스트에서 출현하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링크로 표시함으로써 구축되는 네트워크를 통해 현상을 해석하는 분석 기법으로, 텍스트에 기반한 양적 내용 분석의 새로운 연구 유형으로 등장하고 있다(Popping, 2000). 즉, 내용 분석을 통해 텍스트에 출현한 단어의 빈도 등 개체적 속성을 고찰하는 한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텍스트에 함께 출현하는 단어의 관계적 속성을 고찰하여 영역을 구성하는 텍스트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우리는 이러한 NTA를 행복지표의 공통성을 추출하는 지표추출의 방법으로 활용하여 서울형 행복 지표체계 구성을 시도하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텍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지표체계의 합(total)이며, 이 텍스트 안에서 가장 빈번하게 추출되는 지표의 쌍(pair)들을 확인하여 행복지표의 공통지표를 발굴하려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삶의 질과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평가지표들을 모두 모아 공통 항목 요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고, 공통 요소들을 추출하여 행복지표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자료를 구성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한 행복과 삶의 질 지표 체계들은 다음과 같다.

전 세계 행복지표 체계에서 가장 많은 빈도 지표는 ‘만족도’이다. 이는 ‘삶의 질 만족도’라는 ‘주관적 행복감’ 등을 동일 단어로 묶었다. 만족도를 중심으로 일상생활만족도와 일(직업)만족도, 다양한 사람들의 활동과 관련한 지표들이 행복지표 구성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안전 관련 지표, 범죄(발생) 관련 지표들이 정부와 커뮤니티 지표와 가장 큰 연계성을 보이면서 많이 출현한다. 다른 한편, 사회영역이 문화·여가·스포츠 시간, 예술 등과 관련하여 연계적으로 출현하며, 이는 다양성 측면과 관련이 있다. 직업은 경제요소, 주거요소, 일 등과 관련하여 출현하는 지표이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수명, 건강상태, 건강에 대한 인식 등의 지표 등이 연계되어 있으며, 참여지표는 활동과 연계되어 시간, 커뮤니티 자원봉사 등의 지표와 연관되어 있다. 여기서 도출된 지표영역을 근거로 전문가 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울형 행복지표 체계를 구축하였다.

[표 4-1] 서울형 행복지표 체계

영역	지표	산출방식	비고
경제	소득만족도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정도	정성
	경제활동인구	전 인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비율	정량
주거	주거비	가계수입에서 주택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정량
	1인당 평균 사용 방 수	방 수/가구원 수	정량
	기본 시설 측면	화장실 수/가구원 수	정량
일자리	직업안정성	지난 6개월간 고용되어 있는지 여부	정량
	개인수입	정규직의 연간 평균 수입	정량
	고용률	15~64세의 고용률(연간)	정량
	실업률	15~64세의 실업률(연간)	정량
인적 역량	교육능력	정규교육을 받은 기간	정량
	교육정도	25~64세 중 고등교육 이수율	정량
	교육만족도	교육환경에 만족하는 정도	정성
환경	수질오염	수질 만족도	정성
	환경오염	미세먼지 농도	정량
커뮤니티	사회적 유대	필요할 때(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또는 지인이 있는지 여부	정성
시민 참여	자원봉사율	자원봉사 참여 비율	정량
	투표율	최근 선거에서의 투표율(투표인 수/등록인 수)	정량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나쁘다로 평가	정성
	기대여명	어느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몇 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평균 생존연수	정량
안전	살인율	인구 100,000명당 살인건수	정량
	폭행률	폭행 및 강도로 인한 피해경험	정량
문화 여가	문화여가시간	개인의 문화와 여가에 보내는 시간	정량
	삶의 균형	장시간 근무비율	정량
생활 만족도	생활만족도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정성

[표 4-2] 서울형 행복지표와 OECD 지표 체계 비교

서울형 행복지표		OECD, Better Life Index	OECD Regional Wellbeing
영역	지표	지표	지표
경제	소득만족도		
	경제활동인구		
소득		가구당 금융순자산	
		가구당 순가처분소득	가구당 가처분소득
주거	주거비	주거 관련 지출	
	1인당 평균 사용 방수	개인당 방수	개인당 방수
	기본시설 측면	기본시설이 있는 가구	
일자리	직업안정성	직업안정	
	개인수입	개인소득	
	고용률	고용률	고용률
	실업률	장기 실업률	실업률
인적 역량 (교육)	교육능력	기대교육기간	
	교육정도	교육성취	교육성취
		학생들의 기술(PISA점수)	
	교육만족도		
환경	수질오염	수질	
	환경오염	대기의 질	대기의 질
커뮤 니티	사회적 유대	지원관계망의 질	
시민 참여	자원봉사율		
	투표율	투표참여율	투표참여율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자기보고 건강상태	
	기대여명	기대수명	기대수명
			사망률
안전	살인율	살인율	살인율
	폭행률		
문화 여가 (일과 삶의 균형)	문화여가시간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	
	삶의 균형	장시간 근로자	
서비스 접근성			인터넷 설치가구 비율
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	생활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	

우리는 서울형 행복지표 체계를 근거로 첫째, 서울시민이 스스로 생각하는 각 영역의 행복감을 측정하였고, 둘째, 서울형 행복지표 체계를 전 세계사람들의 행복감과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서울형 행복지표 체계에 대한 몇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서울형 행복지표 체계가 현재 세계 국가/도시의 삶의 질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OECD 지표 체계와 내용적으로는 거의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OECD의 삶의 질 지표 체계 역시 우리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지표 체계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유추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세계 국가와 비교하는 지표 체계의 특성을 구분할 때 몇 가지 지표를 OECD 지표에서 사용하는 영역으로 대체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세계 시민들과 서울 시민들이 생각하는 각 지표들이 자신들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평가하는 가중치 조사 작업을 통해 서울형 행복지수를 기준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세계 도시와의 비교를 시도한다.

2_서울형 행복지수 측정 과정

1) OECD BLI 행복지수 측정 과정

먼저 OECD가 사용한 행복 지표들의 계산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BLI 지표는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상태, 교육, 자연환경, 안전, 시민참여, 일과 삶의 균형, 사회적 유대,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 등 총 11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은 다시 1~4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돼 있다. 예를 들어 주거 영역의 경우, 총 3개의 세부 지표가 해당 영역을 구성하는데 화장실이 주택 내부에 설비돼 있는 거주지에 살고 있는 인구의 총비율, 주택 및 주택 유지비용이 총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평균 비중, 그리고 1인당 평균 사용 방 수가 그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지표들이 모두 다른 단위로 측정됐고 따라서 원측 값을 계산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OECD는 각각의 지표 값을 min-max의 방법으로 평준화하여 사용했는데, min-max 평준화 방법은 다음 도식에서 알 수 있듯이 관심 지표 값의 측정 단위 및 분포에 상관없이 원측 값을 모두 0과 1 사이에 오도록 한다.

$$Z_i = [x_i - \min(x)] / [\max(x) - \min(x)], \quad x = x_1, \dots, x_n$$

주거 영역과 같이 두 개 이상의 세부 지표들로 구성된 영역들은 해당 지표들의 평준화 값을 산술 평균하여 사용하였고 한 개의 지표로 구성된 영역은 해당 지표의 평준화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영역을 구성하는 세부 지표가 안녕에 반하는 부정적 의미를 가진 경우(예를 들어 안전 영역은 타살률과 지난 12개월 동안 범죄의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로 측정됐는데 이 둘의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안전 수준은 떨어짐), 해당 지표의 평준화 값은 1에서 원래의 평준화 값을 뺀 값으로 사용하였다.

$$Z_i = 1 - \{ [x_i - \min(x)] / [\max(x) - \min(x)] \}, \quad x = x_1, \dots, x_n$$

OECD는 이처럼 세부 지표들의 평준화 값으로 점수화된 11개 평가 영역들에 대해 모두 동일한 1의 가중치를 부여한 뒤 일괄 합산하는 방식으로 36개 국가들(34개 OECD 회원국 + 브라질, 러시아 등 2개 비회원국)의 안녕지수를 비교하였다.

2) 서울형 행복지수 지표의 가중치 산출을 위한 조사

어떻게 조사했나?

우리는 서울형 행복지수 산출을 위해 서울시민들이 생각하는 지표별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서울시 5대 권역(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을 토대로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5년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8일간 수행하였다. 조사내용은 [표 4-3]과 같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행복의 항목별 중요도 및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등 1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4-3] 서울형 행복지수 관련 시민의식 조사 설문내용

-
- 삶의 질 인식평가
-
- 행복의 항목별 중요도 평가
-
- 행복지표 세부 지표별 중요도 평가
 - 소득
 - 고용
 - 주거의 질
 - 건강상태
 - 학력과 기술
 - 자연환경의 질
 - 개인의 안전
 - 시민참여
 - 일과 삶의 균형
 - 사회적 유대
 -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
-
- 항목별 만족도 평가
-

응답자의 특성은 [표 4-4]와 같다.

[표 4-4] 조사 응답자의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1,000	100.0
성별	남자	487	48.7
	여자	513	51.3
연령별	만 19~29세	190	19.0
	30대	205	20.5
	40대	205	20.5
	50대	190	19.0
	60대 이상	210	21.0
권역별	도심권	52	5.2
	동북권	317	31.7
	서북권	117	11.7
	서남권	303	30.3
	동남권	211	21.1
학력별	중학교 졸업 이하	113	11.3
	고등학교 졸업	361	36.1
	전문대 졸업	122	12.2
	대학교 졸업 이상	404	40.4
혼인상태	기혼	723	72.3
	미혼	239	23.9
	이혼/별거	22	2.2
	사별	16	1.6
가족 수(본인 포함)	1명	164	16.4
	2명	136	13.6
	3명	259	25.9
	4명 이상	441	44.1
자녀 수	없음	334	33.4
	1명	182	18.2
	2명	437	43.7
	3명 이상	47	4.7
직업별	화이트칼라	245	24.5
	블루칼라	431	43.1
	주부	233	23.3
	학생	62	6.2
	무직/기타	29	2.9
고용형태	고용주	59	8.7
	단독 자영업자	111	16.3
	임시/일용/무급 종사자	509	75.0
주택점유형태	자가	525	52.5
	전세	274	27.4
	보증부 월세	193	19.3
	기타	8	.8
거주주택유형	아파트	507	50.7
	연립주택	351	35.1
	단독주택	139	13.9
	기타	3	0.3

행복의 항목별 중요도 평가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와 나의 행복을 위한 중요도를 OECD 지표 11개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에서는 5점 만점을 기준으로 건강상태(4.64점), 소득(4.55점), 고용여부(4.40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의 행복을 위한 중요도에서는 건강상태(4.55점), 소득(4.39점), 개인의 안전(4.23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중치 비교를 한 결과 고용여부, 건강상태, 학력과 기술, 사회적 유대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			VS.	나의 행복을 위한 중요도		
	중요도 (5점 평균)	가중치	가중치 GAP (A-B)		중요도 (5점 평균)	가중치
소득	4.55	0.09974	-0.00005 ▼	소득	4.39	0.09979
고용여부	4.40	0.09630	0.00132* ▲	고용여부	4.19	0.09498
주거의 질	4.16	0.09096	-0.00040 ▼	주거의 질	4.03	0.09136
건강상태	4.64	0.10188	-0.00163* ▼	건강상태	4.55	0.10351
학력과 기술	3.90	0.08517	0.00223* ▲	학력과 기술	3.67	0.08294
자연환경의 질	4.00	0.08728	0.00066 ▲	자연환경의 질	3.82	0.08662
개인의 안전	4.37	0.09569	-0.00021 ▼	개인의 안전	4.23	0.09590
시민 참여	3.46	0.07523	0.00012 ▲	시민 참여	3.32	0.07511
일과 삶의 균형	4.19	0.09149	-0.00025 ▼	일과 삶의 균형	4.05	0.09174
사회적 유대	3.91	0.08519	-0.00138* ▼	사회적 유대	3.82	0.08657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	4.17	0.09106	-0.00042 ▼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	4.04	0.09148

주 1: 중요도(5점 만점) = 0~5점 사이 척도의 산술평균

주 2: 항목의 개별 가중치 = $\frac{\text{중요도}_i}{\sum_{i=1}^n \text{중요도}_i}$ (i= 항목)

[그림 4-2]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 vs 나의 행복을 위한 중요도 일반지표 결과

OECD 지표 이외에 우리가 서울형 행복지표 구축에서 중요한 변수로 본 사람에 대한 신뢰, 사회제도/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문화생활 등 추가적인 변수를 투입한 후에도 건강상태와 소득이 일반적인 행복 중요도와 나의 행복 중요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			VS.	나의 행복을 위한 중요도		
	중요도 (5점 평균)	가중치	가중치 GAP (A-B)		중요도 (5점 평균)	가중치
소득	4.55	0.07929	0.00001 ▲	소득	4.39	0.07928
고용여부	4.40	0.07658	0.00110 ▲	고용여부	4.19	0.07548
주거의질	4.16	0.07230	-0.00028 ▼	주거의질	4.03	0.07258
건강상태	4.64	0.08096	-0.00124 ▼	건강상태	4.55	0.08220
역력과 기술	3.90	0.06770	0.00182 ▲	역력과 기술	3.67	0.06588
자연환경의질	4.00	0.06937	0.00059 ▲	자연환경의질	3.82	0.06878
개인의안전	4.37	0.07605	-0.00010 ▼	개인의안전	4.23	0.07615
시민 참여	3.46	0.05979	0.00012 ▲	시민 참여	3.32	0.05967
일과 삶의 균형	4.19	0.07272	-0.00015 ▼	일과 삶의 균형	4.05	0.07287
사회적 유대	3.91	0.06771	-0.00102 ▼	사회적 유대	3.82	0.06873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	4.17	0.07233	-0.00028 ▼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	4.04	0.07261
사람에 대한 신뢰	4.17	0.07250	-0.00070 ▼	사람에 대한 신뢰	4.07	0.07320
사회제도/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3.81	0.06602	0.00019 ▲	사회제도/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3.66	0.06583
문화생활	3.84	0.06668	-0.00007 ▼	문화생활	3.71	0.066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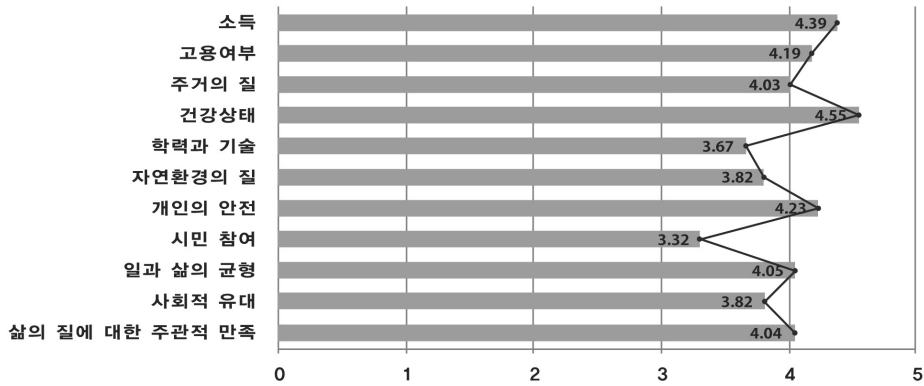
주 1: 중요도(5점 만점)= 0~5점 사이 척도의 산술평균

주 2: 항목의 개별 가중치 = $\frac{\text{중요도}_i}{\sum_{i=1}^n \text{중요도}_i}$ (i= 항목)

[그림 4-3]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 vs 나의 행복을 위한 중요도 추가지표 결과

행복의 항목별 세부지표 중요도 평가

항목별 세부지표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주관적 건강상태(4.4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용여부의 직업 안정성의 중요도(4.38점)가 높게 나타났다([표 4-5] 참조).



[그림 4-4] 나의 행복을 위한 중요도(5점 만점)

[표 4-5] 행복의 항목별 세부지표 중요도 평가

	지표	지표별 중요도	지표 산술 평균	가중치
		(5점 만점)		
소득	평균 가구 순-조정가처분소득	4.25	4.2	0.09646
	가계재무자산	4.15		
고용여부	직업 인정성	4.38	4.09	0.09372
	개인수입	4.26		
	고용률	3.97		
	실업률	3.75		
주거의 질	주거비 비율	4.03	3.89	0.08941
	1인당 평균 사용 방 수	3.82		
	기본 편의시설	3.83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4.4	4.13	0.09477
	기대수명	3.86		
학력과 기술	평균 교육기간	3.8	3.68	0.08424
	학생 역량	3.52		
	교육 정도	3.73		
자연환경의 질	대기오염 정도	4.12	4.1	0.09367
	수질 만족도	4.09		
개인의 안전	살인율	4.03	3.99	0.09121
	폭행 및 강도로 인한 피해경험	3.94		
시민 참여	법을 제정의 투명성	3.88	3.68	0.08416
	투표율	3.49		
일과 삶의 균형	레저와 자기관리에 투자하는 시간	3.94	3.89	0.08889
	장시간 근무 비율	3.84		
사회적 유대	사회연계망을 통한 지지	3.97	3.97	0.09109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	주관적 안녕(wellbeing)	4.04	4.04	0.09237

3) 행복지표별 중요도 평가

(1) 소득

소득의 경우,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는 4.55점, 나의 행복을 위한 중요도는 4.39점으로,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가 0.16점 높았다. 권역별로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소득의 중요도는 도심권이 4.83점으로 가장 높고, 서북권이 4.26점으로 가장 낮았다. 나의 행복을 위한 소득의 중요도는 권역별로 도심권이 4.69점으로 가장 높고, 서북권이 4.15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4-6] 소득 중요도

		사례 수	일반적 행복(A)	나의 행복(B)	평균 GAP (A-B)
			평균(5점 만점)	평균(5점 만점)	
전체		(1,000)	4.55	4.39	0.16▲
연령별	만 19~29세	(190)	4.55	4.36	0.19▲
	30대	(205)	4.58	4.41	0.17▲
	40대	(205)	4.62	4.42	0.20▲
	50대	(190)	4.54	4.52	0.02▲
	60대 이상	(210)	4.46	4.25	0.21▲
권역별	도심권	(52)	4.83	4.69	0.14▲
	동북권	(317)	4.52	4.47	0.05▲
	서북권	(117)	4.26	4.15	0.11▲
	서남권	(303)	4.61	4.25	0.36▲
	동남권	(211)	4.59	4.52	0.07▲
학력별	중졸 이하	(113)	4.57	4.44	0.13▲
	고등학교 졸업	(361)	4.49	4.33	0.16▲
	전문대 졸업	(122)	4.54	4.47	0.07▲
	대졸 이상	(404)	4.60	4.41	0.19▲
혼인 상태	기혼	(723)	4.54	4.40	0.14▲
	미혼	(239)	4.57	4.38	0.19▲
	이혼/별거	(22)	4.50	4.41	0.09▲
	사별	(16)	4.63	4.31	0.32▲
직업별	화이트칼라	(245)	4.64	4.46	0.18▲
	블루칼라	(431)	4.54	4.40	0.14▲
	주부	(233)	4.53	4.38	0.15▲
	학생	(62)	4.52	4.26	0.26▲
	무직/기타	(29)	4.17	4.03	0.14▲

(2) 고용여부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행복 관련 항목 중 고용여부의 경우,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는 4.40점, 나의 행복을 위한 중요도는 4.19점으로,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가 0.21점 높았다.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고용여부의 중요도는 권역별로 서북권이 4.52점으로 가장 높고, 서남권이 4.30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나의 행복을 위한 고용여부의 중요도는 권역별로 도심권이 4.40점으로 가장 높고, 서남권이 3.90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4-7] 고용 중요도

		사례 수	일반적 행복(A)	나의 행복(B)	평균 GAP (A-B)
			평균(5점 만점)	평균(5점 만점)	
전체		(1,000)	4.40	4.19	0.21▲
연령별	만 19~29세	(190)	4.41	4.34	0.07▲
	30대	(205)	4.45	4.31	0.14▲
	40대	(205)	4.44	4.26	0.18▲
	50대	(190)	4.40	4.21	0.19▲
	60대 이상	(210)	4.29	3.86	0.43▲
권역별	도심권	(52)	4.50	4.40	0.10▲
	동북권	(317)	4.48	4.30	0.18▲
	서북권	(117)	4.52	4.37	0.15▲
	서남권	(303)	4.30	3.90	0.40▲
	동남권	(211)	4.32	4.31	0.01▲
학력별	중졸 이하	(113)	4.35	4.06	0.29▲
	고등학교 졸업	(361)	4.29	4.02	0.27▲
	전문대 졸업	(122)	4.39	4.30	0.09▲
	대졸 이상	(404)	4.51	4.35	0.16▲
혼인 상태	기혼	(723)	4.39	4.14	0.25▲
	미혼	(239)	4.43	4.35	0.08▲
	이혼/별거	(22)	4.41	4.50	-0.09▼
	사별	(16)	4.19	3.81	0.38▲
직업별	화이트칼라	(245)	4.55	4.49	0.06▲
	블루칼라	(431)	4.35	4.14	0.21▲
	주부	(233)	4.36	3.97	0.39▲
	학생	(62)	4.40	4.34	0.06▲
	무직/기타	(29)	4.17	4.03	0.14▲

(3) 주거의 질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행복 관련 항목 중 주거의 질의 경우,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는 4.16점, 나의 행복을 위한 중요도는 4.03점으로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가 0.13점 높았다.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주거의 질의 중요도는 권역별로 도심권이 4.38점으로 가장 높고, 동남권이 4.08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나의 행복을 위한 주거의 질의 중요도는 권역별로 도심권이 4.27점으로 가장 높고, 서남권이 3.95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4-8] 주거의 질 중요도

		사례 수	일반적 행복(A)	나의 행복(B)	평균 GAP (A-B)
			평균(5점 만점)	평균(5점 만점)	
전체		(1,000)	4.16	4.03	0.13▲
연령별	만 19~29세	(190)	4.14	3.93	0.21▲
	30대	(205)	4.17	4.11	0.06▲
	40대	(205)	4.20	4.06	0.14▲
	50대	(190)	4.13	4.05	0.08▲
	60대 이상	(210)	4.19	4.00	0.19▲
권역별	도심권	(52)	4.38	4.27	0.11▲
	동북권	(317)	4.15	3.99	0.16▲
	서북권	(117)	4.32	4.10	0.22▲
	서남권	(303)	4.14	3.95	0.19▲
	동남권	(211)	4.08	4.10	-0.02▼
학력별	중졸 이하	(113)	4.17	3.93	0.24▲
	고등학교 졸업	(361)	4.14	4.06	0.08▲
	전문대 졸업	(122)	4.03	4.00	0.03▲
	대졸 이상	(404)	4.22	4.04	0.18▲
혼인 상태	기혼	(723)	4.16	4.04	0.12▲
	미혼	(239)	4.14	3.96	0.18▲
	이혼/별거	(22)	4.45	4.23	0.22▲
	사별	(16)	4.44	4.25	0.19▲
직업별	화이트칼라	(245)	4.17	4.05	0.12▲
	블루칼라	(431)	4.09	3.95	0.14▲
	주부	(233)	4.31	4.19	0.12▲
	학생	(62)	4.05	3.92	0.13▲
	무직/기타	(29)	4.21	4.03	0.18▲

(4) 건강상태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행복 관련 항목 중 건강상태의 경우,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는 4.64점, 나의 행복을 위한 중요도는 4.55점으로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가 0.09점 높았다.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주관적 건강상태의 중요도는 권역별로 서남권이 4.75점으로 가장 높고, 동북권이 4.52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나의 행복을 위한 건강상태의 중요도는 권역별로 서북권이 4.73점으로 가장 높고, 동북권이 4.45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4-9] 건강상태 중요도

		사례 수	일반적 행복(A)	나의 행복(B)	평균 GAP (A-B)
			평균(5점 만점)	평균(5점 만점)	
전체		(1,000)	4.64	4.55	0.09▲
연령별	만 19~29세	(190)	4.58	4.53	0.05▲
	30대	(205)	4.55	4.50	0.05▲
	40대	(205)	4.65	4.57	0.08▲
	50대	(190)	4.67	4.56	0.11▲
	60대 이상	(210)	4.72	4.58	0.14▲
권역별	도심권	(52)	4.69	4.62	0.07▲
	동북권	(317)	4.52	4.45	0.07▲
	서북권	(117)	4.66	4.73	-0.07▼
	서남권	(303)	4.75	4.57	0.18▲
	동남권	(211)	4.62	4.55	0.07▲
학력별	중졸 이하	(113)	4.70	4.55	0.15▲
	고등학교 졸업	(361)	4.64	4.55	0.09▲
	전문대 졸업	(122)	4.64	4.66	-0.02▼
	대졸 이상	(404)	4.62	4.51	0.11▲
혼인 상태	기혼	(723)	4.64	4.55	0.09▲
	미혼	(239)	4.62	4.53	0.09▲
	이혼/별거	(22)	4.55	4.50	0.05▲
	사별	(16)	4.81	4.69	0.12▲
직업별	화이트칼라	(245)	4.64	4.56	0.08▲
	블루칼라	(431)	4.64	4.54	0.10▲
	주부	(233)	4.65	4.57	0.08▲
	학생	(62)	4.56	4.50	0.06▲
	무직/기타	(29)	4.62	4.48	0.14▲

(5) 학력과 기술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행복 관련 항목 중 학력과 기술의 경우,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는 3.90점, 나의 행복을 위한 중요도는 3.67점으로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가 0.23점 높았다. 학력과 기술의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와 나의 행복을 위한 중요도 모두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높았다.

[표 4-10] 학력과 기술 중요도

		사례 수	일반적 행복(A)	나의 행복(B)	평균 GAP (A-B)
			평균(5점 만점)	평균(5점 만점)	
전체		(1,000)	3.90	3.67	0.23▲
연령별	만 19~29세	(190)	4.02	3.82	0.20▲
	30대	(205)	4.04	3.73	0.31▲
	40대	(205)	3.89	3.74	0.15▲
	50대	(190)	3.79	3.62	0.17▲
	60대 이상	(210)	3.77	3.44	0.33▲
권역별	도심권	(52)	4.63	4.40	0.23▲
	동북권	(317)	3.85	3.58	0.27▲
	서북권	(117)	3.99	3.71	0.28▲
	서남권	(303)	4.00	3.73	0.27▲
	동남권	(211)	3.61	3.50	0.11▲
학력별	중졸 이하	(113)	3.71	3.44	0.27▲
	고등학교 졸업	(361)	3.83	3.57	0.26▲
	전문대 졸업	(122)	3.96	3.67	0.29▲
	대졸 이상	(404)	4.00	3.82	0.18▲
혼인 상태	기혼	(723)	3.86	3.61	0.25▲
	미혼	(239)	4.02	3.82	0.20▲
	이혼/별거	(22)	3.86	3.68	0.18▲
	사별	(16)	4.06	3.75	0.31▲
직업별	화이트칼라	(245)	3.93	3.79	0.14▲
	블루칼라	(431)	3.86	3.64	0.22▲
	주부	(233)	3.94	3.61	0.33▲
	학생	(62)	3.97	3.77	0.20▲
	무직/기타	(29)	3.83	3.34	0.49▲

(6) 자연환경의 질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행복 관련 항목 중 자연환경의 질의 경우,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는 4.00점, 나의 행복을 위한 중요도는 3.82점으로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가 0.18점 높았다.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자연환경의 질 중요도는 권역별로 서북권이 4.32점으로 가장 높고, 동남권이 3.82점으로 가장 낮았다. 나의 행복을 위한 자연환경의 질 중요도는 권역별로 서북권이 4.29점으로 가장 높고, 동북권이 3.71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4-11] 자연환경의 질 중요도

		사례 수	일반적 행복(A)	나의 행복(B)	평균 GAP (A-B)
			평균(5점 만점)	평균(5점 만점)	
전체		(1,000)	4.00	3.82	0.18▲
연령별	만 19~29세	(190)	3.95	3.74	0.21▲
	30대	(205)	3.95	3.81	0.14▲
	40대	(205)	4.03	3.87	0.16▲
	50대	(190)	4.04	3.89	0.15▲
	60대 이상	(210)	4.03	3.80	0.23▲
권역별	도심권	(52)	4.29	3.92	0.37▲
	동북권	(317)	4.00	3.71	0.29▲
	서북권	(117)	4.32	4.29	0.03▲
	서남권	(303)	3.95	3.73	0.22▲
	동남권	(211)	3.82	3.83	-0.01▼
학력별	중졸 이하	(113)	4.01	3.78	0.23▲
	고등학교 졸업	(361)	4.03	3.84	0.19▲
	전문대 졸업	(122)	3.83	3.69	0.14▲
	대졸 이상	(404)	4.02	3.86	0.16▲
혼인 상태	기혼	(723)	4.01	3.85	0.16▲
	미혼	(239)	3.97	3.74	0.23▲
	이혼/별거	(22)	4.14	4.00	0.14▲
	사별	(16)	4.13	3.63	0.50▲
직업별	화이트칼라	(245)	3.99	3.86	0.13▲
	블루칼라	(431)	3.97	3.77	0.20▲
	주부	(233)	4.08	3.89	0.19▲
	학생	(62)	3.95	3.71	0.24▲
	무직/기타	(29)	3.97	4.00	-0.03▼

(7) 개인의 안전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행복 관련 항목 중 개인의 안전의 경우,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는 4.37점, 나의 행복을 위한 중요도는 4.23점으로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가 0.14점 높았다.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개인의 안전 중요도는 권역별로 도심권이 4.71점으로 가장 높고, 동북권이 4.26점으로 가장 낮았다. 나의 행복을 위한 개인의 안전 중요도는 권역별로 도심권 및 서북권이 4.44점으로 가장 높고, 동남권이 4.16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4-12] 개인의 안전 중요도

		사례 수	일반적 행복(A)	나의 행복(B)	평균 GAP (A-B)
			평균(5점 만점)	평균(5점 만점)	
전체		(1,000)	4.37	4.23	0.14▲
연령별	만 19~29세	(190)	4.36	4.29	0.07▲
	30대	(205)	4.36	4.18	0.18▲
	40대	(205)	4.37	4.21	0.16▲
	50대	(190)	4.32	4.29	0.03▲
	60대 이상	(210)	4.43	4.16	0.27▲
권역별	도심권	(52)	4.71	4.44	0.27▲
	동북권	(317)	4.26	4.18	0.08▲
	서북권	(117)	4.45	4.44	0.01▲
	서남권	(303)	4.45	4.20	0.25▲
	동남권	(211)	4.28	4.16	0.12▲
학력별	중졸 이하	(113)	4.35	4.17	0.18▲
	고등학교 졸업	(361)	4.39	4.26	0.13▲
	전문대 졸업	(122)	4.36	4.22	0.14▲
	대졸 이상	(404)	4.35	4.22	0.13▲
혼인 상태	기혼	(723)	4.35	4.22	0.13▲
	미혼	(239)	4.37	4.25	0.12▲
	이혼/별거	(22)	4.50	4.27	0.23▲
	사별	(16)	4.88	4.31	0.57▲
직업별	화이트칼라	(245)	4.38	4.24	0.14▲
	블루칼라	(431)	4.35	4.20	0.15▲
	주부	(233)	4.39	4.27	0.12▲
	학생	(62)	4.31	4.27	0.04▲
	무직/기타	(29)	4.41	4.07	0.34▲

(8) 시민 참여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행복 관련 항목 중 시민 참여의 경우,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는 3.46점, 나의 행복을 위한 중요도는 3.32점으로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가 0.14점 높았다.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시민 참여 중요도는 권역별로 도심권이 4.19점으로 가장 높고, 동남권이 3.14점으로 가장 낮았다. 나의 행복을 위한 시민 참여 중요도는 권역별로 도심권이 4.00점으로 가장 높고, 서남권 및 동남권이 3.20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4-13] 시민 참여 중요도

		사례 수	일반적 행복(A)	나의 행복(B)	평균 GAP (A-B)
			평균(5점 만점)	평균(5점 만점)	
전체		(1,000)	3.46	3.32	0.14▲
연령별	만 19~29세	(190)	3.47	3.30	0.17▲
	30대	(205)	3.47	3.35	0.12▲
	40대	(205)	3.45	3.35	0.10▲
	50대	(190)	3.40	3.29	0.11▲
	60대 이상	(210)	3.49	3.32	0.17▲
권역별	도심권	(52)	4.19	4.00	0.19▲
	동북권	(317)	3.54	3.39	0.15▲
	서북권	(117)	3.54	3.37	0.17▲
	서남권	(303)	3.43	3.20	0.23▲
	동남권	(211)	3.14	3.20	-0.06▼
학력별	중졸 이하	(113)	3.34	3.19	0.15▲
	고등학교 졸업	(361)	3.43	3.34	0.09▲
	전문대 졸업	(122)	3.30	3.23	0.07▲
	대졸 이상	(404)	3.55	3.37	0.18▲
혼인 상태	기혼	(723)	3.43	3.32	0.11▲
	미혼	(239)	3.49	3.30	0.19▲
	이혼/별거	(22)	3.68	3.41	0.27▲
	사별	(16)	3.75	3.50	0.25▲
직업별	화이트칼라	(245)	3.47	3.33	0.14▲
	블루칼라	(431)	3.45	3.34	0.11▲
	주부	(233)	3.51	3.33	0.18▲
	학생	(62)	3.27	3.13	0.14▲
	무직/기타	(29)	3.41	3.28	0.13▲

(9) 일과 삶의 균형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행복 관련 항목 중 일과 삶의 균형의 경우,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는 4.19점, 나의 행복을 위한 중요도는 4.05점으로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가 0.14점 높았다.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일과 삶의 균형 중요도는 권역별로 도심권이 4.58점으로 가장 높고, 동남권이 4.07점으로 가장 낮았다. 나의 행복을 위한 일과 삶의 균형 중요도는 권역별로 도심권이 4.31점으로 가장 높고, 동남권이 3.94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4-14] 일과 삶의 균형 중요도

		사례 수	일반적 행복(A)	나의 행복(B)	평균 GAP (A-B)
			평균(5점 만점)	평균(5점 만점)	
전체		(1,000)	4.19	4.05	0.14▲
연령별	만 19~29세	(190)	4.18	4.09	0.09▲
	30대	(205)	4.20	4.07	0.13▲
	40대	(205)	4.24	4.12	0.12▲
	50대	(190)	4.20	4.06	0.14▲
	60대 이상	(210)	4.13	3.90	0.23▲
권역별	도심권	(52)	4.58	4.31	0.27▲
	동북권	(317)	4.19	4.08	0.11▲
	서북권	(117)	4.31	4.17	0.14▲
	서남권	(303)	4.16	4.00	0.16▲
	동남권	(211)	4.07	3.94	0.13▲
학력별	중졸 이하	(113)	4.19	3.98	0.21▲
	고등학교 졸업	(361)	4.18	3.94	0.24▲
	전문대 졸업	(122)	4.28	4.16	0.12▲
	대졸 이상	(404)	4.17	4.13	0.04▲
혼인 상태	기혼	(723)	4.16	4.01	0.15▲
	미혼	(239)	4.22	4.11	0.11▲
	이혼/별거	(22)	4.68	4.41	0.27▲
	사별	(16)	4.25	4.19	0.06▲
직업별	화이트칼라	(245)	4.26	4.19	0.07▲
	블루칼라	(431)	4.15	4.06	0.09▲
	주부	(233)	4.22	3.88	0.34▲
	학생	(62)	4.08	4.06	0.02▲
	무직/기타	(29)	4.14	3.93	0.21▲

(10) 사회적 유대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행복 관련 항목 중 사회적 유대의 경우,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는 3.91점, 나의 행복을 위한 중요도는 3.82점으로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가 0.09점 높았다.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사회적 유대 중요도는 권역별로 도심권이 4.62점으로 가장 높고, 동남권이 3.69점으로 가장 낮았다. 나의 행복을 위한 사회적 유대 중요도는 권역별로 도심권이 4.60점으로 가장 높고, 동북권이 3.69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4-15] 사회적 유대 중요도

		사례 수	일반적 행복(A)	나의 행복(B)	평균 GAP (A-B)
			평균(5점 만점)	평균(5점 만점)	
전체		(1,000)	3.91	3.82	0.09▲
연령별	만 19~29세	(190)	3.89	3.85	0.04▲
	30대	(205)	3.93	3.87	0.06▲
	40대	(205)	3.96	3.86	0.10▲
	50대	(190)	3.89	3.85	0.04▲
	60대 이상	(210)	3.87	3.70	0.17▲
권역별	도심권	(52)	4.62	4.60	0.02▲
	동북권	(317)	3.95	3.81	0.14▲
	서북권	(117)	3.85	3.86	-0.01▼
	서남권	(303)	3.91	3.78	0.13▲
	동남권	(211)	3.69	3.69	0.00▲
학력별	중졸 이하	(113)	3.86	3.73	0.13▲
	고등학교 졸업	(361)	3.89	3.75	0.14▲
	전문대 졸업	(122)	3.79	3.73	0.06▲
	대졸 이상	(404)	3.98	3.94	0.04▲
혼인 상태	기혼	(723)	3.88	3.78	0.10▲
	미혼	(239)	3.93	3.90	0.03▲
	이혼/별거	(22)	4.32	4.23	0.09▲
	사별	(16)	4.00	4.06	-0.06▼
직업별	화이트칼라	(245)	4.00	3.96	0.04▲
	블루칼라	(431)	3.86	3.83	0.03▲
	주부	(233)	3.91	3.70	0.21▲
	학생	(62)	3.82	3.74	0.08▲
	무직/기타	(29)	3.90	3.66	0.24▲

(11)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행복 관련 항목 중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의 경우,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는 4.17점, 나의 행복을 위한 중요도는 4.04점으로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가 0.13점 높았다.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주관적 만족 중요도는 권역별로 도심권이 4.52점으로 가장 높고, 동남권이 3.88점으로 가장 낮았다. 나의 행복을 위한 주관적 만족 중요도도 권역별로 도심권이 4.40점으로 가장 높고, 동남권이 3.78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4-16]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 중요도

		사례 수	일반적 행복(A)	나의 행복(B)	평균 GAP (A-B)
			평균(5점 만점)	평균(5점 만점)	
전체		(1,000)	4.17	4.04	0.13▲
연령별	만 19~29세	(190)	4.19	4.11	0.08▲
	30대	(205)	4.22	4.05	0.17▲
	40대	(205)	4.21	4.13	0.08▲
	50대	(190)	4.10	3.99	0.11▲
	60대 이상	(210)	4.11	3.92	0.19▲
권역별	도심권	(52)	4.52	4.40	0.12▲
	동북권	(317)	4.11	4.05	0.06▲
	서북권	(117)	4.40	4.25	0.15▲
	서남권	(303)	4.28	4.06	0.22▲
	동남권	(211)	3.88	3.78	0.10▲
학력별	중졸 이하	(113)	4.20	4.10	0.10▲
	고등학교 졸업	(361)	4.11	3.94	0.17▲
	전문대 졸업	(122)	4.27	4.18	0.09▲
	대졸 이상	(404)	4.18	4.07	0.11▲
혼인 상태	기혼	(723)	4.14	4.00	0.14▲
	미혼	(239)	4.24	4.11	0.13▲
	이혼/별거	(22)	4.32	4.27	0.05▲
	사별	(16)	4.31	4.25	0.06▲
직업별	화이트칼라	(245)	4.23	4.11	0.12▲
	블루칼라	(431)	4.17	4.01	0.16▲
	주부	(233)	4.15	4.05	0.10▲
	학생	(62)	4.08	4.06	0.02▲
	무직/기타	(29)	3.90	3.66	0.24▲

(12) 사람에 대한 신뢰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행복 관련 항목 중 사람에 대한 신뢰의 경우,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는 4.17점, 나의 행복을 위한 중요도는 4.07점으로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가 0.10점 높았다.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사람에 대한 신뢰 중요도는 권역별로 도심권이 4.56점으로 가장 높고, 동남권이 4.02점으로 가장 낮았다. 나의 행복을 위한 사람에 대한 신뢰 중요도도 권역별로 도심권이 4.60점으로 가장 높고, 동남권이 3.97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4-17] 사람에 대한 신뢰 중요도

		사례 수	일반적 행복(A)	나의 행복(B)	평균 GAP (A-B)
			평균(5점 만점)	평균(5점 만점)	
전체		(1,000)	4.17	4.07	0.10▲
연령별	만 19~29세	(190)	4.18	4.09	0.09▲
	30대	(205)	4.14	4.12	0.02▲
	40대	(205)	4.17	4.07	0.10▲
	50대	(190)	4.16	4.06	0.10▲
	60대 이상	(210)	4.20	3.99	0.21▲
권역별	도심권	(52)	4.56	4.60	-0.04▼
	동북권	(317)	4.16	4.04	0.12▲
	서북권	(117)	4.36	4.26	0.10▲
	서남권	(303)	4.15	3.99	0.16▲
	동남권	(211)	4.02	3.97	0.05▲
학력별	중졸 이하	(113)	4.24	4.11	0.13▲
	고등학교 졸업	(361)	4.13	4.00	0.13▲
	전문대 졸업	(122)	4.12	4.11	0.01▲
	대졸 이상	(404)	4.20	4.10	0.10▲
혼인 상태	기혼	(723)	4.15	4.04	0.11▲
	미혼	(239)	4.18	4.11	0.07▲
	이혼/별거	(22)	4.32	4.41	-0.09▼
	사별	(16)	4.50	4.13	0.37▲
직업별	화이트칼라	(245)	4.19	4.14	0.05▲
	블루칼라	(431)	4.14	4.06	0.08▲
	주부	(233)	4.23	4.03	0.20▲
	학생	(62)	4.18	3.95	0.23▲
	무직/기타	(29)	4.00	3.90	0.10▲

(13) 사회제도/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행복 관련 항목 중 사회제도/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의 경우,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는 3.81점, 나의 행복을 위한 중요도는 3.66점으로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가 0.15점 높았다.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사회제도/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중요도는 권역별로 도심권이 4.62점으로 가장 높고, 동남권이 3.63점으로 가장 낮았다. 나의 행복을 위한 사회제도/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중요도는 권역별로 도심권이 4.48점으로 가장 높고, 서남권이 3.53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4-18] 사회제도/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중요도

		사례 수	일반적 행복(A)	나의 행복(B)	평균 GAP (A-B)
			평균(5점 만점)	평균(5점 만점)	
전체		(1,000)	3.81	3.66	0.15▲
연령별	만 19~29세	(190)	3.83	3.69	0.14▲
	30대	(205)	3.81	3.69	0.12▲
	40대	(205)	3.77	3.66	0.11▲
	50대	(190)	3.81	3.66	0.15▲
	60대 이상	(210)	3.82	3.61	0.21▲
권역별	도심권	(52)	4.62	4.48	0.14▲
	동북권	(317)	3.77	3.65	0.12▲
	서북권	(117)	4.07	3.85	0.22▲
	서남권	(303)	3.73	3.53	0.20▲
	동남권	(211)	3.63	3.57	0.06▲
학력별	중졸 이하	(113)	3.81	3.58	0.23▲
	고등학교 졸업	(361)	3.80	3.61	0.19▲
	전문대 졸업	(122)	3.61	3.61	0.00
	대졸 이상	(404)	3.87	3.74	0.13▲
혼인 상태	기혼	(723)	3.77	3.64	0.13▲
	미혼	(239)	3.86	3.70	0.16▲
	이혼/별거	(22)	3.95	3.86	0.09▲
	사별	(16)	4.25	3.88	0.37▲
직업별	화이트칼라	(245)	3.89	3.73	0.16▲
	블루칼라	(431)	3.74	3.64	0.10▲
	주부	(233)	3.82	3.65	0.17▲
	학생	(62)	3.90	3.73	0.17▲
	무직/기타	(29)	3.69	3.45	0.24▲

(14) 문화생활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행복 관련 항목 중 문화생활의 경우,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는 3.84점, 나의 행복을 위한 중요도는 3.71점으로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가 0.13점 높았다.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문화생활 중요도와 나의 행복을 위한 문화생활 중요도 모두 연령이 낮아질수록 높았다.

[표 4-19] 문화생활 중요도

		사례 수	일반적 행복(A)	나의 행복(B)	평균 GAP (A-B)
			평균(5점 만점)	평균(5점 만점)	
전체		(1,000)	3.84	3.71	0.13▲
연령별	만 19~29세	(190)	3.97	3.95	0.02▲
	30대	(205)	3.89	3.77	0.12▲
	40대	(205)	3.81	3.77	0.04▲
	50대	(190)	3.77	3.59	0.18▲
	60대 이상	(210)	3.77	3.50	0.27▲
권역별	도심권	(52)	4.31	3.88	0.43▲
	동북권	(317)	3.68	3.61	0.07▲
	서북권	(117)	4.05	3.91	0.14▲
	서남권	(303)	3.90	3.72	0.18▲
	동남권	(211)	3.77	3.72	0.05▲
학력별	중졸 이하	(113)	3.72	3.51	0.21▲
	고등학교 졸업	(361)	3.81	3.60	0.21▲
	전문대 졸업	(122)	3.78	3.79	-0.01▼
	대졸 이상	(404)	3.92	3.84	0.08▲
혼인 상태	기혼	(723)	3.77	3.65	0.12▲
	미혼	(239)	4.01	3.89	0.12▲
	이혼/별거	(22)	4.00	3.86	0.14▲
	사별	(16)	4.50	3.63	0.87▲
직업별	화이트칼라	(245)	3.93	3.88	0.05▲
	블루칼라	(431)	3.77	3.58	0.19▲
	주부	(233)	3.87	3.76	0.11▲
	학생	(62)	3.90	3.92	-0.02▼
	무직/기타	(29)	3.79	3.41	0.38▲

4) 행복의 항목별 세부지표 중요도 평가

행복의 항목별 세부지표에 대한 중요도 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면 소득 항목의 세부 지표는 평균 가구 순-조정가처분소득과 가계재무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표의 중요도는 평균 가구 순-조정가처분소득 4.25점, 가계재무자산 4.15점으로 나타났다. 고용 항목의 세부 지표는 직업안정성, 개인수입, 고용률, 실업률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중요도 평균은 직업안정성 4.38점, 개인수입 4.26점, 고용률 3.97점, 실업률 3.75점으로 나타났다. 주거의 질의 세부지표는 주거비 비율, 1인당 평균 사용 방 수, 기본 편의시설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중요도 평균은 주거비 비율 4.03점, 1인당 평균 사용 방 수 3.82점, 기본 편의시설 3.83점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의 세부지표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기대수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중요도 평균은 주관적 건강상태 4.40점, 기대수명 3.86점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기술의 세부 지표는 평균 교육기간, 학생 역량, 교육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중요도 평균은 평균 교육기간 3.80점, 학생 역량 3.52점, 교육 정도 3.73점으로 나타났다. 자연환경의 질의 세부지표는 대기오염 정도와 수질 만족도로 되어 있고, 각각의 중요도 평균은 대기오염 정도 4.12점, 수질 만족도 4.09점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안전에 대한 세부지표는 살인율과 폭행 및 강도로 인한 피해경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중요도 평균은 살인율 4.03점, 폭행 및 강도로 인한 피해경험 3.94점으로 나타났다. 시민참여에 대한 세부지표는 법률 제정의 투명성과 투표율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중요도 평균은 법률 제정의 투명성이 3.88점, 투표율은 3.49점으로 나타났다.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세부지표는 레저와 자기관리에 투자하는 시간과 장시간 근무 비율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중요도 평균은 레저와 자기관리에 투자하는 시간이 3.94점, 장시간 근무 비율이 3.84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유대의 세부지표인 사회 연계망을 통한 지지의 중요도 평균은 3.97점으로 항목 평균인 3.82점보다 0.15점 높게 나타났다.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의 세부지표인 주관적 안녕의 중요도 평균은 항목 평균과 동일하게 4.04점으로 나타났다([표 4-20] 참조).

[표 4-20] 행복의 항목별 세부지표 중요도 평균

	세부지표	세부지표 평균	나의 행복을 위한 중요도 평균
소득	평균 가구 순-조정가처분소득	4.25	4.39
	가계재무자산	4.15	
고용여부	직업 안정성	4.38	4.19
	개인수입	4.26	
	고용률	3.97	
	실업률	3.75	
주거의 질	주거비 비율	4.03	4.03
	1인당 평균 사용방 수	3.82	
	기본 편의 시설	3.83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4.40	4.55
	기대수명	3.86	
학력과 기술	평균 교육기간	3.80	3.67
	학생 역량	3.52	
	교육 정도	3.73	
자연환경의 질	대기오염 정도	4.12	3.82
	수질 만족도	4.09	
개인의 안전	살인율	4.03	4.23
	폭행 및 강도로 인한 피해경험	3.94	
시민 참여	법률 제정의 투명성	3.88	3.32
	투표율	3.49	
일과 삶의 균형	레저와 자기관리에 투자하는 시간	3.94	4.05
	장시간 근무 비율	3.84	
사회적 유대	사회연계망을 통한 지지	3.97	3.82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	주관적 안녕(wellbeing)	4.04	4.04

05

서울형 행복지수 분석 결과

1_서울시민의 행복 현황

2_서울시민의 행복과 메가시티의 행복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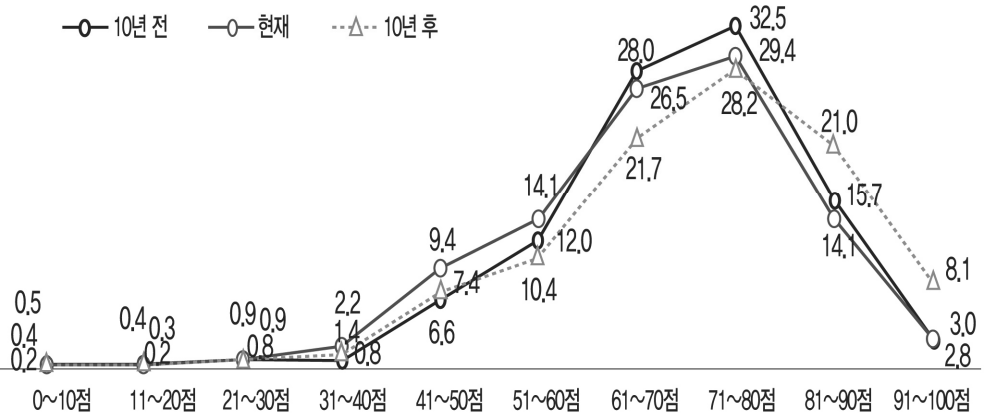
05 | 서울형 행복지수 분석 결과

1_서울시민의 행복 현황

1) 서울시민의 행복감

10년 전, 현재, 10년 후를 생각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인식평가에 대해 분석한 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현재(71.2점)보다는 과거(73.3점)에 더 행복했었고, 현재(71.2점)보다는 미래(74.9점)에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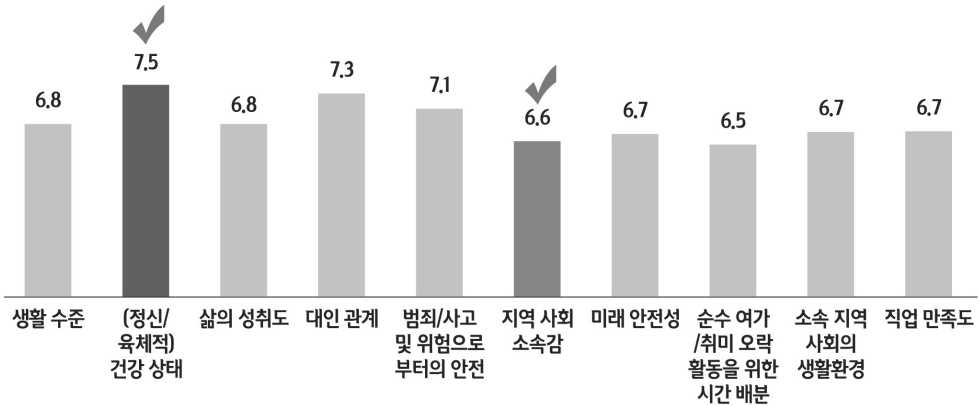
서울시민이 예측하는 10년 후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74.9점으로, 이는 10년 전 대비 1.6점, 현재 대비 3.7점 높아 과거와 현재보다 미래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젊은 연령층, 아직 결혼하지 않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는 미래에 대한 행복점수를 높게 예상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5-1] 10년 전, 현재, 10년 후 삶의 질 인식평가

영역별 주관적 행복감

현재 삶을 기준으로 개인의 삶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신/육체적)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7.5점)가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대인관계(7.3점), 범죄/사고 및 위험으로부터의 안전(7.1점)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지역사회 소속감(6.6점)은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5-2]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평가

2) 서울시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서울시민이 현실에서 체감하는 전반적인 행복지수(100점 만점 기준)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느끼는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세부 영역은 10개의 지표로 구성됐다. 삶의 경제적, 물질적 측면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생활수준’, ‘미래 안정성’, ‘직업 만족도’ 등의 3개 지표가, 삶의 환경적 측면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소속 지역 사회의 생활환경’, ‘범죄, 사고 및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등의 2개 지표가, 삶의 질적 측면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삶의 성취도’, ‘육체 및 정신 건강’, ‘순수 여가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시간 배분’의 3개 지표가, 마지막으로 삶의 사회적 유대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대인관계’, ‘지역 사회 소속감’ 등의 2개 지표가 사용됐다. 각 지표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됐고 전체 지표의 합산 값은 최대 100점, 최소 0점 사이에 분포한다.

먼저, 전체 지표의 합과 전반적인 체감 행복지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자. 이론적으로 볼 때 전반적인 체감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전체 지표의 합 역시 높아야 한다. 실제로 두 변인 사이의 Pearson Correlation을 측정 한 결과 $r=.594$ (two tailed, $p<.01$)로 나왔고, 이는 두 변인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과연 삶의 어떤 영역에 대한 만족이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체감 행복지수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전반적인 체감 행복지수, 독립변수는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10개 지표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들의 연령·성별·직업·고용 형태·교육 수준이다. 연령을 제외한 나머지 인구, 사회 변수들을 모두 명목형 변수로 측정된 관계로 더미 변수로 변환, 측정하였다. 분석에서 유의한 독립변수들을 가리기 위해 step-wise 방식이 사용되었고 총 5차례의 모델 비교 과정을 통해 다음의 최종 모델이 설정됐다.

[표 5-1] 회귀분석 1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Constant)	8.867	2.947		3.009	.003
D0103 현재 개인의 삶 항목별 만족도 [삶의 성취도]	2.474	.455	.216	5.442	.000
D0107 현재 개인의 삶 항목별 만족도 [미래 안정성]	1.912	.388	.187	4.923	.000
D0101 현재 개인의 삶 항목별 만족도 [생활수준]	1.973	.449	.168	4.392	.000
D0108 현재 개인의 삶 항목별 만족도 [순수 여가, 취미 및 오락 활동을 위한 시간 배분]	1.302	.340	.132	3.833	.000
D0110 현재 개인의 삶 항목별 만족도 [직업 만족도]	1.536	.406	.140	3.782	.000

※ 종속변수: 현재(2015년) 개인의 행복정도

10개 지표 중 총 5개의 지표가 체감 행복지수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이 확인됐다. 표준화 계수를 기준으로 전반적인 체감 행복지수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지표는 삶의 성취도이며 그 뒤를 이어 미래 안정성, 생활수준, 순수 오락 및 취미를 위한 시간 배분, 직업 만족도의 순으로 중요도가 감소하였다. 이들 5개 지표의 성격을 살펴보면 순수 오락 및 취미를 위한 시간 배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이 모두 삶의 물질적, 경제적 측면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삶의 성취도는 앞서 제시한 범주에 따르면 삶의 질적 측면에 해당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물질적, 경제적 성공이 삶의 성취도의 주요한 척도로 통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민들의 체감 행복은 물질적, 경제적 만족도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셈이다. 풍족한 경제적, 물질적 조건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주는 않지만 동시에 물질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이 없으면 행복해지기 어렵다는 논리가 적어도 서울시민의 행복 메커니즘에서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서울시민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또 다른 자료를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매년 서울시민의 삶의 질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자료인 서울서베이 2014 자료를 통해 서울시민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사람들이 체감하는 행복은 개인적, 지역적, 사회적 변인 등 다양한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지는 복합적 심리 상태이다. 서울시민들의 체감 행복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응답자들의 학력, 소득, 직업, 계층 의식, 정치 성향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인들은 물론, 결혼, 성별, 나이와 같은 기본적인 인구 변인, 타인 및 사회에 대한 신뢰 및 도시 주거 위험 정도 등과 같은 사회/환경 변인, 그리고 자신의 건강, 가정생활, 사회생활, 재정, 대인관계 등에 대한 만족도와 같은 개인적 변인들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서울시민들의 체감 행복지수를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 본 분석에서는 다양한 변인들이 서울시민들의 체감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⁹⁾. [표 5-2]와 [표 5-3]에 정

9) 본 분석은 2014년 서울 서베이 가구원 자료를 사용하였다. 층화 2단 집락 추출법을 사용, 총 20,000가구, 15세 이상 가구원 45,496명여 명이 조사된 본 설문조사는 인구, 경제, 도시 발전과 주거, 문화, 관광, 복지, 여성과 가족, 환경, 교통, 정보와 참여, 안전과 재난, 가치와 의식 등 총 12개 분야별 지표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의식 및 태도에 대한 자료를 담고 있다. 행복에 대한 질문은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5개 문항은 응답자의 건강, 재정, 대인관계(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직장, 학교, 종교, 취미, 계모임 등)에 대한 행복 정도를 11점 척도(0=가장 불행, 10=가장 행복)로, 나머지

리돼 있듯이, 종속 변수로는 101점 척도로 측정된 종합 행복지수가, 독립 변수로는 응답자들의 나이, 결혼, 성별, 직업, 소득, 사회 및 이웃에 대한 신뢰, 도시 주거 환경 위험도, 교육, 계층의식, 계층 이동 가능성, 그리고 5개 생활 영역에 대한 자만족도 등 총 11개 변수가 사용되었다.

각각의 변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표 5-2]에 나타나 있지만 소득 변수의 경우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2014년 서울 서베이의 소득 정보는 개별 응답자 기준이 아닌 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집계된 총 가구 소득이며 실측값이 아닌 50만 원 단위의 19개 구간(50만 원 미만, 100만~150만 원 미만, 150만~200만 원 미만, ..., 900만 원 이상)으로 집계되어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총 가구 소득을 해당 가구월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소득 수준과 체감 행복 사이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19개 소득 구간을 해당 구간의 중간값으로 대체하였다. 따라서 50만 원 미만 구간은 25만 원으로, 50만~100만 원 미만 구간은 75만 원으로, 100만~150만 원 미만 구간은 125만 원으로 그리고 최상위 소득 구간인 900만 원 이상은 925만 원으로 대체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득 분포의 정규화를 위해 각 구간의 대체 값에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최적 설명 변수의 탐색을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의 방법이 사용되었고 그 결과 [표 5-3] 모델이 최종 선택되었다.

1개 문항은 전반적인 행복 수준을 101점 척도(0=가장 불행, 100=가장 행복)로 측정하고 있다.

[표 5-2]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

항목	변수	
종속 변수	귀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요즘 귀하의 행복 정도를 점수로 말씀해 주십시오. (연속형 변수)	
독립 변수	나이	범주형 변수 -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이상의 총 6개 나이군 구분 - 60대 이상 집단=준거집단
	결혼	범주형 변수 - 기혼, 미혼, 이혼/별거, 사별 등 총 4개 군으로 구분 - 사별 집단=준거집단
	성별	범주형 변수 - 남자, 여자 - 여자=준거집단
	직업	범주형 변수 - 관리/전문직,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기타 등 총 4개 직업군 구분 - 기타(학생, 주부, 무직, 및 기타)=준거집단
	소득	연속형 변수 - 자연로그값
	이웃 및 사회에 대한 신뢰	연속형 변수 - 이웃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정도를 5점 척도(1=전혀 신뢰 안 함, 5=매우 신뢰함)로 각각 측정 후 합산
	도시 주거 위험도	연속형 변수 - 서울의 자연재해, 밤길 치안, 범죄, 안전사고 등 4개 위험 요소에 대한 위험도를 5점 척도(1=전혀 위험하지 않다, 5=매우 위험하다)로 각각 측정 후 합산
	교육	범주형 변수 -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수료/졸업 등 총 6개 학력군으로 구분 - 초등학교 졸업=준거집단
	계층의식	연속형 변수 - 6점 척도(1=하하, 6=상상)
	계층 이동 가능성	연속형 변수 - 5점 척도(1=매우 낮다, 5=매우 높다)
생활 영역 주관적 만족도	연속형 변수 - 현재의 건강상태, 재정상태, 대인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행복도를 11점 척도로 측정(0=가장 불행, 10=가장 행복)	

[표 5-3] 회귀분석 2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Constant)	17.426	1.347		12.938	.000
행복지수 가정생활	1.638	.052	.175	31.583	.000
행복지수 재정상태	1.440	.038	.178	37.496	.000
행복지수 사회생활	1.354	.053	.145	25.540	.000
계층의식	1.352	.063	.089	21.299	.000
행복지수 건강상태	.616	.039	.075	15.853	.000
행복지수 대인관계	.896	.054	.093	16.562	.000
30대 더미	2.066	.149	.065	13.870	.000
20대 더미	1.789	.204	.053	8.752	.000
계층 이동 가능성	.569	.056	.039	10.119	.000
블루칼라	-.630	.106	-.024	-5.953	.000
사회적 신뢰_다른 나라 사람	.400	.078	.026	5.151	.000
소득(자연로그)	.365	.095	.017	3.825	.000
10대 더미	1.907	.271	.038	7.041	.000
기혼자 집단	1.213	.170	.047	7.122	.000
40대 더미	.455	.136	.014	3.347	.001
남자 더미	-.501	.095	-.020	-5.279	.000
고등학교 졸업 더미	-.521	.113	-.020	-4.592	.000
중학교 졸업 더미	-.604	.186	-.014	-3.244	.001
미혼자 집단	.749	.232	.026	3.231	.001
사회적 신뢰_처음 만난 사람	.184	.077	.012	2.394	.017

모델의 설명력과 적합도는 각각 $R^2=0.388$, $F(20, 45475)=1438.560$, $P<0.001$ 로 해당 모델을 통해 종속 변수인 서울시민의 체감 행복의 분산 중 약 39%를 설명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각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정생활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만족도가 1점 상승할수록 체감 행복지수는 1.638점 상승하

였고 재정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1점 상승할수록 체감 행복지수 또한 1.440점 상승하였다. 사회생활에 대한 만족도 역시 체감 행복지수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해당 만족도가 1점 상승할 때 체감 행복지수는 1.354점 상승했다. 반대로 대인관계 및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체감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 의식 또한 체감 행복과 중요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를 높이 평가할수록 혹은 향후 개인의 노력을 통해 지위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는 확신이 클수록 체감 행복지수 역시 각각 1.352점, 0.569점 증가하였다. 연령의 경우, 50대를 제외한 나머지 나이군, 즉 10대에서 40대 집단 모두 준거집단인 60대 이상의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행복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연령 집단의 경우 가장 큰 행복지수의 차이를 보이는데 60대 이상의 연령 집단에 비해 2점가량 높은 행복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0대 연령 집단과의 비교에서 체감 행복지수의 차이가 하위 연령 집단들에 비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서울시민들의 체감 행복은 10대에서 30대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다 40세 이후부터 하락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직업에 따른 체감 행복지수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학생, 주부, 무직, 및 기타로 구성된 기타 직업군과의 비교에서 관리/전문직 혹은 화이트칼라 직종에 종사하는 서울시민들의 체감 행복지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직 블루칼라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준거집단인 기타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혼인 상태에 따른 체감 행복지수의 차이는 확연하게 대조된다. 배우자가 이미 사별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현재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기혼자 집단은 약 1.2점가량 높은 행복지수를 체감하고 있으며 미혼자 집단 역시 준거집단에 비해 0.75점가량 높은 행복지수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이혼/별거 등으로 배우자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지 못한 응답자들은 사별 집단과 체감 행복지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볼 때 배우자의 존재, 즉 결혼 자체가 행복을 제고(提高)하기보다는

배우자와의 관계, 즉 결혼생활의 질이 행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경험하는 응답자일수록 높은 행복지수를 체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교육에 따른 체감 행복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높은 교육 수준이 반드시 더 많은 행복을 가져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행복지수는 낮아진다. 준거집단인 초등학교 졸업자(무학 및 중퇴 포함)와 비교할 때,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경우 체감 행복지수는 각각 -0.604점, -0.521점 떨어져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지수를 체감함을 알 수 있다. 전문대, 4년제 대학, 그리고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들은 준거집단과의 체감 행복 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교육 정도와 체감 행복 사이에는 순보다 역의 관계가 우선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에 따른 행복지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응답자들의 체감 행복지수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소득의 경우 원측값을 그대로 사용한 여타 변수들과 달리 자연로그값으로 변환되어 사용됐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자연로그 소득의 값이 1만큼 증가할 때 행복지수가 0.365점만큼 상승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아래의 공식에서 볼 수 있듯이,

$$\ln(X)+1=\ln(X)+\ln(e)=\ln(X*e), e=2.72$$

자연로그값에 1을 더하는 것은 곧 X에 e값인 2.72를 곱하는 것과 같다. 이를 비율로 따지면 X값이 172% 증가한 것이고 따라서 자연로그를 취하지 않은 소득의 값이 172% 증가할 때, 체감 행복지수는 0.365점 상승하게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만약 소득의 값이 172%가 아닌 p%만큼 증가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행복지수의 변화 값은 다음의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

$$0.365*(\ln[100+p\%]/100)$$

예를 들어 소득이 10%만큼 증가하면 행복지수는 $0.258*\ln[110/100]=0.365*0.095=0.035$ 만큼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신뢰는 체감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다른 나라 사람)과 타인(일반인)과 같이 친분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일수록 그들의 체감 행복 역시 상승하였다. 낯선 사람들이라도 경계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삶의 여유를 가지는 데 일조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하면, 서울시민들의 체감 행복은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 직업, 교육 정도 등 개인의 객관화된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체감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오히려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특히 가정생활, 재정상태, 사회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체감 행복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복이 항상 현실 속의 다양한 물리적, 객관적 조건들을 있는 그대로 투영하지만은 않음을 의미한다. 즉, 행복은 현실과 인지의 직접적인 대응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현실의 조건들을 자신의 가치 기준에 따라 해석하고 그 주관적 해석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인지와 인지의 대응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상의 분석에서 상호 모순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분석 1에 따르면 저성장 시대의 도래에 따른 취업난의 가중과 조기퇴직의 위기가 모든 세대를 위협하는 현실에서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법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일자리와 소득을 사회가 만들어 주는 것이다. 불투명한 미래가 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활고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저임금 직종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회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한편, 분석 2에 따르면 경제적 요소로서의 소득이 전체 행복점수의 증가분을 설명하는 것에 비해 다른 주관적이고 인지적 요소들(주관적 계층의식, 계층 이동 가능성, 주관적 생활영역별 만족도 등)이 행복점수 상승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는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분석이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되고 모니터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_서울시민의 행복과 메가시티의 행복 비교

1) 가중치에 따른 서울시민 행복감과 메가시티 행복 비교

[표 5-5]에는 BLI 11개 평가 지표에 대한 36개 국가들의 평균 가중치가 정리돼 있다. 가장 낮은 가중치가 부여된 영역은 노란색으로, 반대로 가장 높은 가중치가 부여된 영역은 붉은색으로 구분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표에서 알 수 있듯이 36개 국가 모두에서 시민참여에 대한 가중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정치 참여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이 더 이상 선진국만의 사회 현상이 아닌 전 지구적 사회현상으로 확산됐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투표권의 행사, 정부 정책 및 법률 제정 과정의 열린 참여와 같은 민주주의의 실천이 통념과 달리 행복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아닐 수 있음을 암시한다.

반대로 가장 높은 가중치가 부여된 평가 영역들은 학력과 기술, 건강,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 개인의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과 건강에 대한 선호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종합 안녕 지수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던 북유럽 복지 국가들 중 건강을 꼽은 덴마크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핀란드, 덴마크, 스웨덴-모두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종합 안녕 지수에서 낮은 순위를 차지한 터키, 러시아는 건강에, 멕시코, 칠레, 브라질 등의 라틴아메리카는 모두 학력과 기술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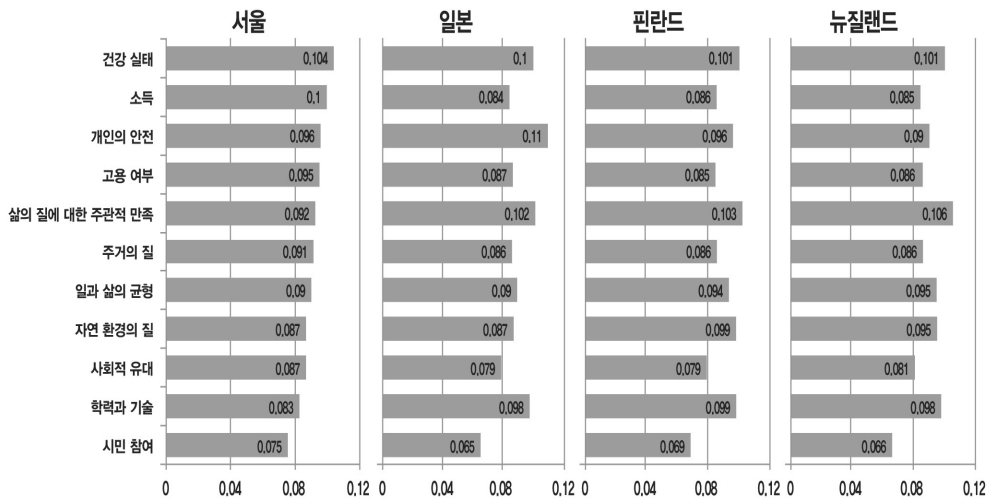
종합 안녕 순위 27위를 차지한 서울의 경우, 건강을 가장 중요한 평가 영역으로 꼽았다. 이는 개인의 안전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이스라엘과 터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건강 다음으로 서울은 소득, 개인의 안전, 고용,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 주거의 질, 일과 삶의 균형, 사회적 유대, 자연환경의 질, 학력과 기술, 시민 참여의 순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본 순위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시민들은 행복 가치관에 있어 소득 및 고용과 같은 물질적, 경제적 조건이 다른 정신적, 비경제적 조건에 비해 우선시된다. 반대로 일본의

[표 5-4] BLI 11개 지표에 대한 36개 국가들의 평균 가중치

국가	시민 참여	사회적 유대	학력과 기술	자연 환경의 질	건강 상태	주거의 질	소득	고용 여부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	개인의 안전	일과 삶의 균형
오스트레일리아	0.065	0.075	0.096	0.084	0.101	0.089	0.087	0.085	0.100	0.090	0.108
오스트리아	0.068	0.080	0.096	0.096	0.106	0.090	0.084	0.087	0.102	0.096	0.091
벨기에	0.065	0.078	0.100	0.092	0.106	0.091	0.086	0.088	0.104	0.092	0.092
브라질	0.065	0.075	0.107	0.088	0.104	0.089	0.085	0.088	0.103	0.101	0.092
캐나다	0.064	0.079	0.098	0.090	0.107	0.089	0.088	0.088	0.104	0.094	0.093
칠레	0.075	0.078	0.105	0.091	0.099	0.085	0.086	0.092	0.098	0.087	0.097
체코	0.066	0.079	0.096	0.094	0.102	0.083	0.093	0.087	0.098	0.091	0.095
덴마크	0.073	0.080	0.101	0.091	0.103	0.082	0.081	0.086	0.111	0.092	0.094
에스토니아	0.068	0.076	0.099	0.096	0.102	0.097	0.090	0.088	0.101	0.096	0.083
핀란드	0.069	0.079	0.099	0.099	0.101	0.086	0.086	0.085	0.103	0.096	0.094
프랑스	0.063	0.087	0.098	0.092	0.107	0.093	0.086	0.091	0.099	0.087	0.093
독일	0.067	0.080	0.100	0.092	0.106	0.090	0.085	0.087	0.108	0.090	0.093
그리스	0.065	0.078	0.098	0.090	0.104	0.084	0.092	0.092	0.102	0.090	0.091
헝가리	0.062	0.084	0.096	0.092	0.097	0.093	0.088	0.084	0.104	0.099	0.094
아이슬란드	0.064	0.083	0.102	0.083	0.111	0.094	0.088	0.092	0.095	0.098	0.089
아일랜드	0.068	0.083	0.097	0.086	0.101	0.086	0.089	0.089	0.112	0.084	0.101
이스라엘	0.062	0.075	0.104	0.082	0.108	0.093	0.097	0.089	0.099	0.088	0.093
이탈리아	0.072	0.083	0.098	0.094	0.102	0.086	0.082	0.093	0.103	0.088	0.094
일본	0.065	0.079	0.098	0.087	0.100	0.086	0.084	0.087	0.102	0.110	0.090
서울	0.075	0.087	0.083	0.087	0.104	0.091	0.100	0.095	0.092	0.096	0.090
룩셈부르크	0.061	0.077	0.092	0.093	0.104	0.090	0.102	0.090	0.102	0.091	0.093
멕시코	0.073	0.076	0.103	0.088	0.100	0.088	0.090	0.093	0.099	0.093	0.093
네덜란드	0.067	0.079	0.097	0.092	0.103	0.091	0.084	0.083	0.112	0.091	0.097
뉴질랜드	0.066	0.081	0.098	0.095	0.101	0.086	0.085	0.086	0.106	0.090	0.095
노르웨이	0.065	0.079	0.095	0.092	0.106	0.092	0.086	0.090	0.105	0.092	0.095
폴란드	0.060	0.078	0.096	0.085	0.097	0.090	0.094	0.091	0.110	0.096	0.093
포르투갈	0.069	0.079	0.094	0.091	0.101	0.086	0.087	0.091	0.104	0.097	0.097
러시아	0.074	0.080	0.094	0.088	0.098	0.096	0.095	0.090	0.096	0.094	0.091
슬로바키아	0.065	0.082	0.096	0.091	0.101	0.082	0.088	0.087	0.102	0.094	0.089
슬로베니아	0.066	0.085	0.100	0.101	0.101	0.090	0.083	0.088	0.097	0.097	0.092
스페인	0.074	0.077	0.102	0.088	0.107	0.084	0.084	0.093	0.096	0.092	0.098
스웨덴	0.070	0.078	0.096	0.097	0.104	0.088	0.084	0.087	0.106	0.089	0.095
스위스	0.065	0.081	0.096	0.093	0.103	0.087	0.091	0.090	0.105	0.091	0.094
터키	0.071	0.082	0.097	0.089	0.098	0.086	0.090	0.086	0.094	0.091	0.091
영국	0.062	0.079	0.097	0.091	0.105	0.090	0.088	0.090	0.111	0.086	0.097
미국	0.063	0.081	0.099	0.092	0.104	0.085	0.086	0.087	0.112	0.090	0.099

경우, 서울과의 지리적, 문화적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반된 행복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인들은 개인의 안전 다음으로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 건강, 학력과 기술, 일과 삶의 균형, 고용, 자연환경의 질, 주거, 소득과 재산, 사회적 유대, 시민참여의 순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본 가중치 순위에서 알 수 있듯이, 물질적, 경제적 조건들이 일본인들의 가치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림 5-3] BLI 11개 지표에 대한 국가/도시들의 지표별 가중치

2) 서울시민의 행복패턴과 유사한 세계 시민들

11개 평가 영역에 대한 가중치 순위를 모두 고려했을 때, 어떤 나라들이 서울과 가장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을까? 바꿔 말하면, 서울시민들과 가장 유사한 행복 가치관을 지닌 국민들은 누구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먼저 11개 영역에 대한 가중치를 기준으로 영역 간 서열(ranking)을 국가별로 정리한 뒤, 국가 간 서열 구조의 유사 정도를 측정하였다. [표 5-5]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측정된 한국과 나머지 35개 국가 사이의 유사도를 정리한 것이다.

[표 5-5] 서울과의 유사도 측정

비교국가	유사정도
러시아	.655
폴란드	.645
룩셈부르크	.636
그리스	.591
아이슬란드	.509
이스라엘	.500
포르투갈	.500
일본	.473
터키	.473
오스트레일리아	.436
에스토니아	.427
슬로바키아	.418
멕시코	.409
체코	.391
캐나다	.391
헝가리	.391
아일랜드	.382
노르웨이	.345
스위스	.345
오스트리아	.336
스페인	.336
덴마크	.336
미국	.327
브라질	.318
핀란드	.318
벨기에	.309
네덜란드	.291
스웨덴	.282
뉴질랜드	.282
독일	.273
영국	.273
칠레	.264
프랑스	.236
슬로베니아	.218
이탈리아	.209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과 가장 유사한 서열 유형을 보인 세 나라는 러시아, 폴란드, 룩셈부르크이다. 이 중 러시아가 가장 높은 유사도(0.655)를, 그 뒤를 이어 폴란드(0.645), 룩셈부르크(0.636)의 순으로 유사도가 감소하였다. 반대로 한

참고문헌

- 고명철, 2013, “공공서비스 만족도, 정부성과, 그리고 삶의 질 간 영향관계 분석: 상향확산식 접근을 토대로”, 『한국행정학보』, 47(2): 1~30.
- _____, 2013, “삶의 질과 공공관리적 요인들 간 구조적 관계 분석: 미국 도버시 시민들의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1): 205~232.
- 김경미·최인철·류승아, 2012, “가족간 식사, 통화 및 여가활동과 중년기의 행복”,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8(2): 279~300.
- 김교성, 2014, “사회적 타살과 소득 불평등”, 『비판사회정책』, 44: 278~325.
- 김병섭·이수영·안선민, 2015, “거시적 사회경제요인이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분석: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5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775~793.
- 김승원·최상명, 2014, “경제성장·소득분배·사회지표 간의 관계분석을 통한 성장 중심 거시경제정책 평가”, 『동향과전망』, 91: 262~295.
- 김혜연, 2011,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 민간자원 연계사업 참여 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3): 1~29.
- 남은영·이재열·김민혜, 2012, “행복감, 사회자본, 여가: 관계형 여가와 자원봉사활동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6(5): 1~33.
- 박수호·이민정, 2013, “행복 요인으로서의 사회적 인정”, 『사회와 이론』, 23: 361~391.
- 서우석, 2015, “문화여가활동이 경제적 빈곤층의 행복과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29(1): 266~296.
- 우창빈, 2014,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기술적(technical) 거버넌스가 민주주의보다 우선하는가?”, 『행정논총』, 52(1): 219~246.
- 은기수, 2005, “경제적 양극화와 자살의 상관성: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한국인구학』, 28(2): 97~129.
- 이양호·지은주·권혁용, 2013, “불평등과 행복: 한국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47(3): 25~43.
- 이지은·강민성·이승종, 2014, “도시위험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주민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2): 559~588.
- 이현국·이민아, 2014, “공공서비스 성과인식과 행복”, 『한국행정학보』, 48(2): 293~315.

- 장승진, 2011, “행복의 장기적차: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한국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 『한국정당학회보』, 10(2): 43~66.
- 조연상, 2012, “행복지수와 한국 재정정책 방향: 행복한 나라 만들기”, 『재정정책논집』, 14(4): 3~30.
- 최동주·이묘숙, 2013, “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외식여가활동의 매개효과 분석”, 『외식경영 연구』, 16(5): 321~342.
- 한준·김석호·하상응·신인철, 2014, “사회적 관계의 양면성과 삶의 만족”, 『한국사회학』, 48(5): 1~24.
- Barusch, Amanda S. and Wanda M. Spaid, 1989, “Gender Differences in Caregiving: Why Do Wives Report Greater Burden?”, *The Gerontologist*, 29: 667~676.
- Bjørnskov, Christian, 2006, “The multiple facets of social capital”,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2~40.
- Blanchflower, David G. and Andrew J. Oswald, 2004, “Well-being over time in Britain and the US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 1359~1386.
- Boelhouwer, Jeroen, 2010, *Wellbeing in the Netherlands: The scp life situation index since 1974*, 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Bukenya, James O., Tesfa G. Gebremedhin, and Peter V. Schaeffer, 2003, “Analysis of Rural Quality of Life and Health: A Spatial Approach”,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280~293.
- Clark, Andrew, 2003, “Unemployment as a Social Norm: Psychological Evidence from Panel Data”, *Journal of Labor Economics*, 323~351.
- Clark, Andrew and Orsolya Lelkes, 2006, “Deliver us from Evil: Religion as insurance”, *Economics of Religion*, Department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ic History of the University of Granada.
- Clark, Andrew E. and Andrew J. Oswald, 1994, “Unhappiness and Unemployment”, *The Economic Journal*, 104: 648~659.
- Delhey, Jan and Ulrich Kohler, 2011, “Is happiness inequality immune to income inequality? New evidence through instrument-effect-corrected standard deviations”, *Social Science Research*, 742~756.
- DeNeve, Kristina M. and Harris Cooper, 1998, “The happy personality: A meta-analysis of 137 personality traits an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24: 197~229.
- Di Tella, R., Rj Macculloch, and Aj Oswald, 2003, “The macroeconomics of happines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09~827.
- Di Tella, Rafael, Robert J. MacCulloch, and Andrew J. Oswald, 2001, “Preferences over Inflation and Unemployment: Evidence from Surveys of Happines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335~341.

Dolan, Paul, Tessa Peasgood, and Mathew White, 2008, “Do we really know what makes us happy? A review of the economic literature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9: 94~122.

Dorn, David, Justina A. V. Fischer, Gebhard Kirchgassner, and Alfonso Sousa-Poza, 2007, “Is It Culture or Democracy? The Impact of Democracy and Culture on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05~526.

Duncan, G., 2010, “Should Happiness-Maximization be the Goal of Government?”,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2): 163~178.

Easterlin, Richard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Paul A. David, Melvin W. Reder(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r of Moses Abramovitz*, New York: Academic Press, 89~125.

_____, 1995, “Will raising the incomes of all increase the happiness of al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27(1): 35~47.

_____, 2005, “Feeding the Illusion of Growth and Happiness: A Reply to Hagerty and Veenhoven”, *Social Indicators Research*, 74(3): 429~443.

_____, 2006, “Life cycle happiness and its sources: Intersections of psychology, economics, and demography”,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7: 463~482.

_____, 2009, “Lost in transition: Life satisfaction on the road to capitalism”,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71: 130~145.

Easterlin, Richard A., Laura Angelescu, and Jacqueline S. Zweig, 2011, “The Impact of Modern Economic Growth on Urbanâ Rural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World Development*, 39: 2187~2198.

Ebrahim, Amina, Ferdi Botha, and Jen Snowball, 2013,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race groups in South Africa”, *Development Southern Africa*, 30: 168~185.

Frey, Bruno S. and Alois Stutzer, 2000, “Happiness, Economy and Institutions”, *Economic Journal*, 918~938.

Frey, B. S. and A. Stutzer, 2002, *Happiness and economics: how the economy and institutions affect well-being*,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Gerdtham, Ulf-G. and Magnus Johannesson,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health, and socio-economic factors: results based on Swedish microdata”, *Journal of Socio-Economics*, 553~557.

Gomez, Veronica, Franciska Krings, Adrian Bangerter, and Alexander Grob, 2009,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and life events on subjective well-being from a life span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 345~354.

Graham, Carol and Andrew Felton, 2006, "Inequality and happiness: Insights from Latin America", *The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4: 107~122.

Graham, Carol, Andrew Eggers, and Sandip Sukhtankar, 2004, "Does happiness pay?: An exploration based on panel data from Russia",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55: 319~342.

Hagerty, M. R. and R. Veenhoven, 2003, "Wealth and Happiness Revisited—Growing National Income Does Go with Greater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4(1): 1~27.

He, Fei, Hao Guan, Yi Kong, Rong Cao, and Jiayi Peng, 2014, "Some individual differences influencing the propensity to happiness: Insights from behavioral economic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9: 897~908.

Helliwell, J. F. and R. D. Putnam,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Biological Sciences*, 1435~1446.

Helliwell, John F., 2003, "How's life? Combining individual and national variables to explain subjective well-being", *Economic Modelling*, 20: 331~360.

Helliwell, John F., Richard Layard, and Jeffrey Sachs, 2012, *World Happiness Report*, New York: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Hirakawa, Yoshihisa, Masafumi Kuzuya, Yuichiro Masuda, Hiromi Enoki, Mitsunaga Iwata, Jun Hasegawa, and Akihisa Iguchi, 2006, "Evaluation of gender differences in caregiver burden in home care: Nagoya Longitudinal Study of the Frail Elderly(NLS-FE)", *Psychogeriatrics*, 6: 91~99.

Lelkes Orsolya, 2006, "Knowing what is good for you: Empirical analysis of personal preferences and the "objective good",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5: 285~307.

Lischetzke, Tanja and Michael Eid, 2006, "Why Extraverts Are Happier Than Introverts: The Role of Mood 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 1127~1162.

MacDonald, Maurice and Robin A. Douthitt, 1992, "Consumption theories and consumers' assessments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6: 243.

Marks, Gary N. and Nicole Fleming, 1999, "Influences and Consequences of Well-Being among Australian Young People: 1980-1995",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 301~323.

Marks, Nadine F., James David Lambert, and Heejeong Choi, 2002, "Transitions to Caregiving, Gende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Prospective U.S. Nation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657~667.

Michalos, A. et al., 2011, *Canadian Index of Wellbeing. Technical Report*, 1.0. Waterloo, ON: Canadian Index of Wellbeing and University of Waterloo.

Mroczek, Daniel K. and Avron Spiro, 2005, "Change in Life Satisfaction During Adulthood: Findings From the Veterans Affairs Normative Aging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 189~202.

Oerlemans, Wido G. M. and Arnold B. Bakker, 2014, "Why extraverts are happier: A day reconstruction stud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50: 11~22.

Ott, J. C., 2011, "Government and Happiness in 130 Nations: Good Governance Fosters Higher Level and More Equality of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2(1): 3~22.

Pearlin, Leonard and Carol, S. Aneshensel, 1994, "Caregiving: The unexpected career", *Social Justice Research*, 7: 373~390.

Pichler, Florian, 2006, "Subjective Quality of Life of Young Europeans. Feeling Happy but Who Knows Why?", *Social Indicators Research*, 75: 419~444.

Putnam, Robert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hields, Michael A. and Stephen Wheatley Price, 2005, "Exploring the economic and social determinant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England",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Statistics in Society)*, 168: 513~537.

Stadelmann-Steffen, Isabelle and Adrian Vatter, 2012, "Does Satisfaction with Democracy Really Increase Happiness? Direct Democracy and Individual Satisfaction in Switzerland", *Political Behavior*, 535~559.

Stevenson, B. and J. Wolfers, 2008, "Economic Growth and Subjective Well-Being: Reassessing the Easterlin Paradox", *Economic Activity*, Economic Studies Program, The Brookings Institution, 39: 1~102.

Stevenson, Betsey and Justin Wolfers, 2008, "Happiness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37: 33~79.

Stutzer, Alois, 2004, "The role of income aspirations in individual happines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54: 89~109.

Wang, Feng, Heather M. Orpana, Howard Morrison, Margaret de Groh, Sulan Dai, and Wei Luo, 2012, "Long-term Association Between Leisure-time Physical Activity and Changes in Happiness: Analysis of the Prospective National Population Health Survey",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76: 1095~1100.

Wang, Miao and Man Chiu Sunny Wong, 2011, "Leisure and happiness in the United States: evidence from survey data", *Applied Economics Letters*, 1813~1816.

Wolfers, Justin, 2003, “Is Business Cycle Volatility Costly? Evidence from Surveys of Subjective Well-Being”, *International Finance*, 1~26.

Yee, J. L. and R. Schulz, 2000, “Gender differences in psychiatric morbidity among family caregivers: a review and analysis”, *The Gerontologist*, 147.

Young, Rosalie F. and Eva Kahana, 1989, “Specifying Caregiver Outcomes: Gender and Relationship Aspects of Caregiving Strain”, *The Gerontologist*, 29: 660~666.

Zagorski, Krzysztof, Mariah Evans, Jonathan Kelley, and Katarzyna Piotrowska, 2014, “Does National Income Inequality Affect Individuals’ Quality of Life in Europe? Inequality, Happiness, Finances, and Health”,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89~1110.

<http://oecd.mofa.go.kr>(OECD 대한민국 대표부)

<http://www.grossnationalhappiness.com>(부탄연구 및 GNH 조사센터)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OECD Better Life Index)

<http://www.ons.gov.uk>(영국 통계청)

<http://www.qualityoflifeproject.govt.nz>(뉴질랜드 삶의 질 조사)

부 록 설문지



II				
----	--	--	--	--

서울형 행복지수 관련 시민의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의 의뢰로 (주)글로벌리서치가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울형 행복지수 관련 시민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행복의 각 영역이 선생님의 행복에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2015년 03월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본 조사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 : 변 미 리 박사 (Tel : 02-2149-1256)
 (주)글로벌리서치 연구1본부 3팀 : 채 수 비 연구원 (Tel : 02-3438-1730)

PART B. 행복의 항목별 중요도 평가

B1.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각 영역들이 행복과 얼마나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들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을 위한 중요도와 나의 행복을 위한 중요도로 각각 나누어 말씀해 주십시오.

구 분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중요도						나의 행복을 위한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B1-1. 소득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B1-2. 고용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B1-3. 주거의 질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B1-4. (정신/육체적) 건강상태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B1-5. 학력과 기술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B1-6. 자연환경의 질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B1-7. 개인의 안전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B1-8. 시민 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B1-9. 일과 삶의 균형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B1-10. 사회적 유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B1-11.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B1-12. 사람에 대한 신뢰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B1-13. 사회제도/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B1-14. 문화생활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B1-15.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PART C. 행복의 항목별 세부 지표 중요도 평가

※ ‘나의 행복을 위한 중요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C1. 다음은 행복의 [소득] 영역을 구성하는 세부 지표입니다. 각 지표가 해당 영역 안에서 갖는 상대적 중요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소득 세부 지표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C1-1. 평균 가구 순조정 가처분 소득	①	②	③	④	⑤	
C1-2. 가계재무자산	①	②	③	④	⑤	

※ 평균 가구 순-조정 가처분 소득 : 세금 등을 제외한 연간소득

※ 가계재무자산 : 가계재무자산 가치(저금, 주식 등)에서 대출비용을 제외한 것

C2. 다음은 행복의 [고용] 영역을 구성하는 세부 지표입니다. 각 지표가 해당 영역 안에서 갖는 상대적 중요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 세부 지표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C2-1. 직업 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C2-2. 개인 수입	①	②	③	④	⑤	
C2-3. 고용률	①	②	③	④	⑤	
C2-4. 실업률	①	②	③	④	⑤	

※ 직업 안정성 : 지난 6개월간 고용되어 있는지의 여부

※ 개인 수입 : 정규직의 연간 평균 수입

※ 고용률 : 15~64세의 고용률(연간)

※ 실업률 : 15~64세의 실업률(연간)

C3. 다음은 행복의 [주거의 질] 영역을 구성하는 세부 지표입니다. 각 지표가 해당 영역 안에서 갖는 상대적 중요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의 질 세부 지표	전혀 중요 하지 않음					매우 중요함
	←→					
C3-1. 주거비 비율	①	②	③	④	⑤	
C3-2. 1인당 평균 사용 방 수	①	②	③	④	⑤	
C3-3. 기본 편의시설	①	②	③	④	⑤	

※ 주거비 비율 : 가계수입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 1인당 평균 사용 방 수 : 전체 방 수 / 가구원 수

※ 기본 편의시설 : 전체 화장실 수 / 가구원 수

C4. 다음은 행복의 [(정신/육체적) 건강 상태] 영역을 구성하는 세부 지표입니다. 각 지표가 해당 영역 안에서 갖는 상대적 중요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신/육체적) 건강 상태 세부 지표	전혀 중요 하지 않음					매우 중요함
	←→					
C4-1. 주관적 건강 상태	①	②	③	④	⑤	
C4-2. 기대수명	①	②	③	④	⑤	

※ 주관적 건강 상태 : 개인이 느끼는 건강의 양호 정도

※ 기대수명 : 현재 태어나는 영아들 기준의 평균 수명

C5. 다음은 행복의 [학력과 기술] 영역을 구성하는 세부 지표입니다. 각 지표가 해당 영역 안에서 갖는 상대적 중요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학력과 기술 세부 지표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C5-1. 평균 교육 기간	①	②	③	④	⑤	
C5-2. 학생 역량	①	②	③	④	⑤	
C5-3. 교육 정도	①	②	③	④	⑤	

※ 평균 교육 기간 : 5세부터 39세까지 사람이 평균적으로 받는 공교육 연수

※ 학생 역량 : OECD의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평균 성적

※ 교육 정도 : 25~64세 성인 남녀 중 고등학교 졸업률

C6. 다음은 행복의 [자연환경의 질] 영역을 구성하는 세부 지표입니다. 각 지표가 해당 영역 안에서 갖는 상대적 중요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연환경의 질 세부 지표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C6-1. 대기 오염 정도	①	②	③	④	⑤	
C6-2. 수질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 대기 오염 정도 : 연평균 대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

※ 수질 만족도 : 현 거주지에 공급되는 수질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 만족도

C7. 다음은 행복의 [개인의 안전] 영역을 구성하는 세부 지표입니다. 각 지표가 해당 영역 안에서 갖는 상대적 중요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의 안전 세부 지표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C7-1. 살인율	①	②	③	④	⑤	
C7-2. 폭행 및 강도로 인한 피해 경험	①	②	③	④	⑤	

※ 살인율 : 인구 100,000명당 살인 건수

※ 폭행 및 강도로 인한 피해 경험 : 지난 12개월 동안 폭행 및 강도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응답 비율

C8. 다음은 행복의 [시민 참여] 영역을 구성하는 세부 지표입니다. 각 지표가 해당 영역 안에서 갖는 상대적 중요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 참여 세부 지표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C8-1. 법률 제정의 투명성	①	②	③	④	⑤	
C8-2. 투표율	①	②	③	④	⑤	

※ 법률 제정의 투명성 : 정부의 정책 및 법률 제정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

※ 투표율 : 총선거 및 대통령 선거와 같은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집계된 실제 투표율 (투표인 수/등록인 수)

C9. 다음은 행복의 [일과 삶의 균형] 영역을 구성하는 세부 지표입니다. 각 지표가 해당 영역 안에서 갖는 상대적 중요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과 삶의 균형 세부 지표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C9-1. 레저와 자기관리에 투자하는 시간	①	②	③	④	⑤	
C9-2. 장시간 근무 비율	①	②	③	④	⑤	

※ 레저와 자기관리에 투자하는 시간 : 전임 피고용자가 하루 평균 레저와 자기관리에 투자하는 시간

※ 장시간 근무 비율 : 근로 시간이 일주일 기준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피고용자들의 비율

C10. 다음은 행복의 [사회적 유대] 영역을 구성하는 세부 지표입니다. 각 지표가 해당 영역 안에서 갖는 상대적 중요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적 유대 세부 지표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C10-1. 사회 연계망을 통한 지지	①	②	③	④	⑤

※ 사회 연계망을 통한 지지 : 필요할 때(어려울 때) 본인이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또는 친척이 있음을 의미

C11. 다음은 행복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 영역을 구성하는 세부 지표입니다. 각 지표가 해당 영역 안에서 갖는 상대적 중요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 세부 지표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C11-1. 주관적 안녕(well-being)	①	②	③	④	⑤

※ 주관적 안녕 : 현재의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

PART D. 항목별 만족도 평가

D1. 다음은 개인의 삶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현재 삶을 기준으로 항목별로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를 10점, 가장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항목에 대한 선생님의 만족 수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간 점수는 5점입니다.

구 분	
D1- 1. 생활수준	10점 만점 중 () 점
D1- 2. (정신/육체적) 건강상태	10점 만점 중 () 점

구 분	
D1- 3. 삶의 성취도	10점 만점 중 () 점
D1- 4. 대인관계	10점 만점 중 () 점
D1- 5. 범죄, 사고 및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10점 만점 중 () 점
D1- 6. 지역 사회 소속감	10점 만점 중 () 점
D1- 7. 미래 안정성	10점 만점 중 () 점
D1- 8. 순수 여가, 취미 및 오락 활동을 위한 시간 배분	10점 만점 중 () 점
D1- 9. 소속 지역 사회의 생활환경	10점 만점 중 () 점
D1-10. 직업 만족도 (DQ4번의 ⑬번 무직 응답자 제외)	10점 만점 중 () 점

※ 일반적 사항

DQ1. 선생님께서는 학교 교육을 어디까지 받으셨습니까?

- | | |
|-----------------------|----------------------|
| ① 초등학교 졸업 (무학, 중퇴 포함) | ② 중학교 졸업 (중퇴 포함) |
| ③ 고등학교 졸업 (중퇴 포함) | ④ 전문대 졸업 (재학, 중퇴 포함) |
| ⑤ 대학교 졸업 (재학, 중퇴 포함) | ⑥ 대학원 이상 (재학, 중퇴 포함) |

DQ2. 선생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
| ① 기혼 | ② 미혼 | ③ 이혼/별거 | ④ 사별 |
| ⑤ 기타 () | | | |

DQ5. 선생님의 고용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DQ4번의 ⑬번 무직 응답자 제외)

- ① 고용주 ② 단독자영업자
 ③ 상용근로자 ④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⑤ 무급가족종사자 ⑥ 기타 ()

DQ6. 선생님께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형태는 어떠합니까?

-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 월세 ④ 월세
 ⑤ 기타 ()

DQ7. 선생님께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은 무엇입니까?[TYPE3]

- ① 아파트(주상복합, 오피스텔 포함) ② 연립주택(다세대, 다가구)
 ③ 단독주택 ④ 기타 ()

DQ8. 선생님 닉의 생활비 중 항목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비 항목	전체 생활비의 항목별 비율
DQ8-1. 식비	%
DQ8-2. 외식비	%
DQ8-3. 의복구입비	%
DQ8-4. 공교육비(등록금, 납입금 등)	%
DQ8-5.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 등)	%
DQ8-6. 교통비/차량유지비	%

생활비 항목	전체 생활비의 항목별 비율
DQ8-7. 경조사비	%
DQ8-8. 주거비(주택관리, 월세 등)	%
DQ8-9. 보건의료비(병원비 등)	%
DQ8-10. 문화비(취미생활, 문화생활 등)	%
DQ8-11. 빚(부채 상환금)	%
DQ8-12. 세금	%
DQ8-13. 기타 생활 용품비	%
DQ8-14. 기타 ()	%
합 계	100%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Abstract

The Quality of Life in Megacity and Seoul-Specific Happiness Indicator

Miree Byun · Jeongwon Choi · Minjin Park · Hyukjoon Lee

Policies in Public Sectors Should Aim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There is a common consensus that more efforts on the part of government should be made to increase the happiness of people. The World Happiness Report pu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in 2012 was the first of its kind which promoted such consensus. Not only did the report raise a fundamental question on the adequacy of current measures of social progress in particular based on GDP, but also it provided a template for every interested country or group of countries of what it means for the world, a country, and a city to progress and what the public sector should do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human being.

Shifting Paradigm: From Quantitative to Qualitative Development of Megacity

Today, megacities around the world are grappling to survive a global competition, looking for the growth engine of the city. Economic growth, however, is no longer deemed as an effective solution for the competitiveness of the city as it used to be because with absolute poverty posing little, if any, threat to most of the advanced megacities, public policies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and the enhancement of a qualitative, not just quantitative, growth of the city and society now play a more essential role in creating 'a better society' to live in.

Seoul-Specific Happiness Index Emphasizing Public Policies on Better Life and Society

In an effort to promote the quality of life of the city, the city government of Seoul has embarked on developing innovative policy tools, one of which was creating Seoul-Specific Happiness Index(SSHI) through which the city government can monitor regularly the quality of life in Seoul and identify crucial factors affecting people's happiness. SSHI aims not only to compare Seoul with other megacities by using comparable happiness indicators, but also to monitor Seoul-specific happiness level which draws upon the weights that the citizens of Seoul attribute to happiness indicators. To create SSHI, various happiness indexes currently used by other megacities and countries were reviewed, from which a set of common denominators were drawn. The component of SSHI, for the most part, resembles that of OECD's Better Life Initiative.

SSHI Comprises 11 Topics and 24 Indicators

SSHI comprises 11 topics and 24 indicators. 11 topics are economy, housing, jobs, human capital, environment, community, civic engagement, health, safety, cultural leisure, and life satisfaction and each topic comprises one to three indicators. Using SSHI,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in Seoul will be analyzed continuously and used as evidence for policy-making. Our analysis reveals that in Seoul, of the 11 topics, health matters the most to people's happiness, followed by income, safety, work and life balance, and life satisfaction.

In Other Megacities, the Importance Decreases in Order of Human Capital, Health, Life Satisfaction, Safety, and Work and Life Balance

In the cities or countries where the quality of life is higher than that of Seoul, areas such as human capital(education or skills), health, life satisfaction, and work and life balance are found to matter the most to happiness while income matters relatively less. In terms of the similarity of the weight pattern, countries like Russia, Poland, and Luxemburg resembles Seoul the most whereas countries like Italy and France the least.

To Seoulites' Happiness, Materialistic Factors Do Matter; But Subject and Perceptive Factors Matter as Well.

Our analysis of the happiness index of Seoulites reveals that the extent of influence on happiness decreases in order of satisfaction with life achievement, stability in the future, living standard, and job satisfaction. While life satisfaction, concept wise, may tap on the quality of life, people in practice tend to measure it in terms of social status or materialistic success in life. Both stability in the future and living standard represent a materialistic aspect of life as well. Therefore, how Seoulites assess their happiness is for the most part decided by materialistic and economic factors. It is also found that subjective and perceptive factors such as trust, subjective social status, social mobility prospect, and subjective satisfaction with life influence happiness more than objective factors like income.

Calling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he improvement of Happiness in Seoul

We confirm that the happiness of Seoulites is affected by both materialistic and subjective factors. SSHI is the first of its kind ever designed to monitor and analyze how the happiness of Seoulites is affected by the greater changes in socioeconomic conditions of Seoul and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community. SSHI will serve as a communicative bridge between the city government and the citizens, allowing the city government to better understand what people want and how to earn more trust. It is also noted here that when the unit of analysis is reduced to 25 metropolitan boroughs from Seoul as a whole, we find different happiness mechanisms at work between boroughs. Accordingly, for the city government to enhance democratic communication with people and exercise a scientific governance, it is imperative to choose the priority of public policies and services based on happiness mechanisms at work.

Contents

01 | Why Happiness?

- 1_Rise of Policy Interest in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 2_Research Contents and Methods

02 | Literature Review

- 1_On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 2_On Methodology

03 | Comparison of the Measuring Frames of Happiness Index

- 1_Measuring Frame by International Institutions
- 2_Measuring Frame by Other Countries
- 3_Measuring Frame by Korea
- 4_Implications

04 | Indicators and Measurement of Seoul-Specific Happiness Index(SSHI)

- 1_Indicators of SSHI
- 2_Measuring Process of SSHI

05 | Analysis Result of SSHI

- 1_How Happy Are Seoulites?
- 2_Happiness of Seoulites and Comparison of Happiness between Megacities

서울연 2014-PR-36

**메가시티 삶의 질과
서울형 행복지표**

발행인 _ 김수현

발행일 _ 2015년 3월 31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ISBN 979-11-5700-069-2 93330 8,000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